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 원장)
"만화 불서 포교는
미래 불교에 희망심기"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3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87호 2014년 4월 9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에너지 절약 '녹색 연등회'로 실천

조계종·태고종·서울시 협약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조계사 대웅전 인등 전부
연등축제 소형 행렬등은
LED 교체… "절감 효과"

가로연등·대형장엄등 '숙제'
기존 제품들 사용 어려워
초기 투자비용 부담도 문제

최근 조계종에 '녹색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찰과 불교행사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3월 30일, 4월 1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조계종, 태고종, 서울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조계종은 소속 사찰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10% 절약을 목표로 실천하고 절전 전구(LED) 사용, 에너지 효율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계종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주간에 설치되는 가로 연등과 사찰 내 인등, 4월 26~27일 진행되는 불기 2558년 연등회 연등축제에서 사용되는 행렬등이 LED로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상훈 시민모임 '숲과 에너지' 기획국장에 따르면 백열전구 인등 7,400개를 사용하는 한 사찰의 대웅전을 LED전구로 교체했을 때 연간 절감비용은 390여만 원에 이른다. 5,500개의 백열 인등을 LED 전구로 바꿨을 경우에도 290여 만 원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손상훈 기획국장은 "백열등은 전기 에너지의 5%만 빛을 내고 95%는 열을 내는 저효율등으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사찰 경제 사정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인등이나 연등을 고효율 에너지 전구로 교체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등축제 시 가로변 연등을 밝히는 전구를 10W짜리 백열전구에서 LED전구로 교체하면 시간당 8W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봉축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에 걸릴 가로 연등을 LED 전구로 교체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연등축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웅전 인등을 전부 LED 전구로 교체한 조계사의 경우 이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도 연등축제에 사용하는 소형 행렬등은 LED전구로 대부분 교체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기술이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LED전구는 내구성도 있고 반영구적이라 사용이 용이하다"고 LED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는 대웅전만 LED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상희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은 "소형 행렬등은 대부분 LED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형 장엄등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중 제품은 일선 사찰에서 사용하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장엄등을 구성하는 발전기의 경우 매연이 심하고 소리도 시끄럽다. 이를 배터리로 교체하고 LED 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낭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가로 연등의 LED화 역시 비용과 기술적 문제로 답보상태다.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교 화합 차원에서 사찰 연등 전구와 교회 트리 전구의 공유를 제안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 사실상 불교계 일선 사찰에 보급할 수 있는 LED 전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와 가로 연등의 LED전구 교체를 놓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현재 불교계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당장 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불교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추진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 배현진 기자



"에너지 절약 동참하세요" 조계사(주지 도문)는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지구를 위한 따듯한 포옹'을 주제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주지 도문 스님은 오가는 시민들과의 프리허그를 펼쳤다. 이날 프리허그에는 600명이 동참했으며, 조계사는 동참자에게 에너지 절약용 콘센트를 선물했다. 사진제공=조계사

조계종, '세종시 시대' 불사 본격화

오는 11일 LH공사와 정식 계약… 종교용지 3000평 매입

신도시 포교 활성화 기대
용지 추가 매입도 검토 중

조계종 제34대 집행부가 중점 과제로 '신도시 포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에 조계종이 종교용지 매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오는 4월 11일 LH공사와 종교용지 매입 계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계약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중재 세종시 건설청장이 참석해 계약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조계종이 매입하는 세종시 종교용지의 규모는 9917.3여㎡(3000평)으로 이에 따라 조계종은 사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 포교는 현 집행부의 중점 과제다. 실제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로 변모하고 있는 세종 신도시에 사찰을 건립해 총무원 분소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세종시 총무원 분소 설치는 현 임기 내 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3000여 평 규모의 사찰과 청사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전법도량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사찰 건립을 추진하는 교구본사의 목적 사업 적립금 활용과 각종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종교용지 매입 자금은 사찰 토지 처분금 가운데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단목적사업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2013년말 현재 종단목적사업기금은 이월금을 포함해 43억여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매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 추가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계종은 종교용지의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입한 종교용지로는 전법도량의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세종신도시의 전체 종교용지는 41필지 12만여㎡(3만 6300평)에 이른다. 현재 13필지가 매각된 가운데 종교용지 종교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신교계가 8필지, 가톨릭이 2필지, 불교는 1필지다. 가톨릭계는 교황 방문을 앞두고 추가 종교용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체결식은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87호 INDEX

시방세계 5
민추본 '北 어린이 돕기' 걷기 대회



종합 2·3
조계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포럼
생명평화 1천일 정진 재가자만?
'맑고 향기롭게' 20주년 기념식
헝가리 원광사 대웅전 상량식

신행 6
덕양선원 대비주독송 10년 결사 회향

새연재 - 한암 선사의 편지 16

태고종 제19대 종정 혜초 스님 재추대

4월 1일 열린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한국불교 태고종 제19대 종정에 현 종정인 혜초 스님〈사진〉이 재추대됐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덕화스님)는 4월 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총 22명 중 19명의 원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원로회의를 열고 '종정 추대의 건'을 논의, 혜초 스님를 만장일치 추대했다.

2004년과 2009년에 이어 재추대된 혜초 스님의 임기는 추대일로부터 5년이다.

혜초 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나 19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靑峰)화상을 은사로 득도 출가한 이후 1949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1956년 해인대학(현 경남대학) 종교학과를, 1960년 일본 임제대학(현 화원대학) 선학과를 졸업했다.

불교조계종(현 태고종) 중앙종회 의원, 한국불교 태고종 사회부장 · 포교원장 · 연수원장 · 부원장과 제17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에 추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혜초 스님은 특히 한국불교태고종 제 8세와 제 9세 종정을 역임한 대륜 대종사와 제 13세와 제 16세 종정을 역임한 덕암 대종사의 법맥을 이어받은 선교(禪敎)를 겸비한 수행자로서 태고종도들의 수행의 표상 및 정신적인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訴' 승소

4월 4일 순천지원서 판결… "조계종 재산권 확인"

조계종 선암사(재산관리인 법원)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임형태)는 4월 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조계종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 스님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와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차체험관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에 예산 44억 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 당시 순천시는 태고종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동의만 얻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지허 스님은 연임에 실패했고, 순천시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고 운영권도 접수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자 조계종과 태고종은 순천시로부터 재산인수인계를 받았으나 순천시는 야생차체험관은 시 소유로 등기된 것으로 인계를 거부했다.

결국 조계종 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 토지에 허가없이 태고종 측의 승낙만으로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계종과 순천시는 2년 간 6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태고종의 입장을 대변해 대응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소송 취하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재산 관리인 법원 스님은 "이번 판결은 순천시가 선암사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허가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 사용 승락만으로 차 체험관을 건립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재산권이 조계종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국비까지 들어간 건물로 사실상 철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합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조계종 선암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선암사 문제는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달리 순리적으로 접근해 두 종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한국불교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정신과 현대의 조계종'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



초청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한국불교학회는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공동으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라는 대주제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불교를 지키고, 오늘날의 청정승가인 조계종을 확립하는 정초를 여신 두 선지식의 가르침을 재조명해보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꽃인 조계종의 전통을 올곧게 유지하는 자랑스러운 종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부터 동아시아까지의 대승불교권에서 독신의 선수행 전통을 오롯이 지켜온 것은 한국불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과거 일제에 의해 한국승단의 청정 가풍이 어지럽혀지고, 한국불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신의 수행자상도 심하게 오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석전石顚(1870~1948)스님과 한암漢岩(1876~1951)스님께서는 계율과 교학, 그리고 선수행을 통해서 한국불교의 청정종풍을 바로 세우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석전스님은 1929년 조선불교 선교양종에서 7인의 종정 중 한 분으로 추대되고,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 해방된 이후에는 초대교정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한암스님은 1929년과 1935년, 그리고 1941년과 해방 후인 1948년까지 총 4차례나 종정(교정)으로 추대되셨습니다. 특히 1941년에는 조계종 초대종정이 되시어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불타의 정법 혜명을 올바로 세우신 두 분의 가르침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미래 한국불교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쪼록 두 선지식의 수행과 계율정신에 다시 귀를 기울여 해이된 종풍을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 뜻 깊은 법연에, 학계 제현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김용표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 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 만

일 시: 2014년 4월 18일 (금) 12시~18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주 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
주 최: (사)한국불교학회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 관: (사) 한국불교학회 (문의처/ 02-2260-3835)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진흥원

◈ 12:00-12:30 참가자 등록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개회식 (12:30-13:50)
* 사회: 성륜(선운사 교무)/ 자현(월정사 교무)/ 김영일(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삼귀의/반야심경
개회사/ 김용표(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환영사/ 정 념(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법 만(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치 사/ 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 해(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회주)
범 여(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축 사/ 현 응(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지 원(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희옥(동국대학교 총장)
참가자소개 / 행사진행안내

◈ 제 1 부 주제발표: 14:00-15:40
* 좌장: 권탄준(금강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석전과 한암을 통해 본 불교와 시대정신 / 자 현(월정사 교무국장)
· 근대한국불교에서 한암의 역할과 불교사적 의의 / 조성택(고려대 교수)
· 한암의 선과 계율정신 /이덕진(창원문성대 교수)
· 한국불교와 석전영호의 위상/ 정 도(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 석전의 계학관과 『계학약전』/ 법 상(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 휴 식: 15:40-16:00

◈ 제 2 부 주제발표: 16:00-17:40
* 좌장: 김성철(동국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김광식(동국대 교수)
· 일제강점기 불교와 석전의 교학이념/신규탁(연세대 교수)
· 영호(석전) 정호(한영)와 중앙불교전문학교/ 고영섭(동국대 교수)
· 한암의 공안과 선문답/윤창화(민족사 대표)
· 천태에서 본 한암의 선사상/ 혜명(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종합토론: 17:40-18:10

◈ 2014년도 한국불교학회 임시총회: 18:20-18:50
*사회: 최종석 (금강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성원보고 / 안건토의 / 사홍서원

◈ 만 찬 (19:00-21:00)

종합단신

천태종 새 집행부 부장인사 단행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 총무 월도 스님 등 유임


춘광 스님


월도 스님

천태종 제17대 집행부 부장 인사와 일부 사찰 인사가 31일 단행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3월 31일 오전 총무부장 월도 스님을 비롯해 교무부장 경혜 스님, 재무부장 월중 스님을 유임한데 이어 교육부장에 장호 스님, 사회부장에 설혜 스님, 규정부장에 용문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에는 행주 스님이 임명됐다.

천태종은 또 서울 관문사 주지에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부주지에 월도 스님(총무부장), 울산 정광사 주지에 용문 스님(규정부장), 밀양 삼양사 주지에 행주 스님(감사위원), 금산 삼덕사 주지에 구화 스님을 임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제45차 원로회의 열린다

오는 4월 9일… 신임 원로의원 선출 등 다뤄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회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입적한 무진장 스님의 후임 원로의원 선출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3월20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신임 원로의원에 평택 만기사 주지 원경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경 스님은 1960년 용화사에서 사미계, 196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흥왕사, 청룡사, 신륵사 주지,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승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 만기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티베트 난민 민수 귀화 불허 철회"

조계종 노동위, 4월 3일 비판 성명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가 네팔 국적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 파상(38. 한국이름 민수)의 귀화 요청을 법무부가 불허한 것에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위는 4월 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사유는 '품행 미단정' . 2011년 민수 씨는 만삭의 한국인 아내와 명동 성당 앞에서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 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몰리자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현재 법에는 200만 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됐을 경우 이를 '품행 미단정' 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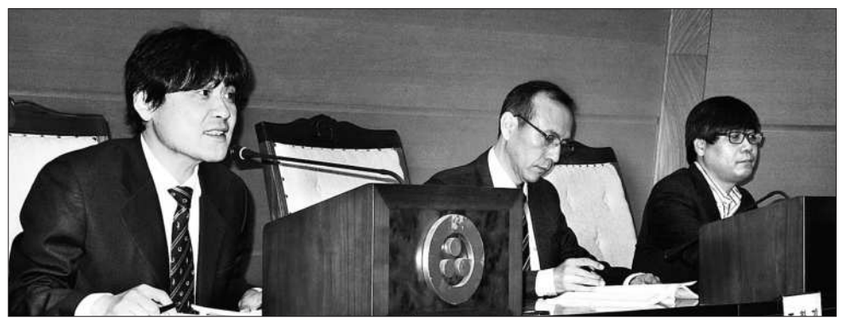
노동위는 "민수 씨는 한국에 들어와 25년을 살면서 한국인 부인과 결혼해 아이를 셋을 낳았다. 힘없는 이주민을 흉악 범죄도 아닌 생존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벌금 500만원 문제로 귀화를 불허하는 옹졸한 처사"라면서 "탄압과 추방을 앞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정착과 융화를 생각하는 발상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200만원 이상을 품행 미단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2012년 '귀화 과정에 차별이 없도록 품행 단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했던 그 조항"이라며 "이주민들에게 관용을 넘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未完 그친 '94 개혁' … 직선제 도입 시급"

고산문화재단, 3일 조계종 개혁 20주년 포럼 개최


고산문화재단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1994년 일어난 조계종 종단 개혁은 현재 종단 전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근간이다. 개혁회의가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워 개혁을 성공했지만, 승풍 실추 사건은 여전하고 총무원장 선거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1994년의 종단 개혁 정신이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94년 개혁정신으로 종단의 현재를 본다' 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요 발제자들은 1994년 종단 개혁의 주요 성과들이 미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청정승가 구현' 부문에 대해 발제한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1994년 조계종 개혁이 출재가가 함께 하는 집단 지성의 출발점이 되고 분규와 이권 다툼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승려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면서 "거의 2년마다 승풍실추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형식상 자정 기능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활동의 99%가 정치이고 거래인 현실에서 정치적 의도와 성격을 갖은 자정 기구는 자정활동의 정치화라는 역기능만 낳았다"며 "종단 정치를 견제하는 비정치적인 자정기능만이 '청정승가 구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부문에 대해 발제한 유응오 삼화도량 사무국장은 △교구종회 설치 △총무원장, 종회의원 등 주요 소임자에 대한 겸직 금지 조항 마련 △직영사찰법 제정과 특별분담금 사찰 지정 등은 개혁회의의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좌절되고 감사처 신설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종헌에 '사찰 재정 공개' 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봤다.

청정승가 구현 · 민주화 등
주요 성과 '절반의 성공'

"대중 소외 현상 심각 수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필요"
발제자들 '한 목소리' 주장

유 국장은 "개혁회의가 야심차게 다운 시대과제인 민주화에 대한 의제들은 절반의 성과마능 거둔채 중단됐다"면서 "그 원인은 이상과 현실이, 승가 전통과 사회 현상이 합치 않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회의 안건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발제자들은 종단의 자정 기능이 정상화되고 민주화의 기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화합승단을 목표로 하는 불교에서 대중소외의 현상이 심해지고 이를 틈타 각종 악습과 승풍문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러한 대중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 대중들의 의사와 청정 교단의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응오 국장은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조사에 따르면 '일정 승랍 이상 직선제' 가 가장 높은 호응을 보였다. 현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종도들은 여전히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에 대해 발제한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역시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을 실현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직선제는 불교의 대중공사와도 부합하며 금권, 파벌 선거 등을 척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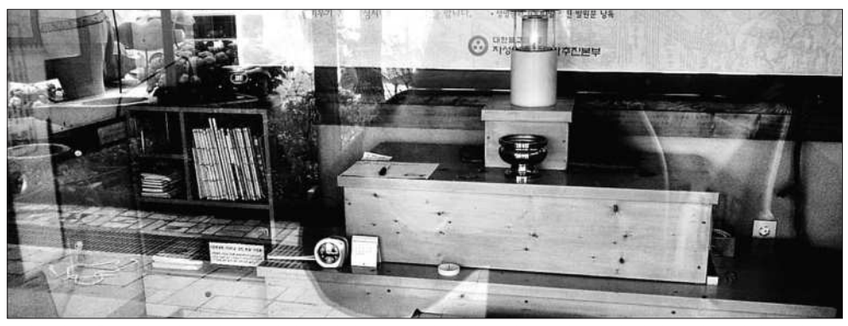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 조환기 前 동명대 교수는 불교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자주화의 현실을 살폈으며, 윤남진 NGO리서치 대표는 역대 총무원장 공과를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재가자만 하나?

3월 정진한 스님 6명에 불과
대부분 국장급, 부실장은 '全無'

삼화도량 "쇄신 재검토" 주장에도
4월 2일 오후 3시 정진단은 비어
결사추진본부 "비웠어도 정진했다"


4월 2일 오후 3시 조계사 일주문 앞의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 내부 모습. 정진 일정이 잡혀 있지만 비어있다. 3월 한달 동안 1000일 정진 동참자를 살핀 결과 대부분 재가자였다. 정진에 동참한 스님은 6명뿐이었으며, 5명이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스님이었다. 부실장 스님들의 동참은 전무했다.

봉축 주간 선포식이 진행된 조계사 일주문 앞 자성과 쇄신결사 1000일 정진단. 정확하게는 4월 2일 오후 3시 10분의 1000일 정진단은 정진이 멈춰있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시간대에는 정진이 잡혀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실제 3월 한달 간 동참자를 살펴보면 1000일 정진 동참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출 · 재가 종무원, 일부 특정 사찰, 포교사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이마저도 대부분 재가자들의 동참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쇄신 주체인 스님들의 동참은 3월 동안 6명뿐이었다. 이들 스님은 총 10시간을 1000일 정진단에서 정진했고, 이중 5명은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스님이었다. 부실장 스님들의 동참은 전혀 없었다.

현재 정진 상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매일 12시간을 1000일간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 라는 홈페이지 설명이 무색하기만 하다. 또한 대중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종무원과 특정 사찰과 단체에게 의존하는 정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이 3월 31일과 4월 3일 각각 발표한 비판 성명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화도량은 성명서를 통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의 주요 불사인 '생명평화 1,000일 릴레이 정진' 도량에는 기도 정진하는 이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면서 "조계종홈페이지에 마련된 1,000 릴레이 정진 신청 현황을 보면, 조계사, 불광사 신도, 포교사단, 종무기관 종무원이 번갈아가며 신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월 한달 동안 정진 현황을 보면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주지 스님이 지키지 않는 절에 신도가 모일 리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종도 앞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결사추진본부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1000일 정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결사추진본부는 4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명했다.

추진본부는 입장문에서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일부 시간에 정진대중이 참여하지 못하고 정진단이 비워진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3개월 동안 정진 대중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진 대중의 동참률을 높이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는 "1000일 정진의 취지에 맞게 사부대중이 자발적이고 광범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22일 회향일까지 홍보와 조직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신성민 기자

봉 행

전통명문 표암(알평) 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재

전통 명문 표암(알평)공 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표암공 문중(경주, 차성, 합천, 평창, 가평, 아산, 재령, 우계, 진주, 원주 이씨) 沙門과 문중 선지식 木巖(向如)堂 體元禪師(고려말 해인사 주지),

惠和宮主 李氏 淨業院 主持(익재공 따님), 退翁堂 性徹禪師(전 조계종 종정), 春城堂 春城禪師(전 망월사 주지 무애대사),

伽山堂 智冠禪師(전 조계종 총무원장) 문도께서는 청풍계맥이 전승되고, 얼이 線連하도록 두루두루 동참하옵길 앙망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00 (음력 3월 중정일)

장 소 : 부산 태종사 (부산 영도구 동삼 2동 산 29-4) ☎ 051) 405-2626 (조실 도성 영공스님)

문 의 : 010-6478-1569(현불)

표암(알평) 승가회장 홍산 현불

맑고 향기로운 무소유 정신 실천 20년

'맑고 향기롭게' 3월 30일 길상사서 기념식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말고 더불어 삽시다."

'우리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 는 법정 스님의 원력을 따르는 시민들의 마음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다.

법정 스님이 우리사회의 변화와 종교화합을 위해 출범시킨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는 3월 30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인 서울 길상사에서는 500여 대중이 모여 작은 기념식을 열고 창립 초기의 취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맑고 향기롭게' 는 1993년 8월 강원도 두메산골 토굴에서 정진하던 법정 스님의 '우리사회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 는 원력에서 비롯됐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라는 아홉 가지 실천덕목을 바탕으로 1994년 구룡사에서 첫 모임이 시작된 이후 '맑고 향기롭게' 는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자발적 모임 하에 진행됐다.

'맑고 향기롭게' 는 출범 이후 연꽃 스티커 나누기, 수련회, 음악회, 우리 꽃 나누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96년 사단법인화 이후 회원들의 자발적 모임은 더욱 확대됐으며 장학사업 및 결식이웃 밑반찬 지원, 복지시설 운영,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기념식에서는 참석 대중들이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을 낭독하고 법정 스님의 생애를 다룬 영상 등을 보며 새로운 운동을 다짐했다. 법정 스님 생애 영상 상영과 함께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제창, 이사장 덕운 스님 인사, 정태환 길상사 총신도회장의 축하인사, 부름의전화 김정희 대장의 기념사를 비롯해 모범회원 표창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자는 맑고 향기롭게의 취지를 반영한 독거노인 자살예방 기금 마련 저금통과 법정 스님 육성 오디오북 '산에는 꽃이 피네 CD' 배포와 나눔기금 마련을 위한 '녹색나눔장터' 등도 진행됐다. 이에 앞서 맑고 향기롭게는 3월 20일 국군문화진흥원에 군부대 배포용 도서 26,000여권도 기증했다.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의 조영순(47)씨는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 회원 활동부터 시작한 것이 20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 있다. '이웃들과의 나눔을 실천하고 자연을 본래모습 그대로 지켜나가겠다' 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사장 덕운 스님은 "20년을 맞아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겠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시민모임으로서 우리 사회에 청정의 메아리를 울려퍼지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맑고향기롭게' 가 3월 30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대중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활동할 것을 서원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가 부처님오신날 개최한 '녹색나눔장터'


기념식에서 무료 배포된 법정 스님 육성법문CD


헝가리 원광사는 3월 29일 현지에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사부대중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숭산 스님 '세계일화' 정신 헝가리에도

헝가리 원광사, 대웅전 상량… 설정 스님 등 150명 참석

동유럽의 한국불교 포교와 세계화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헝가리 원광사가 사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헝가리 원광사는 3월 29일 현지에서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화계사 주지 수암, 수덕사 총무 정범, 수덕사 사회국장 현우, 예산노인복지관장 동준, 수덕사노인요양원 육통, 당진 영탑사 주지 초운, 국제전법단 사무국장 보련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전통 방식의 삼보통청으로 시작된 행사는 참석자들의 석가모니 정근과 경과보고, 축사, 법문,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덕사 · 화계사가 십시일반 모연한 3000만원을 불사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헝가리 카르파티아 산맥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원광사는 숭산 스님의 제자 청안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유럽 최초의 한국사찰 건립을 발원하며 2005년부터 사찰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토지를 매입했다. 2006년에는 매입한 부지에 자리하고 있던 가축용 폐사를 임시법당으로 개조해 불사와 기도, 수행정진을 병행했다. 2010년 4월 선방이 문을 열고 한국 간화선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교양수업 '결혼과 가족' 인기

한국 대학 100대 명강 선정

동국대 교양수업 중 가상커플을 맺고 남녀관계를 이해하는 강좌가 화제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강의 중 '결혼과 가족' 은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이름을 빗댄 대학판 '우리 결혼했어요' 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의는 남녀 파트너 배정으로 시작되며 미팅을 진행하듯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면 각자 원하는 이성을 쪽지에 적어 파트너를 정한다. 원하는 상대가 서로 달라 커플이 되지 못하면 임의로 배정한다. 각 커플은 가상의 연인이지만 수업시간에는 항상 옆 자리에 앉아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 '데이트 미션' 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강의는 교육적인 효과를 인정받아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대학 100대 명강' 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의를 기획한 장재숙 교수는 "최근 늘어나는 연인 · 가족 간 유 · 무형 폭력을 사전에 줄여보고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지킴이 알고 보니 '도굴꾼'

警, 도굴범 · 불법취득자 검거
신라시대 불상 등 문화재 회수

수년간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문화재 보호단체 대표까지 맡았던 이가 10여년 간 문화재 유존지역 토지에 매장돼있던 불상, 도기류 등을 도굴 · 유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지에서 통일신라, 조선시대 등의 문화재를 도굴해 판매한 장 모씨(57)등 3명과 도굴된 문화재임을 알고도 사 들인 개인사찰 주지 스님 권 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도굴됐던 매장 문화재 236점은 회수 조치됐다.

장 씨는 2003년께부터 탐침봉으로 땅속 골동품 매장 여부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틈틈이 도 · 토기류를 도굴했으며, 훔친 문화재는 자신의 개인박물관에 전시했다.

이후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년 지역 개인사찰 주지 권 씨에게 3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가 훔친 토기 중에는 중앙정부 관서명이 기재된 조선시대 초기 '분청 인화 국화문 접시' 가 있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장 씨는 몰래 문화재 도굴을 하면서 2005년 문화재 지킴이 단체를 만들어 문화재청에 보조금 지원단체로 등록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도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1천만원도 챙겼다. 지원받았다.

또 다른 피의자 박 모씨(61)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축일을 하던 중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도굴해 보관하다가 권 씨에게 200만원에 넘기기도 했다.

권 씨가 복원 작업을 문화재 전문 수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3000만원에 맡기면서 좌상에 2차 훼손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좌상이 제대로 복원됐으면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준보물급 문화재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광역 수사대는 "문화재라는 특성상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굴후 해당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0년)이 지난 뒤 유통되고 있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찰에 압수된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 경찰은 통일신라, 조선시대 등의 문화재를 도굴해 판매한 장 모씨(57)등 3명과 도굴된 문화재임을 알고도 사 들인 개인사찰 주지 스님 권 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1일 배우 선우용여 씨에게 승려복지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승보공양운동 적극 독려 나선다

선우용여 씨 홍보대사 위촉… BTN 등과 캠페인

조계종이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승보공양운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종훈)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캠페인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배우 선우용여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승려복지를 위해 승보공양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공양운동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불교신문(사장 성직), BTN불교TV(사장 구본일)과 승보공양 확산을 위한 홍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4월 동안 공동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법사 방필석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 갑오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신생아 작명
개명·아호·상호
역학개인지도

세상 만물이 난조(暖燥) 및 한습(寒濕)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 지듯이 인간도 자연의 조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5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6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견지동)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필석

일 주 문



만불보전 부처님 조성 선서화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 4월 14일 불광불교종합복지관에서 만불보전 부처님 조성을 위한 선서화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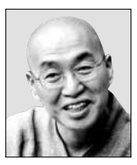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위촉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21일 서울경찰청 서경마루에서 열린 경승 위촉식에서 서울경찰청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수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진화 스님은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제6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4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제6기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제26회 백고좌 대법회 회향식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25일 법왕사에서 前해인사 강주 무관 스님을 증명법사로 제26회 백고좌 대법회 회향식을 연다.



중국 서안외사대학과 MOU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4월 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중국 서안외사대학 황텅 이사장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재임명



서울 은평구 진관사 주지에 계호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4월 2일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지역 포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계호스님은 진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강원도 보광사 주지, 운문승가대학 강사, 전국비구니회 수석 운영위원장, 12~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청규제정위원, 조계종 표준법요집 편찬연구위원, 조계종 환경위원, (사)진관사국행수륙재 보존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위원 대표이사, 서울시 문화재위원원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인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정영훈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장 나명하 △현충사관리소장 최이태

"사찰 방화 대책, '점' 아닌 '면'으로"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사찰 방화시스템 변화 촉구



3월 28일 삼랑성 산불 발생
대중 참여로 1시간만에 진화
"소방로 구축 · 간벌 등 필요해"

"3월 28일 오후 6시 20분 강화 삼랑성 일대에 산불이 났습니다. 발 빠른 대처로 전등사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를 통해 전등사가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전통사찰 방재 대책에 대한 전반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강화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사진〉은 4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은 무엇보다 국가 지정 사적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무신경한 정부와 지자체를 질타하며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진압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화재발생 당시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탓에 전등사와 전등사 보유 문화재들이 모두 전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산불발생과 진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재청이나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삼랑성 화재는 3월 28일 오후 6시 20분경 발생했으나, 삼랑성 주 출입구인 남문이 낮아 대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일몰 이후 발생한 화재다보니 소방 헬리콥터가 1대밖에 동원되지 못해 '제2의 낙산사 화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주변에서 정기훈련을 하고 있던 길상의용소방대의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신고로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범우 스님은 문화재 보존 정책이 단일 문화재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 보유 사찰 방화 시스템도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화재가 큰 불로 번지지 않고 진압된 것은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화마가 삼랑성을 타고 경내로 번질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전등사에는 국가 사적 1점, 보물 5점, 시지정 문화재 22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인천시는 문화재 사찰 전등사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화 대책은 단순히 단일 문화재에 그치지 않고 사찰 전체적인 부분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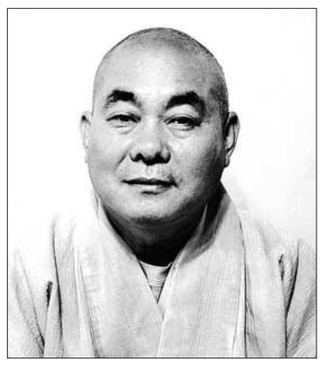
이와 함께 범우 스님은 방화선 구축을 위한 간벌과 대형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 개설 등을 제시했다.

"삼랑성 주변의 우거진 잡목들이 외부 산불과 전등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등사를 둘러싼 삼랑성의 주변 나무들을 간벌해 10m 정도의 방화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등사에 진입하려면 삼랑성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높이가 낮아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삼랑성 남문계단을 정비해 대형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별도의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 종합적인 방화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활불교 실천하는 지혜의 장 되길"

세계황금탑 건립 위원장 덕산 스님



108m 황금탑… 수도권 건립 예정
13일 '가네시와르 스님 초청법회' 도

미얀마 불교계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경기도 용인 보문정사 국제여래선원(덕산 스님)이 가네시와르 스님(열반당 주지) 초청 법회를 시작으로 세계평화 황금탑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국-미얀마 친선 세계 황금탑 건립 위원장 덕산 스님은 4월 2일 간담회를 열고 세계평화 황금탑 건립의 의미와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한국 캐나다 인도 싱가폴 말레시아 등 6개국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캐나다는 완성된 상태이며 한국에서도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황금탑건립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곤의 쉐다곤 탑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좀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미얀마 네피도의 108m 황금탑을 모델로 했습니다."

고문단으로는 미얀마불교협회 의장 바단따 꾸마라 비원따 스님, 쉐뚜원 사찰 주지 바단따 딱디야 스님, 라야따나 사찰 주지 바단따 나라다 비원따 스님,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당 주지 가네시와르 스님이 선임됐다.

현재 황금탑건립위원회는 용인, 이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지를 선정해 황금탑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생활불교가 널리 퍼져 있다보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원에 들러 예불 드리고, 또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예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당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황금탑은 명상관, 갤러리 등을 설립해 템플스테이를 겸하는 등 불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다. 누구나 와서 불교문화를 접하는 지혜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황금탑 건립의 목표이기도 하다.

"생활불교를 주창하는 미얀마 불교는 소액기부 불사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평생탑을 건립하는데 자신의 월급을 기부하는 것을 원으로 삼는 것이 미얀마 불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액기부자가 많고 또 불사도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 불사도 적당한 부지가 선정된다면 탑 건립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덕산 스님은 4월 13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보문정사 국제여래선원에서 '가네시와르 큰스님 초청법회'를 연다. 국제여래선원은 1부에서는 108산사순례단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참석해 '세계 평화의 불' 분등 점안식을 갖고 2부에서는 초청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스님들, 탑골공원 어르신 배식 봉사



동국대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총동림동문회(회장 무문)는 4월 2일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점심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서 명예회장 학명 스님과 사무총장 지담 스님, 총무 지련 스님, 봉사단 20여명은 비빔밥을 250여명의 어르신에게 전했다.

무문 스님은 "총동림회가 뜻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배식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배식 봉사를 계기로 총동림회가 활성화 되고 더 많은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리불교조계종 입실건당 법회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종정 홍산당 현불)은 3월 28일 종단 본산인 천안 광덕사에서 '입실건당 및 전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현불 스님을 대법사로 모시고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화엄 산림 법회와 함께 열린 이날 건당식에는 15명의 스님이 현불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받들어 수행 정진 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단총연합회 · 금산인삼조합 MOU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4월 3일 하림각 연회장에서 실무의장 만주 스님을 대표로 금산인삼약초영농조합(조합장 서인준)과 상호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실무의장 만주 스님, 공동의장 문수 스님, 사무총장 설송 스님, 사서실장 해안 스님과 영농조합 서인준 조합장 등 양측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종단총연합회는 향후 인삼차 문화촉진과 시연회 개최, 인삼제품 공급 등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古佛叢林 白羊寺

鶴峯 知訣 大禪師 方丈 告佛法會

三寶님께 귀의합니다.

甲午年 새봄을 맞이하여 春白羊의 향기를 전해 드리오며,
대덕큰스님의 法體 康寧하심을 늘 기원 드립니다.
금번 白羊寺에서는 宗團 대덕큰스님들과 문도스님들의 推戴에 힘입어,
학봉 지선 대선사를 古佛叢林 方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穀雨날에 즈음하여 四部大衆과 함께 告佛式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마음을 내시어 자리를 함께 빛내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佛紀2558(2014)年 4月 日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白羊寺 住持 眞 愚 合掌

• 일 시 _ 불기2558(2014)년 4월 20일(일) 오후 2시
• 장 소 _ 고불총림백양사 대웅전 마당
• 문 의 _ 백양사 종무소 전화 061)392-7502

※ 오후 1시 30분 부터 식전행사로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 캠페인 도담도담의 시작을 알리는 자비나눔 걷기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1천 여명의 참가자들이 민통선 철책로를 걷고 있는 모습.

통일 향한 희망의 걸음 내딛다

파주 임진각, '도담도담 캠페인' 자비나눔 걷기대회 현장

3월 29일 임진각 철조망 열리다

출입통제 구역임을 나타내는 철망문이 열렸다. 1천 여명의 행렬이 차분히 발을 옮겼다. 초소에 있던 군인들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이들을 배웅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뻗은 철조망 사이로 흙먼지가 일었다. 북한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여유롭게 그 길을 건너갔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와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이 주관한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가 3월 29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렸다. 영양결핍으로 힘들어하는 북한 아이들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도담도담' 캠페인이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도담도담은 어린이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뜻하는 순 우리말. 참가자들은 파주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왕복 약 6km를 걸으며 행사에 동참했다.

북한의 만성 영양결핍 어린이는 10명 중 3명. 어린이 사망률은 남한의 7배에 달한다. 이날 걷기행사에 동참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었어도 내 아이, 네 아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북한 어린이도 우리가 함께 키워가야 할 통일시대의 미래세대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에게는 "남북 어린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까운 시일내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행복과 희망의 걸음을 내딛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재 파주시장도 축사에서 "그동안 파주시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해왔는데 통로를 찾지 못했다"며 "불교계에서 앞장서서 북한 어린이를 돕는 행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파주시에서도 조계종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현(파주 금향초 5년) 학생은 '안녕 친구야'로 시작하는 북녘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서울보다 가까운 곳임에도 갈 수 없는 아쉬움을 전하며 "조금씩 양보해 통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 주위에 울림을 줬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랫소리도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줄지어 민통선 철책로를 따라 통일대교까지 걷기 시작했다.

'남북어린이 함께 키워요'라는 피켓을 든 무리사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발걸음은 제각각이었지만 남북 어린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다. 참가자들 얼굴에는 희망어린 웃음이 묻어났다.

6살, 11살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시환(40)씨는 "불교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큰 아이 추천으로 가족이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아이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뜻깊은 경험으로 남게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머리가 희끗한 본명심(78) 보살은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 "분단 사실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는 그는 "통일이 꼭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진관사에서 온 법해 스님 역시 "걸으며 조금이나마 건강해질 북한 어린이들 생각에 통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다"며 "이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 사람들 마음에도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일대교에 다다르자 갑자기 시야가 넓어졌다. 북한이 금방이라도 보일 듯 참가자들은 "갈 수 없는 땅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잠시 감상에 젖었다. 아이들 손에 들린 바람개비는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돌고 있었다. 자승 스님은 참가자들 손목에 단주를 직접 걸어주며 지나온 걸음과 앞으로의 여정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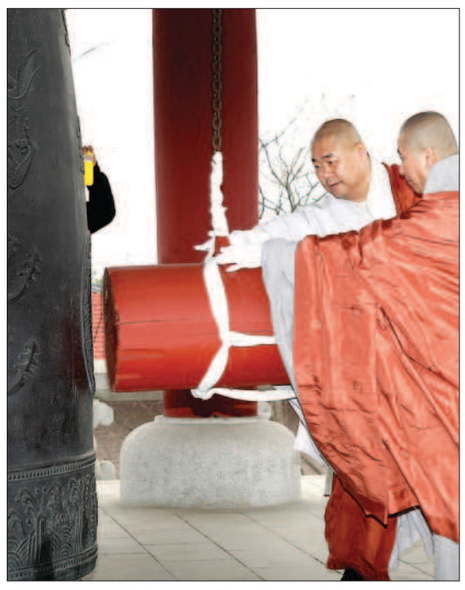
1시간 후 출발지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서로 수고했다며 어깨를 다독였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가자 1천 여명
임진각서 통일대교 6km 걸으며
북 어린이 위한 자비 마음 모아
영양 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첫 걸음

북한 어린이도 우리 아이

중앙승가대 학생회장 덕성 스님은 "의미있는 자리에 학인 스님들 여러 명이 참석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걷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이 함께 어울리는 원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걷기대회를 마치고 도담도담 캠페인에 후원 신청을 한 황민경(47)씨는 "북한 어린이도 우리 자식과 같다는 말을 듣고 크게 공감했다"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평화가 한반도 전체에 퍼지길 기원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자승 스님이 어린이에게 단주를 손목에 걸어주고 있다.



우유와 알약, 주사기를 넣는 모금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모아진 후원금으로 영양식, 의약품 등을 구입,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북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원행(중앙승가대 총장), 보화(사회부장), 송묵(포교부장), 원경(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스님 외에도 중앙승가대, 포교사단,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 등에서 참석했다.

평화의 종 울리며 캠페인 선포식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송묵 스님과 원경 스님이 평화의 종을 울리며 캠페인 선포를 알린 후, △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편지글 낭독 △모금 퍼포먼스 △불광사 합창단 공연이 이어진 후, 2부에서 걷기대회가 진행됐다.

늦은 3월. 파주의 봄은 아직 일렀지만 곳곳에는 연둣빛 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봄을 데리고 북한을 마중나간 사람들의 걸음이 도담도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파주 임진각=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4월 16일 집행부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집행부 차원의 「선거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2시 ~ 6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내 용 :**
[1부]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2부] ① 준직선제 ② 완전 직선제 ③ 선거인단 축소 ④ 선 추천 후 선출
[종합토론 및 결론]
■ **토론자 :** 본사주지 1인, 종책 모임별 각 1인, 비구니 종회의원 1인

■ 사전 의견 접수처 (문서, 이메일) ■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겉봉투에 "총무원장 선거제도 관련 의견" 명시)
• 이메일 : ykkim@buddhism.or.kr / shyoun@buddhism.or.kr

[1안] 4천명 규모에서 준 직선제 시행
· 규모 : 3, 795명
· 내용 : 비구 대덕 이상(3,036명), 비구니는 비구 선거인단의 25% 배정(559명)

[2안] 1만명 규모의 완전 직선제 시행
· 규모 : 10,883명
· 내용 : 비구, 비구니 전체 (비구 5,602명/ 비구니 5,281명)

[3안] 선거인단 축소
· 규모 : 106명
· 내용 : 교구본사 주지 25명 + 종회의원 81명

[4안] 선 추천, 후 선출 제도 시행
· 규모 : 약 1천명
· 내용 : 선 추천 – 추천위원회 구성 / 후 선출 – 교구종회에서 직접선거로 총 1천명 규모의 선거인단 선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하루 49독 이상 행주좌와 정진 10년… “번뇌가 사라졌어요”

일산 덕양선원 대비주수행 10년 결사 회향

한국 불자들이 아침 · 저녁으로 외우는 천수경. 불자들은 천수경 가운데 가장 널리 외워지는 핵심진언인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를 독송해 관세음보살과 삼보에 귀의하면서 탐진치 삼독을 가라앉히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원한다.

일산 덕양선원(원장 법상)은 이러한 대비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신도들은 늘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선정(禪定)을 연마하고 군법당, 교도소, 불우이웃을 찾아 보살행을 실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자성불(自性佛) 수행’ 을 하면서 지혜를 닦는 선교쌍수(禪敎雙修)의 공부를 하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대비주 수행을 시작한 덕양선원은 2007년 첫 번째 10만독 성취 법회를 봉행한 뒤 매년 10여명이 10만독을 해왔다.

하루 3~4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2년 6개월간 108독을 독송해야 10만독 성취가 가능한데, 신도들 가운데는 대비주 500만독을 성취한 불자를 비롯한 대비주 고수들이 수두룩하다. 100만 독을 성취한 수행자만 12명, 10만 독을 성취한 수행자는 무려 76명에 이른다.

이렇게 신도들이 인내하면서 꾸준히 수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덕양선원 선원장 법상 스님 덕분이다. 법상 스님은 직접 목탁을 치며 신도들과 함께 고성으로 대비주를 독송한다. 또한 신도들이 대비주수행을 하다 만나는 경계들을 상담해주고 독려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365일 행주좌와로 끊이지 않는 수행을 이어온 덕양선원은 올해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회향하는 법회를 4월 6일 덕양선원에서 거행했다.

법상 스님은 “하기 싫고, 힘들고, 바쁘고, 아프고, 시간없고…. 대비주 49일 수행을 거듭거듭 이어오는 동안, 목탁의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목탁 채가 수없이 부러지는 등 갖가지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10년이 하루같이 아름다운 날들이었다”고 회향 소감을 말하며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희들도 대비주를 거듭 지송하며 끊임이 없는 가운데 지혜, 자비, 복덕, 법력의 대비주(大悲主)로서 스스로 밝으며 주위를 밝히는 수행자가 되겠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니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향법회에서는 10만독을 성취한 참가자들의 수행 발표시간이 있었다.

김화자(73) 씨는 30대 중반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삼형제를 홀로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다. 그러다 몸에 신을 모시게 됐고, 첫째 · 둘째에게 심한 우울증이 왔다. 두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온갖 방법은 다 써봤지만 집안 형편만 기울어 갔다. 2013년 1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꿈에서 대비주를 외우고 기도하는 꿈을 꿨다. 그 후 보름 뒤 불교TV에서 법상 스님의 ‘대비주 수행’에 관한 법문을 보고 부산에서 일산으로 한 달음에 찾아갔다. 법상 스님은 10만 독을 하라고 권했고 김화자 씨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매일 천 독에서 이천 독으로 점점 늘려갔다. 기도를 시작한지 10개월 쯤 되자 몸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아들들도 함께 대비주 수행을 시작했다. 두 아들의 우울증도 좋아졌고, 김화자 씨는 모시던 신을 정리했다. 김 씨는 “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달라진 나를 보고 주위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 대비주 수행을 삶을 다할 때 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상 스님(사진 오른쪽)은 일산 도심에 덕양선원을 열고, 신묘장구대다라니 49일 수행을 거듭하고 있다. 덕양선원은 매주 금요일 저녁 대비주수행 철야정진을 열고 있다.

2004년부터 매일 대비주 독송
100만독 성취 12명 · 10만독 성취 76명
“수행 후 삶에 긍정적 변화 가져와”
4월 18일 2차 10년 결사 시작

김자령 씨는 “10만독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독송 수가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알게 됐다. 원하는 것을 사고 이루고 했을 때 잠깐 생겼던 환희와 감사의 마음이 차츰 내 일상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라며 “대비주 수행을 만난 것은 앞만 보고 달려온 숨 가쁜 내 인생의 말에서 내려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나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덕양선원 신도들은 인터넷 카페 ‘덕양선원(cafe.daum.net/zeol)’을 통해 매일 자기가 정한 수만큼 대비주 독송을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이날 수기를 발표한 김화자 · 김자령 씨 뿐 아니라 신도들은 대비주수행이 삶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은다.

법상 스님은 “대비주 수행을 하면 방하착(放下着) 공부가 저절로 되고, 깊이 집중해 삼매에 들어가면 안팎이 공한 가운데 신묘한 본래자리가 바로 드러난다”면서, “누구나 대비주 수행을 하면 지혜 · 자비 · 광명의 참소식이 삶에서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덕양선원은 4월 18일 두 번째 10년 결사를 입재하고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법상 스님은 “대비주 수행은 홀로 수행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수행법회에 동참해 더불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문을 들으며 선지식의 점검을 받고 도반들과 함께 수행할 때 닦음거리들이 잘 드러나 해결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031)907-7172

이나은 기자

덕양선원의 대비주 수행법

1. **〈천수경〉을 한 번 독송한다.**
   이 독송으로 기도에 필요한 귀의, 예경, 참회, 찬탄, 발원이 갖추어 진다.
2. **스스로 작성한 소원문을 읽는다.**
3. **대비주를 한자리에서 49독 이상, 자기가 정한 수만큼 독송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행주좌와 중에 대비주를 끊임없이 지송한다.
4. **오늘 할 일이 중요한 수행이다. 오늘 할 일로 수행한다.**
   오늘 할 일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해 나아가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복을 지어간다.

   일로 수행할 때의 방법은,
   첫째, 일을 즐긴다.
   둘째,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세째, 능력을 향상시킨다.
   네째, 일과 관련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어 작복한다.
5.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하고 공양을 올린다.**
   대비주 수행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방송PD들 “사람 냄새 나는 불교, 방송에 반영”

조계종 문화부 제2회 미디어 템플스테이서 호평

“20년 가까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니 한국사회 여러 곳을 다 해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불교와 스님에 대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불교에 대해 긍정적,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 KBS 시사제작국 박진범 PD

조계종이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템플스테이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혜일)는 3월 28~29일 1박 2일 동안 월정사와 상원사 등지에서 ‘제2회 방송 PD초청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미디어 관계자들의 심신수련과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올바른 불교문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발전을 위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중 PD와 공중파 방송PD, 한국PD연합회 추천회원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특히 지난해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닮은 다큐 영화 ‘길 위에서’ 이창재 교수도 참가해 PD들에게 스님들의 수행에 대해 감독으로서의 느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입재식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1박 2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환영사에 이어서 진행된 사찰습의에서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사찰 예절과 예불에 담긴 의미를 배웠다.

또 스님들과의 대화시간에서는 사찰에서의 스님들 생활, 출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몇몇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스님을 찾아 상담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혜일)는 3월 28~29일 1박 2일 동안 월정사와 상원사 등지에서 ‘제2회 방송PD초청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은 ‘불교는 행복하기 위한 종교’라며 재미있게 해설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PD연합회 김광선 씨는 “진작 불교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PD연합회에서 추천할 만 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위기상담교육

3월 29일 국제회의장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 자살위기상담교육(불교상담심리사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 · 2부로 나누어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관리 오리엔테이션과 성승연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자살위기상담교육’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불교상담심리사와 외부참가자 등 70여 명이 참가했으며, 1부에서는 불교상담심리사에 대한 자격유지관리요건과 불교상담심리사1급 취득에 필요한 조건과 방법, 그리고 현재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전문상담팀 사업(어르신 상담팀, 군 전문상담팀, 교정교화봉사팀, 노동자심리상담센터 ‘도반’, 여성가족부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 소개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3월 29일 ‘2014 자살위기상담교육’을 개최했다.

2부에서는 성승연 교수가 ‘자살의 의미와 개입’을 주제로 자살에 대한 정의와 자살위험자의 변별, 자살위험 평가 방법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성 교수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명과 윤리에 대한 교육 △종교계 혹은 불교계의 전문적 상담역할 재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선 계 문

종조 원효보살의 이념을 받들어 근본 진리를 체득하고 대승불교 생활불교를 구현함으로 사회교화와 불국정토를 건설함에 이바지 하고자 창종된 대한불교원효종은 종지를 받들지 못하고 일부 종도들이 도당을 지어 계파를 만들어 종권 싸움을 하여 종단이 와해되던 중 모든 계파가 참여한 법정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하여 현 체계로 대한불교원효종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종단의 종법은 멀리하고 속세의 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법정다툼까지 하는 등 불교계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바, 본종에서는 이제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원효보살의 화쟁정신, 종지를 받들어 원효종 각 계파의 종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고견을 나누고 고견수렴하여 종단을 재정비하고, 하나된 대한불교원효종을 이끌어 갈까 합니다.
이 선계문을 보신 모든 종도님들께서는 선계문을 보지 못한 주변의 원효종 종도스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고견 나누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 시 :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052-262-6857)

대한불교원효종 대표자 임시종정 김윤철 향운

(추) 원효보살 열반 1328주기 추모대재 (모)

■ **일 시 : 2014년 4월 24일 (음 3월 25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내 원효보살 성상 앞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 총무부원장 혜담
자 문 : 원로위원 진덕큰스님, 태운큰스님, 혜담큰스님, 법성큰스님, 도일큰스님, 금봉큰스님
봉행위원 : 종회부의장 운학, 진혁 법규위원장 지호 법규위원 상경, 진산, 운영
중앙종회의원 상기, 지상, 상도 비구니회장 명관 비구니부회장 자성, 상진, 운영, 인명
서울종무원장 진산 부산종무원장 상도 충남대전종무원장 일륜 울산종무원장 혜공
강원종무원장 능인 충북종무원장 석암 전북종무원장 경오 전남종무원장 마명
경남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법은 총무부장 상오 규정부장 상준
사회부장 상천 재무부장 상화 교육부장 상일 총무국장 선법

진행위원회
진행위원장 : 신도회장 이웅균
진행위원 : 신도부회장 김용태, 조희석

행사에 관한 문의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02)735-0501 또는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052)262-6857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원로원장 창해 총무원장 향운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교계 수련관 상담 인기

청소년 중 절반이 삶보다 죽음이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지난 1월 전국 14~19세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응답자의 51.6%가 '살아 있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소년의 29.1%는 '최근 한 달 동안 심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22%의 학생들이 심한 두려움과 신경과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64%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20.7%), '성적에 대한 부담'(20.5%), '외모'(17.3%), '부모님과의 갈등'(1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삶의 회의에 대해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1.9%에 불과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국건강증진재단측에서는 지난 3월 22일 '청소년 마음성장 프로젝트, 고(Go)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건강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함토크콘서트는 정신과 전문가들과 연예인들이 건강멘토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교육청 또한 정신건강의학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정신건강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교육을 받은 또래상담가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상담가로부터 조언받는다.

목동 · 역삼 수련관 상담프로 개설

목동… 전문 심리상담가 4명 상주

역삼… 유사 경험 친구들이 상담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 진행

불교계 수련관에서도 고민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 서울시내 26개 청소년수련관 가운데 불교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소년수련관은 3곳. 목동 · 역삼 · 구로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담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짐을 덜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상담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일부 복지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상담심리사가 상담을 실시한다.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의 경우 4명의 심리사들이 상주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조언을 구하는 분야는 진로, 가족갈등 문제가 대다수다. 1달에 30명 가량이 상담을 신청해온다.

개인상담외에도 직접 학교로 찾아가 심리검사,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성폭력방지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고민 공감…또래상담가 양성도

상담의 기본 원칙은 공감. 또래 친구가 상담가가 되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가치관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신의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또래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의 경우 또래상담가 양성과정이 10회기로 짜여져있다. 상담 기본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준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전문상담가들에게 조언을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심리에 관심있어 하는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래상담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11명의 학생 중에는 학교폭력을 실제 경험하고 이를 나누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김태연 상담사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많은데도 오히려 멘티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과 과외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거부감 등이 그 원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인식개선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쇼트트랙 세계 신기록 보유 노진규 선수

생명나눔 4월 환자 선정



지난해 ISU 대회 출전 당시(사진 왼쪽)와 환자복을 입은 모습의 노진규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4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노진규(21)씨를 선정했다. 1500m 쇼트트랙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그는 지난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도 있었다. 올림픽 출전을 목전에 두고 알게 된 골육종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2011년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 ISU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종합우승 등을 거머쥔 그는 촉망받던 스케이팅 선수였다.

"처음엔 자란 혹을 제거해야 하는 시술로 알았어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던 그는 일용직을 하는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훈련에 몰두해왔다. 지독하게 노력한 결과, 고등학교 때는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1천만원. 향후 항암약물 및 재활비용으로 2천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빠듯한 가정형편상 치료비 마련은 그에게 요원한 일이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현실에 대한 원망으로 심한 좌절을 느꼈다는 노진규씨. 어릴때부터 함께 스케이트를 배웠던 누나는 쇼트트랙 선수가 되어 그에게 꿈을 놓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는 누나를 보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싸워 이기겠다는 투지를 가다듬는다. 후원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의지나눔 시즌 7, 더 알차졌다

참여범위 학부모로 확대, 인문학 강좌도 개설

재능나눔의 시초.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군과의 만남을 통해 꿈을 찾도록 지원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7기가 시작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지난 3월 29일 동국대에서 소외계층 중학생 100명과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지나눔 입학식을 개최했다.

7회를 맞으면서 의지나눔에도 변화가 생겼다. 청소년들만 참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직업군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것이다. 문화해설자와 역사학 교수와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도 개설됐다. 학생들은 전통문화재 탐방 등을 통해 역사의식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예정이다.



3월 29일 진행된 의지나눔 7기 입학식.

학생들은 1년간 외교관, 로봇공학연구진, PD, 아쿠아리스트, 호텔리어, 바리스타 등과 만나며 직업체험활동을 할 계획이다. 배현진기자

동행, 필리핀 태풍 피해 2차 지원

아라우 부대-파윙초교와 합의각서 체결



아름다운동행은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 2차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이 지난해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2차 지원을 펼친다. 이번 지원은 1차 긴급구호 이후 현지 상황과 지역 조사를 통해 5개월 만에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육시설 복구 사업에 전면 지원한다.

동행은 3월 28일 필리핀 팔로시에 위치한 파윙초등학교에서 대한민국 합동지원단 아라우부대(부대장 이철원), 파윙초등학교(교장 로레타 글라리지)와 태풍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9곳을 복구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2차 지원은 태풍 피해 구호 성금 5억 원 중 1차 구호 이후 나머지 2억 6천여 만원이 전부 지원되며 타클로반주의 지역 초등학교 9곳의 시설 복구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파윙초등학교 복구가 시작되며 나머지 8곳의 학교 재건작업은 9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로레타 글라리지아 파윙초등학교장은 "태풍발생 이후 지난 4개월간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태풍으로 부모님과 집을 잃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임시학교로 전학가는 학생들도 많다"며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드린다. 하루빨리 학교가 복구돼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원 아라우부대장은 "합의각서 체결은 아름다운동행과 아라우부대, 학교의 역할분담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필리핀 공병과 아라우부대가 협력해 학교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월드, 금선사와 라오스 도서관 건립

3월 26일 라오스 단체에 2천만원 기금 및 도서 전달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열린 전달식. 가운데가 법안 스님이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3월 26일 조계종 금선사(주지 법안)와 함께 라오스 불교 지역개발단체 BDP(Buddhism for Development Project)에 총 2천만원 상당의 도서관 건립비와 도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서 지원된 도서관 건립기금은 캄무완 주 붕싼마을 도서관 건립에 사용되며, 1,800여권의 기증 도서는 라오스 전국 18 여개 사찰에 지원될 예정이다.

붕싼마을 도서관의 경우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건립 기금을 모았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주민들은 지원금으로 자재를 직접 구입해 올 상반기 중으로 도서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증도서를 사원에 기증하는 이유는 라오스 사원이 종교기관을 뛰어넘어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로터스월드 측은 "라오스에서의 도서지원은 빈곤가정이나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일반학생까지 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원에 도서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마을주민 모두가 쉽게 책을 읽으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금선사 신도들은 맹아학교 아동들의 음악수업에 필요한 악기구입비와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의류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금선사 주지 법안스님과 신도들, 라오스 현지 단체 BDP 대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이주민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수강생 모집

한국다문화센터, 4월 25일까지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관광산업 발전 및 이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주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센터측은 이를 통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을 구사하는 이주민을 관광통역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관광국사,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포함한다. 관광지를 방문, 모의시험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24주간(주 6시간 수업) 진행된다. 해당언어권의 이민자 및 유학생(취업가능자)이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실습비 포함 30만원이다. 신청 서류 접수는 4월 25일까지다. 수강생들에게는 관광통역안내사 교재(총 4권)와 기념품(에코백)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다문화센터 홈페이지나 02-737-0467로 문의하면 된다. 배현진기자

동화사 국비횡령 보도는 허위로 밝혀졌고, 괴문서 내용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권력 동원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일부 언론의 국비횡령 의혹 보도는 명백한 악의적 허위보도임이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화사 국제관광선원 국비 횡령' 의혹을 보도했던 〈헤럴드경제〉신문은 3월 27일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11일 "동화사가 경내에 조성한 국제관광선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비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고 허위보도 하였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국제관광선원의 공사비 단가는 문화재청에서 제작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및 실무요약, 개정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2010년 건설품셈, EMS 통합내역 관리 시스템에 의거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헤럴드경제〉허위보도로 비롯된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는 팔공총림의 화합을 깨뜨리고, 주지스님을 음해하려는 배후세력의 치밀한 작업에 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주지스님을 음해하는 괴문서를 유포한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국 선원과 언론사 등에 주지스님을 음해하는 괴문서가 우송됐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의 악의적 조작이었습니다.
동화사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범인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하고 있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범인이 주지스님과 일면식도 없다는 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전국에 유인물을 뿌려 주지스님을 음해했겠습니까? 이는 배후음모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악의적 음해를 사주한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주성 수호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래 팔공총림의 설치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 교계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역대 주지선거의 폐해를 불식시킴으로써 교구의 원융화합을 실현하려는 염원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지지명 과정에서 교구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원융화합은 외면한 채 거리 경찰 3개중대, 사복경찰과 사설경호원까지 동원된 가운데 공권력의 비호 아래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림의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한 공권력 동원의 주역이 종정예경실이라는 점이 더욱 총림 대중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소위 '복면괴한사건'으로 명명되는 공권력을 동원해 자주성을 훼손한 행위로 인해 방장스님의 권위와 명예는 크게 손상을 입었고, 훼불의 시대에도 간직해 왔던 출가자의 자존은 침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팔공총림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도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주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팔공총림 설립 의도인 원융화합과는 달리 교구 구성원간 반목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그 폐단이 총림 설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으므로 **팔공총림의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 구성원 모두는 불퇴전의 각오로 교구가 정상화되고,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자님과 종도여러분에게 이번 사태로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음을 참회하며, 변함없는 애정으로 끊임없이 팔공총림의 정상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4일

팔공총림 자주성수호 비상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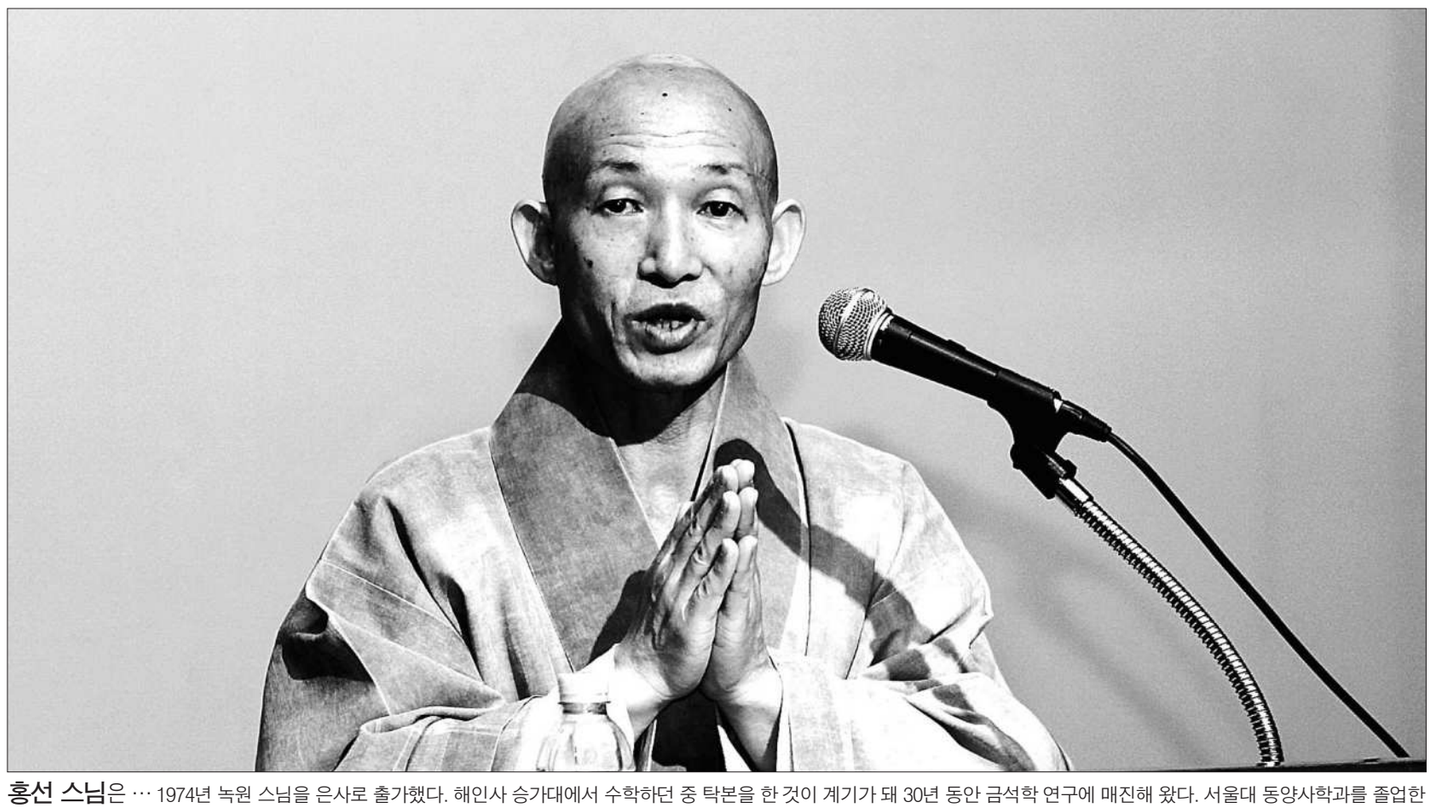
“국민인식 개선 없인 숭례문 사태 재발”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강좌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 문화재위원)

숭례문 부실 보수 사태 이후 문화재 보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눈길을 끈다. 불교계 문화재전문가로 꼽히는 흥선 스님은 4월 2일 불교중앙박물관이 개최한 불교문화강좌에서 ‘숭례문 등 문화재 보존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불교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을 여러 차례 지낸 대표적인 불교계 문화재 전문가다. 이날 스님은 특히 최근 논란이 인 석굴암과 팔만대장경 긴급안전점검단에 참여해 살펴본 내용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민, 그리고 불자들이 문화재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홍선 스님은 … 1974년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승가대에서 수학하던 중 탁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30년 동안 금석학 연구에 매진해 왔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흥선 스님은 1999년 직지사 성보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고승진영전’을 비롯해 한국 범종의 도상과 글씨를 탁본한 ‘한국 범종 탁본전-하늘꽃으로 피어난 깨달음의 소리전’ 등을 열어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교중앙박물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위원으로 있다.

최근 숭례문 부실 보수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숭례문은 복원 5개월 만에 단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단 단청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통기법이 실전(失傳)됐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서둘렀던 데에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는 한국에서는 전통방식으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ㆍ광화문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숭례문은 전통기법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청장, 대목장, 석장 등이 동원돼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런 원칙을 오늘날 100% 지킬 수 있을까요. 모두 지키기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기술 기반 전무한 상황

도구를 예로 들어봅시다. 먼저 벌목만 하더라도 전기톱을 사용합니다. 벌목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요즘에는 작업효율과 함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전기톱을 사용합니다. 본격적인 복구에 앞서 도끼로 일일이 벌목을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수급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애써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마차를 이용해서, 하천에서는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해 왔습니다. 지금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운반한다면 언제 복구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방식으로 운반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인가하면서 볼 것입니다.

작업 방식이 시대별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대패의 경우 도구부터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가 다릅니다. 전통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시점에 대한 의견이 공유가 돼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점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많은 각계의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복구에서는 이런 과정이 축약되고 성급하게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재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기술로 복구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통기술에 대한 기반이 전무합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부분인 ‘아교’를 예를 들어봅시다. ‘아교’는 기술자가 수십 년을 써보지 않으면 각 상황에 맞는 배합 비율을 비롯해 가공법 등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있는 직지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웅전의 지장시왕도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 불화를 수리하는데 있어 바탕인 비단을 복구할 때 똑같은 비단 조직을 만들고 풍화과정까지 주변과 흡사하게 하여 붙입니다.

그렇게 한 작은 불화 복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전통안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전통안료는 몇몇을 빼고 전부 수입했습니다. 안료를 가져온 중국도 실크로드를 거쳐 중앙아시아의 안료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료를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전통기술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전해 받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손으로 실습하는 구전심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묘한 배합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길러내는 노력이 아주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아교’를 쓰니, 의당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통기술의 맥, 특히 기초기반의 맥이 끊겼다. 이번 숭례문 사태를 계기로 전통기술을 살리고, 미숙하나마 차근차근 기초기술부터 다져나가겠다. 미숙하지만 긴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조급증에서 인지 ‘최고의 장인을 동원해 최고의 전통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한 달 만에 부실공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멀쩡한 부분도 안 좋게 보일 수밖에요. 나무기둥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나무는 5년 정도 건조시키면 갈라집니다. 다만 겉에서만 갈라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노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몰이로 문화재 전반을 호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적도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야 언제든 환영하지만 사실만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겨누는 칼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이번에 문제가 된 자격증 대여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문화재 보수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사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법 상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4명 이상 등록해야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발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현재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위임을 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나기 전 숭례문만 하더라도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지요. 지자체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 업체에 사업을 주려고 합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 은퇴한 전직 문화재 관련자들과 함께 각 지역에 업체를 만듭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자본이지요. 예를 들어 경북도에서 문화재 사업을 발주하면 경북 지역에 등록된 업체가 응찰하는 것입니다.

자본 흐름을 보면 업체는 많지만 메이저는 몇 군데입니다. 여기에 군소업체가 껴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문화재 보수는 수익 사업 아니다”
숭례문 사태는 구조개선의 기회
과도한 우려도 도움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전국의 각 사업을 낙찰 받습니다. 낙찰 받은 이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두단계, 세단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수리 기술자들이 필요하니 자격증을 대여합니다.

그렇다면 실재 기술을 가진 이들이 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기술자 자격시험이 가방 끈이 긴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자격증 시험이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 수십 년 도제방식으로 현장에서 기술을 익힌 이들보다 대학원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더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기 시험을 혹독하게 보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실기시험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실제 기술을 가진 이들이 기능자 자격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기능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 현장 능력이 있느냐 입니다.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수를 진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오래됐습니다. 대여를 안 할 수 없고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민인식부터 바꿔야

문제는 바로 국민인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문화재를 관리하는 예산이 5~6000억 원 가량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쓰러져 가는 대기업들에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하여 다 회수하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부은 돈이 60조원입니다. 1년에 문화재청에서 쓰는 예산의 약 100배에 달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예로 들어봅시다. 대장경 경판을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한번 따져 봅시다. 경판 1장이 매매가 된다면 얼마에 될까요. 최소를 잡아도 하나에 1억 원은 될 것입니다. 8만 경판이니 8조원이 넘습니다. 8조원 규모의 기업이 휘청하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더 큰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투입되는 예산에는 인색합니다. 진정 우리 문화재가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면 국민 모두의 힘으로 관리하고 해야 합니다.

올해 불교중앙박물관은 국가와 함께 전국의 금석문을 총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 예산이 20년 동안 총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정된 예산은 얼마일까요.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1년에 청계천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80억 원이 들어갑니다. 서울 중심의 하천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못한 것이 바로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 대한 과한 우려도 없어야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바람직하지만, 과한 우려도 없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문화재들 대부분은 그 상태로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문화재를 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석굴암과 대장경 훼손에 대한 것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저를 비롯한 전문가 10명이 석굴암을 찾았습니다. 석굴암 균열은 10년 내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것입니다. 새롭게 균열이 생겼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석굴암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시멘트로 돔을 씌웠습니다. 이후 돔 위에 돔을 덧 씌웠습니다. 50년 정도 흐른 모습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입니다. 확실히 지금보다 좋은 환경이 되겠다고 확신이 들면 이미 손을 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급한 대로 수리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숭례문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하며,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초기술부터 차근차근 닦아 나가는 지혜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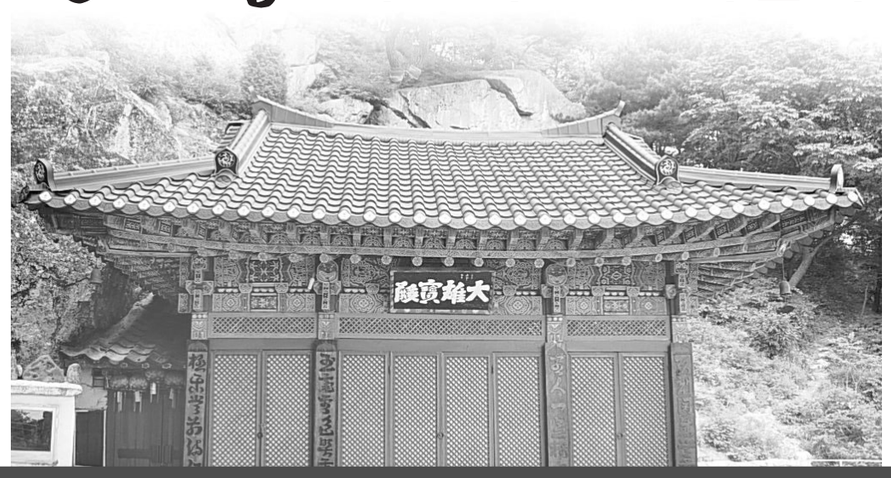
가격 : 215,000원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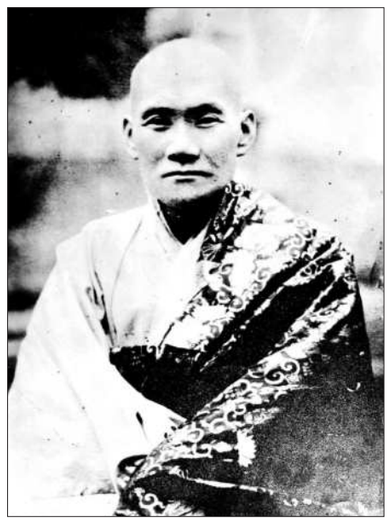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석전과 한암 스님은 한국불교 새 좌표"

한국불교학회, 4월 18일 춘계학술세미나

'석전과 한암, 시대정신을 말하다'
월정사 · 선운사와 공동 개최
계율관 · 시대의식으로 총 2부 진행
학자 10명 발표, "불교 나갈길 모색"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미당 서정주를 비롯한 석학들을 배출한 석전 스님(사진 왼쪽)과 오대산 월정사에서 선풍을 높인 한암 스님(사진 오른쪽)

근대 한국불교의 최고 석학인 석전(石顚, 1870~1948) 스님과 일제강점기 윤리적인 바탕 위에서 선수행으로 일생을 산 한암(漢岩1876~1951) 스님의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 를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석전 스님과 한암 스님은 계율과 교학, 선수행을 통해 근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다진 선지식이다.

석전 스님은 1929년 조선불교 선교양종에서 종정으로 추대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1945년 해방 이후 초대 교정에 오르는 당대 불교계 대표 인사였다. 석전 스님은 〈계율약전〉이라는 교재를 편찬해 승려교육을 통해 청정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한암 스님은 당시 최고 선사로, 1925년 강남 봉은사 조실 자리를 '내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 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 며 거절하기도 했다. 평창 오대산에서 주석하며 계율정신을 강조해 27년간 선수행에 매진했다. 1929년 석전 스님과 함께 종정에 추대되고 1935년 선학원에 의해 재차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1948년 조선불교조계종 성립 후 3대 종정, 해방후인 1948년에는 조계종 초대 교정으로 추대됐다.

평창 월정사와 고창 선운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세미나는 총 3부로 1 · 2부 발표와 3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 스님의 '석전과 한암을 통해 본 불교와 시대정신'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근대 한국불교에서 한암의 역할과 불교사적 의의' △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의 '한암의 선과 계율정신' △교육원 교육부장 정도 스님의 '한국불교와 석전영호의 위상'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의 '석전의 계율관과 〈계율약전〉' 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일제강점기 불교와 석전의 교학이념'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영호(석전) 전호(한영)와 중앙불교전문학교'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한암의 공안과 선문답'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혜명 스님의 '한암의 선사상과 천태지관' 등이 발표된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국불교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정성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스님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한 두 스님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한암 스님의 경우 탄허 스님을 석전 스님 문하에서 배우게 하려 했을 정도로 선과 교학의 거봉인 서로를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두 스님은 윤리가 강조되는 시대에 있어 종단을 비구승단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며 인문학 저변에 불교의 영향을 높였다" 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표 학회장은 "6살 터울인 이 분들은 모두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종정과 교정을 각각 4차례와 2차례를 역임하신 분들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석을 세우신 시대정신이었다"며 "오늘날 이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을 해보는 것은, 새 시대의 한국불교를 위한 당연한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표 학회장은 "한암 스님과 석전 스님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국불교에 요청되는 현대의 요구와 불교적인 대응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는 "스님의 탄신 94주년을 맞아 첫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며 "내년에는 스님과 인연이 있는 박성배 교수 등이 참여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다. 1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행자의 사표, 혜암 스님 첫 조명

혜암선사문화진흥회, 4월 16일 동국대서 첫 학술대회

'공부하다 죽어라' 정진 강조
청정 계행 · 두타행 솔선수범
수행법 · 선풍 · 리더십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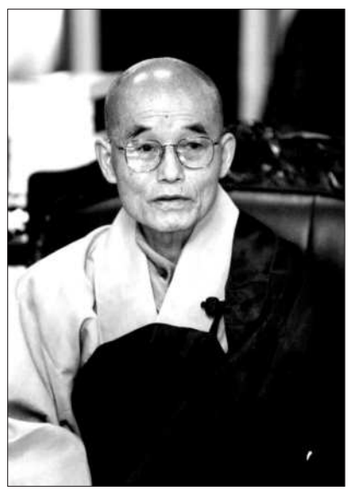
50년 동안의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일일일식 수행을 실천하며 후학들에게 '공부하다 죽어라' 는 경책을 아끼지 않았던 조계종 前종정 혜암 스님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린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회장 성법)는 4월 1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혜암선사의 생애와 사상' 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혜암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27세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8세이던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우봉, 자운, 보문, 도우, 법전,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 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다. 이후 오대산 서대, 동화사 금당선원, 통도사 극락암선원, 천축사 무문관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철저한 두타행으로 수행정진한 스님은 1993년 해인총림 6대 방장에 추대됐으며 1999년 4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 종단 안정에 기여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여연 스님이 기조발제로 '혜암 선사의 생애와 사상' 을 발표하며 동국대 교수 종호 스님이 '혜암 선사의 선사상과 수행방법' 을 통해 스님의 선풍을 조명한다. 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불교리더십 형성과 하화중생' 을 통해 혜암 스님이 보여준 리더쉽과 현대사회와의 접합점을 모색한다.


조계종 前종정 혜암 스님

혜암문도회를 대표해 원각 스님(원당암 감원,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은 "혜암 스님은 오는 대중을 거절치 않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 노력했다. 후학에게 항상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꾸짖음 마저도 아끼지 않으셨다"며 "올곧았던 스님의 모습을 통해 선의 본정신을 살려 한국불교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한발짝 다가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포교 · 교육 · 승가복지 · 사회복지 · 장학 · 문화 · 다문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암 스님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선양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됐다.

노덕현 기자

일본 최고 불교학자, 기무라 교수 특강

동국대에서 4월 10일 '불교학이 나아갈 길' 주제로



현존하는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가되는 기무라 기요타카 도쿄대 명예교수〈사진〉(츠루미대학 총장)이 4월 10일 '불교학이 나아갈 길' 을 주제로 동국대에서 강연한다.

이번 특강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과 불교대학 초청으로 진행된다. 기무라 교수는 화엄학자로서 학문의 길과 일본 조동종의 승려로서 성직자의 길이라는 두 길을 걸어온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가받는다. 1940년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나 도쿄교육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75년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오랜기간 도쿄대 교수로 봉직했다. 화엄학 연구에서는 1977년 〈초기 중국불교사상사의 연구〉를 간행하여 화엄경의 한역, 화엄경류의 이역 및 위경, 지론, 섭론, 삼론 등의 화엄경의 연구사를 배경으로 하는 지엄스님의 화엄학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1992년에는 중국초기부터 요(遼)와 명(明)에 이르는 〈중국화엄사상사〉를 저술하였으며, 최근에는 화엄경별행본들에 대한 주석 작업을 간행하여 화엄학 연구에 완성도를 더하였다. 한편, 지엄스님을 연구하면서 지엄의 제자 의상스님에게 자연히 관심을 가졌고, 특히 고 김지견 교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상뿐아니라, 원효, 균여 등의 한국불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남겼다.

기무라 교수는 미리 보낸 발제문을 통해 "불교는 석존의 가르침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가르침에 기반한 불교문화의 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무라 교수는 또, 현대적 관점에서 세계에 퍼진 여러 국가의 불교의 지역적 정의를 어떻게 획정할 지와 문헌학적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硏, '그림과 불교미학' 학술대회

동방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동방대학원대학 M401 세미나실에서 '우리 그림과 불교 미학의 만남' 이란 주제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홍윤식 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가 '한국 불교미술의 특징' 이란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지미령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의 '고려 수월관음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조정육 미술평론가의 '단원 김홍도의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추사의 세한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진철문 동국대 강의교수의 '장욱진의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 등이 발표된다. (02)3668-9846

노덕현 기자

한국전통지화보존회 美서 '지화 워크숍'

한국전통지화보존회(회장 석용, 송덕사 주지)는 한미문화예술재단과 함께 4월 22~26일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토마스스톤 고등학교 등지에서 '한국문화교실-다리' 에서 전통지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미문화예술재단의 제9회 아태문화 페스티벌 주요 행사로 진행되는 전통지화 워크숍에서 석용 스님은 전통지화 및 연꽃등 만들기를 비롯해, 법고무, 나비춤, 바라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031)666-3180

노덕현 기자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 리더스 아카데미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은 부여군과 함께 4월 9일부터 12월까지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제3기 전통문화 리더스 아카데미' 를 개설한다. 이 아카데미는 △사비성 천도와 사비도성 △백제 성곽의 이해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일본의 고도 육성 사례 △전통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고도 부여의 발전방안과 한국의 명승문화재 이해 등, 문화재의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수강생의 눈높이와 고도 부여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강의도 진행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2년부터 '전통문화 리더스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호남불교계, 이주노동자와 '동행' 나서

'꿈을이루는 사람들'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체험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기업 연계 쉼터 개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체험(사진 왼쪽)과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기업연계 쉼터 개선 모습

"우리 쉼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팔사람을 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호남지역 불자들의 이주민 끌어안기가 화제다. 불교계 이주민센터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3월 30일 금호타이어 희망나눔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네팔 공동체쉼터 보수를 진행했다.

네팔 공동체쉼터는 직장을 이직하거나 마땅히 쉴 곳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쉼터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꽃이어라' 음악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곳이다. 네팔 공동체쉼터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주변 주택을 임대해 네팔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광주의 대표적 공단인 하남공단에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복지시설에 광주외국인복지센터가 유일하다. 쉼터에는 매일 3~4명의 근로자들이 주거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네팔 근로자 20~30여 명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이주성 센터장은 "지역 사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기업체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금호타이어에 재직 중인 불자 김인수 거사의 도움을 받아 금호타이어 희망나눔봉사단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쉼터 보수는 32번 째로 진행되는 행사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비놋(네팔) 씨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네팔사람들을 위해 많이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특히 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네팔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하면서 한국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4월 28일 광산구 옥동경기장에서 이주여성과 노동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민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3월 30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문화체험 행사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5개국 이주노동자 100여명이 동참해 전북 남원 춘향테마파크 일대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꿈을이루는사람들' 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공우주천문대를 방문해 별자리 관찰과 항공체험을 하고 축제의 장에서는 신 춘향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완니 씨는 "한국문화체험은 몇 번 가봤지만 이번 체험은 문화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관람이라 신선하고, 좀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흥사 4월부터 봉축 준비, 속초 일대 장엄



지난해 열린 동자승들의 봉축기간 지역탐방모습.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강원도 속초에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4월11일 오후 6시분 舊속초소방서 앞 전광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17일 동자승 수계식, 4월 19일 연등문화축제 등을 개최한다.

동자승 수계식에는 불교유치원 어린이 7명이 삭발할 예정으로 이들은 부처님오신날까지 지역기관과 복지시설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연등문화축제에는 신흥사 합창단, 난타 등의 공연이 진행되며 엑스포광장에서 동명항광장까지 1시간 동안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오후 8시 30분에는 동명항에서 불꽃축제가 펼쳐진다. 5월 6일 오전 10시에는 신흥사 극락보전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린다.

신흥사는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도 연다. 4월 26일 오전 10시 속초경찰서 법당에서 속초 관내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기도법회가 열리며 5월 3일 오전 9시부터는 노학동 종합운동장 앞에서 운전자에게 차량용 연꽃걸이 2000개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총 64경기가 펼쳐지는 '제4회 설악산 신흥사배 축구대회'를 비롯해 '전통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어울림마당도 함께 진행된다.

신흥사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날을 축하하고 속초시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봉축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지역경로당과 업무협약



선운사 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이 지역의 경로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로당의 활성화에 나섰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4월 2일 고창읍 상원아파트경로당 외 지역 11개소 경로당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신규사업의 공동지원과 상호지원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관과 경로당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생활 실천과 취미 · 여가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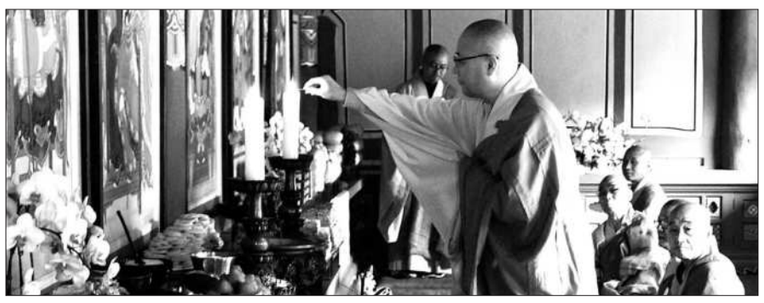
구체적인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단전호흡, 종이접기, 레크댄스 등이 진행되고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노래교실, 공연관람이 진행된다.

또 자원개발 및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연계, 후원물품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원 스님은 "지역 경로당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복지관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석전 스님 66주기 추모재



일제시대 조선불교 교정을 역임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한 석전 스님의 66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봉행됐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3월 29일 '영호당 정호 대종사 66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선운사 대웅보전과 조사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석전 스님의 행장소개, 추모입정, 참배 등이 진행됐다. 추모제에는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문중원로 재곤, 혜산, 재덕 스님을 비롯한 석전문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진흥과 교육,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추모하고 "스님의 업적을 선양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석전 대종사의 사상과 근대문학에 끼친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는 올해 석전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가칭)조선불교초대교정 석전 박한영 대종사 일생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당 석전 스님은 율(律) · 화엄(華嚴)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을)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 교정으로 한국불교를 영도했다.

1919년 기미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대표로 참여하고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신진작가 6명 배출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한 신진작가 공모전 당선자에 6명의 신진작가를 선정했다.

공모전은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만화, 디자인, 공예, 의상, 건축 등 시각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개최돼 총 20명 여명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 청년작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선정된 신진작가는 엄기준(회화, 남, 30세, 조선대학교 졸업), 이세현(사진, 남, 30세, 동신대학교 졸업), 김경란(설치미술, 여, 29세, 호남대학교 졸업), 려은(회화, 여, 34세, 호남대학교 졸업), 노여운(회화, 남, 27세, 전남대학교 졸업), 이조흠(회화 및 영상, 남, 30세, 조선대학교 졸업)씨다.

무각사는 이들에게 로터스갤러리에서 6월부터 8월 중 개인별로 2주간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간 및 전시관련 일체의 비용을 제공하며, 100만원의 전시지원금이 제공된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신인작가들에게 힘을 주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시작한 일이다. 앞으로도 청년작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며 이들의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광주 지역 미술계에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작가 김경란 씨는 "작년에 로터스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신진작가 초대전 5번 가운데 4번의 개막식에 참가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 올해 공모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어 너무 기쁘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신작을 선보이고 싶다"고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리산 화엄사 구층암 산신재 봉행



지리산 화엄사 구층암(주지 덕제)은 4월 2일 봉천산신터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기운의 울림'이란 주제로 산신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산신재는 전국 각지에서 찾은 기도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패, 천수바라, 육법공양 등 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덕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리산은 성모할멈산신이 상주하는 명산"이라며 "1년에 한번 삼월삼짓날 이뤄지는 산신과의 귀중한 만남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해 가는 힘을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천산신재는 해마다 음력 삼월 초하루부터 삼짓날까지 진행된다. 100여년 전부터 화엄사 스님들이 봉천산신터에서 재를 지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4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4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② 성명학 : 6개월과정(단 역학의 기초과정을 배우신 분께서는 3개월 완성) (매주 월)1시 ~ 2시반
▶ 개강일시 : 2014년 4월 28일 (매주 월) 2시 반 ~ 4시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9기 불교의식(서울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팔공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시 : 2014년 4월 30일(수요일) 오후 3시
◆ 수 업 : 매주(목.금) 오후 3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H·P 010-9361-5566

무파사 팔공불교대학 학장 일관 합장

“수 만분의 1의 기적 함께 만들어요”

동명대 조혈모세포 희망 기증자 1천명째 기증자 탄생

생명나눔 조혈모세포 천번째 기증자가 4월 2일 동명대에서 탄생했다. 수만분의 1의 기적 조혈모세포 기증 현장 캠페인이 지난 4월 1일~4일까지 부산 동명대 산학협력관 앞뜰에서 거행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동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들을 현장에서 모집 천번째 기증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세포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일명 ‘어머니 세포’라고 불리는 이 세포를 적절한 시기 안에 백혈병이나 암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다. 또한, 기증자도 2~3주 이내 회복이 가능하고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성능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직 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해야만 이식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 5%이내, 형제자매 간 25%,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확률이 극히 낮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야만 이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열어 생명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1,000번째로 기증 희망을 등록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김정수 학생은 ‘조혈모세포 1000번째 기증등록 희망자와의 만남’에서 “헌혈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불교학과 김정수 학생 주인공

“많은 이들 동참하길 발원”

기쁘다. 또한, 뜻하지 않게 1,000번째 기증자로 선정되어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만큼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1,000번째 기증자로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1,000번째 기증자와의 만남 행사에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 본부장 원범 스님, 설동근 동명대 총장, 동명대 재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장 원범 스님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동명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동명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진정한 보시인 생명나눔에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만분의 1의 기적 조혈모세포 기증 현장 캠페인이 4월 1일~4일까지 부산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앞뜰에서 거행됐다.



1000번째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김정수 학생(가운데)

지난 2006년 7월에 설립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생명나눔 확산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조혈모세포 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홍보, 헌혈 캠페인 및 헌혈증, 혈소판 성분헌혈 결연 등 다양한 생명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대학교에서의 캠페인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동명대에서는 지난 2008년 280명이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총 98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자로 등록했다. 이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지난해까지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인원인 총 3,155명의 32%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창녕 관룡사 사천왕 탱화 불사

4월 2일 점안식… 불교문화 맥이어

17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창녕 관룡사(주지 광우)가 4월 2일 도량 및 불자 수호를 위한 사천왕을 모셨다.

총 8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된 사천왕 탱화는 권현규 충청북도 단청장이 직접 불사를 맡아 화성 용주사의 탱화와 관룡사 사적기의 기록에 근거해 복원에 가까운 탱화들을 탄생시켰다.

권현규 충청북도 단청장은 충청북도 단양 출신 장인으로 화성 용화사, 속리산 법주사 등 전국 100여 곳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복원했으며 지난 2001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그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 탱화 불사에 동참하게 됐다.

1733년에 집필된 신유한의 〈관룡사사적기〉에 의하면 관룡사는 사천왕들을 탱화로만 모셨고 사천왕상은 모시지 않은 채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특이사항을 하나의 기록으로


관룡사 탱화 점안식

만 남기지 않고 관룡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영험함을 계승하고자 했던 관룡사 주지 광우 스님은 사천왕상 대신 사천왕 탱화 불사를 선택했다.

또한, 과거 불교의식을 그대로 복원하고 불교문화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이 ‘사천왕 봉안법회’를 집전해 사천왕 탱화에 생명과 영험함을 불어 넣었다. 봉안법회에는 관룡사 주지 광우 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과 5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관룡사 주지 광우 스님은 “불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뜻이 함께 있어야만 성사될 수 있는 일인데, 많은 이들의 성원과 기도가 이번 사천왕의 불사를 가능케 했다. 또한, 관룡사의 많은 문화재가 도난 되고 훼손된 만큼 도상 자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천왕 탱화를 다시 복원하고 모시게 된 점은 역사적으로도 뜻 깊은 일이다. 관룡사가 불교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모범적인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부대중에게 사천왕 탱화를 공개하는 점안식 전날 저녁 6시에는 탱화를 모시는 복장(腹藏)의식이 6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의 집전에 따라 거행된 이번 복장의식은 전통불교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관룡사와 통도사 율원 스님들의 취지가 실려 있기도 하다.

김나영 객원기자

희망의 달구벌 점등식 봉축 알려

3월 30일 대구 동성로서

대구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으로 축제 분위기 조성에 본격 나섰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3월 30일 저녁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6개 종단 대표자와 신도 등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범종 모양의 한 지등에 불을 밝히는 ‘희망의 달구벌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에 앞서 인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점등식 법요식을 가진 뒤 대구백화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부처님 오신 뜻을 알렸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4월 17일~26일까지 신천둔치에서 대형등 전시와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프로


대구 달구벌 점등식

그램 등으로 꾸며지는 ‘달구벌 관등놀이’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 마지막 날 대구 도심 일대에서 연등행진을 가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송림사 불교대학 17기 입학식

4월 2일 설법전서

조계종 제9교구 말사 칠곡군 송림사(주지 혜성)는 송림사불교대학 제17기 입학식이 4월 2일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혜선 부학장스님은 신입생들에게 “나의 본 모습은 영원한 생명이요 광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로 볼 것인가! 일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로 볼줄 아는 지혜를 신입생들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


송림사불교대 입학식

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치매노인 위한 ‘참좋은 기억 학교’

3월 31일 개소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설립한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이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다.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은 3월 31일 대구시 남구 대명로에 위치한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참좋은 기억학교’ 개소식을 가졌다.

대구시가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로 지정한 ‘참좋은 기억학교’는 경증 치매어르신 40명을 낮 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무의탁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6곳으로 늘어났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장병들 연비의식 마치고 ‘불자 탄생’

영축총림 통도사 호국연무사 수계대법회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4천여 훈련병들에게 계를 내렸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현조)에서 3월 29일에 봉행된 ‘영축총림 통도사 수계대법회’는 주지 원산 스님, 총무국장 동진 스님 등 통도사 소임 스님들과 공주 동학사 강원 40여 학인 스님, 통도사, 서운암, 백련암, 하얀연꽃절 등 각 말사 신도 400여명이 동참한 야단법석이었다.

주지 원산 스님은 전계사로서 “계를 받는 것은 깜깜한 밤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자 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타는 것과 같다”고 계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수계법회에 참석한 훈련병들은 연비의식을 받고 불자로 다시 태어났으며 통도사에서는 〈법구경〉 3500여권, 통도사 유치원생 및 신도들이 직접 쓴 위문편지, 간식


호국연무사 수계식

등을 전달했다. 또한, 우람바라(지휘자 정성민) 통도사 합창단이 찬불가에 이어 군인들의 대표 대중노래인 ‘이등병의 편지’를 음성공양해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훈련병 김영대(28)씨는 “계를 받는 것이 낯설지만, 이번 수계식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스님들의 염불과 법문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바른 생활을 영위해 남은 군 생활도 성실하게 무사히 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총 2천 5백만원 보시금, 인재불사에

대한불교 석암장학회 제79기 장학금 전달식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 내원정사 주지)가 故석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인재양성과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한불교 석암장학회 제79기 장학금 전달식’을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봉행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총 14명으로 동국대 학생 중 전공과 무관하게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선정됐으며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회장 정련 스님은 “석암 스님은 인재불사를 가장 귀한 불사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참석한 신도님들이 대한불교석암장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석암 스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성태 내원정사 신도회장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자리이타행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평소 석암 큰스님의 숙원인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취지문을 낭독했다.

대한불교석암장학회는 1971년 11월 故석암 스님이 불우하거나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재양성에 뜻있는 사부대중과 함께 설립한 장학단체로 올해까지 총 79회 동안 1,194명의 학생들에게 6억 8천 7백 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세븐스타 편백 온열 보료 / 침대

편백나무 매트 사이로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기가 솔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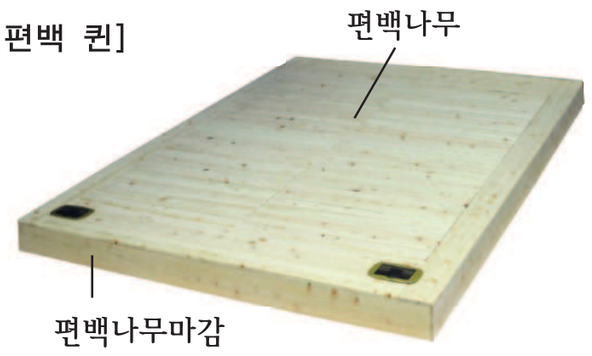
BOILER SevenStar

관절염, 디스크, 불면증에도 좋은 온열찜질을 할 수 있는 건강 침대!

세븐스타 편백 온열 보료

[기본]


[기본]가로1000X세로2000X높이100
(38kg) 가벼워서 이동이 간편해요!

[편백 퀸]


[편백 퀸]가로2030X세로1520X높이100 (60kg)
퀸사이즈 양쪽 따로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 보일러(엑셀파이프관)설치된 제품
· 전자파없음
· 향기요법 기능 첨가
· 보증기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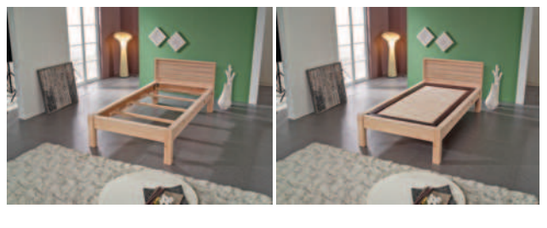
하루종일 켜놓아도 전기료 한달 3000원
내 몸에 꼭 맞는 약재를 넣고 찜질과 아로마효과도 누리세요!



편백나무매트 내부구성


천궁, 당귀, 창출, 백출, 계피, 귤피, 등등
사용자가 간편하게 직접 약초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돌침대에 앉아만 있어도 찌르르한 전자파가 느껴지시나요?
기존 돌침대에 보료만 바꿔서 전자파 없는 세븐스타 편백온열침대로 만들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24번길 32
(주)세븐스타보일러
www.stenergy.net
031)575-6608

흐드러진 절집 백매의 청아한 향에 취하다

매화꽃이 있는 사찰 - ① 순천 금둔사


금둔사지 석불비상(보물 제946호)과 산신각 뒤에 핀 매화들이 봄이 완연해 졌음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순천 금둔사에 진분홍빛 홍매화가 피었다. 금둔사에는 매년 봄날이면 홍매, 청매, 백매 등 삼색 매화가 흐드러진다. 이렇게 다양한 매화가 피는 사찰도 드물다. 매화는 살을 에는 겨울 추위를 겪지 않으면 향기를 뿜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인고의 상징이다. 모진 시간을 견디고 세상에 다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나온다.

하나둘 늘어난 금둔사 매화나무는 현재 100여 그루에 이른다. 납월매라고도 하는 납매 6그루는 금둔사의 또다른 성보(?)다. 납월은 음력 섣달을 의미하는데, 납매는 이때부터 피기 시작한다.

엄동설한에 몸이 움츠러드는 양력 1월 말부터 3월까지 연분홍빛의 자태를 뽐낸다. 음력 12월에 피는 매화이기에 열매가 없다. 벌과 나비가 없는 추운 날 꽃을 피우는 그 특성으로 인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대신 진한 향기를 선사한다. 납월매만의 특성이다.

이제 납매는 금둔사에서만 볼 수 있다. 낙안읍성에 있던 늙은 납매의 씨앗을 옮겨다 심었는데, 모종은 죽고 금둔사 납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금둔사에는 봄이 가장 빨리 온다. 바로 납매 때문이다. 금둔사 납매는 한데 모여 있지 않다. 대웅전을 비롯해 태고선원 등 경내에 흩어져 있다. 하지만 둥치 부근에 이름표가 걸려 있어서 금세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2개월 동안 납매의 고운 꽃송이가 피고 지기를 계속하면, 어느덧 추위가 물러가고 다른 매화들이 꽃망울을 터뜨린다. 비로소 금둔사가 은은한 매화 향기로 가득차는 진짜 봄이다.

금둔사의 또 다른 매화는 백매(白梅)다. 청매와 백매는 꽃잎이 똑같이 하얗지만, 꽃받침의 색상이 초록색과 팥죽색으로 다르다. 세 가지 색깔의 매화꽃은 4월 초까지 금둔사를 아름답게 수놓아 준다.

"수행자를 상징하는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선비에게는 지조가 필요하듯 수행자에게는 겨울날 반복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매화야 말로 수행자의 올곧은 심지(心志)를 상징할 수 있지요" 주지 지허 스님은 매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매화향기 가득한 금둔사는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사찰이다.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에 창건됐으나 오랫동안 폐허 상태였다가 1980년대 중창됐다. 지허 스님은 폐사 됐던 금둔사에 1984년 처음 들어와 천막생활을 시작으로 가람을 일으키는 불사를 시작했다. 그 후 여러 인연들을 통해 개인 땅을 매입하고 차(茶)를 제조해 '뿌리깊은나무' 에 보급 하면서 대웅전과 일주문, 태고선원, 약사전, 설선당, 산신각, 범종각 등을 복원 중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삼층석탑과 석조불비상 외에는 대부분의 전각이 근자에 세워졌다.

해발 679m의 금전산 서쪽에 위치한 금둔사는 1530년(중종 25)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둔사 재금전산(金芚寺 在金錢山)' 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찰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매, 청매 등 1백여 매화나무 서생
통일신라시대 창건 후 폐허, 1980년대 중창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 촬영

이후 근래 들어 순천대 박물관측이 금둔사 지층 120~150㎝서 창건 당시 건물지 지층을 발굴했다. 지금까지 유구층서 4동의 건물지를 확인했고, 초석 · 기단 · 연화문 숫막새 · 주름문늑병 등의 유물도 발견했다.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박물관측은 금둔사가 9세기경 창건된 사찰임을 확인했다. 금둔사에는 통일신라에 조성된 '금둔사지 삼층석탑(金芚寺址三層石塔, 보물 제945호)' 과 '금둔사지 석불비상(金芚寺址石佛碑像, 보물 제946호)' 등의 문화재가 있다.

금둔사는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영화 촬영 장소로도 알려졌는데,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인〈천년학〉도 이 곳서 촬영했다.

금둔사=양행선 광주 지사장


대웅전 옆에 진분홍 홍매화가 만개했다.


지허 스님이 1984년 가람불사를 일으킨 후 정비된 금둔사

"수행과 운력은 不二"



주지 지허 스님

'반농반선(半農半禪)' . 즉 참선과 노동을 수행자의 본분으로 삼는 지허 스님은 반농반선의 주창자이다. 하지만 편한 것만을 찾으려는 후학들과 불교의 현실에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지금 불교의 현실이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사회니까요. 그래서 출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수행과 운력을 늘 생활처럼 함께하는 스님이지만, 지허 스님의 또 다른 이력은 바로 한국 전통차의 달인이라는 것이다. "우리 전통의 차는 뿌리가 깊고 단단해 맛과 향기 일품입니다."라는 스님은 제다법을 큰스님들로부터 배웠다. 금둔사에 온 후 스님이 만든 차가 '뿌리깊은 나무' 에 납품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주변 가볼만한 곳



▲**순천 낙안읍성**=순천 낙안읍성은 1983년 사적 302호로 지정됐는데, 사적으로 지정되기까지 故 한창기 선생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낙안읍성은 성곽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서문을 지나 남문으로 내려오는 돌계단에서 낙안읍성의 풍경이 가장 잘 보인다. 남문까지 길게 이어진 성곽 길과 초가집, 흙길 등 온통 누런빛이 감도는 읍성의 풍경이 예스럽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2011년 개관한 이곳은 평생 우리 것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한 브리태니커 한국 대표이사를 지낸 故 한창기 선생의 열정과 고집이 깃든 공간이다.

선생은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을 팔아 많은 수익을 남겼고 그 수익금으로 한국 전통문화 사업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문헌〈용비어천가〉에서 따왔으며,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잡지 형식을 추구한 〈뿌리깊은 나무〉였다. 하지만 이 잡지는 안타깝게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1980년 8월 강제 폐간되었다.

잡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유물 전시실과 야외 전시 공간, 백경 김무규 선생 고택으로 구성된다. 유물 전시실은 선생이 만든 잡지의 이름을 따 각각 뿌리깊은나무(상설 전시실), 샘이깊은물(기획 전시실), 배움나무(세미나실)로 나뉜다. 전시실에는 유물 800여 점이 전시된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시대의 기와, 옹기, 토기에서 청자, 백자, 불교 의식 용구, 민속용품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문화재급 유물도 있지만, 아직도 온기가 남았을 것 같은 서민 생활용품도 제법 많다. 서까래의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끼우던 서까래막새, 청동기시대의 별 모양 돌도끼,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정순왕후국장반차도' 등 특이하면서도 희소가치 있는 유물들이다.

▲**김무규 선생 고택**=박물관 주변에 멋들어진 한옥 한 채가 있다. 1920년대에 지어진 백경 김무규 선생 고택으로, 전남 구례에서 옮겨왔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서편제〉에서 주인공 송화가 눈먼 뒤 아버지 유봉과 함께 머무르는 곳으로, 하얀 한복을 입은 이가 사랑채 누마루에 앉아 거문고를 타자 유봉이 구음을 부르는 장면이 이 집에서 촬영되었다. 고택은 전형적인 양반 상류 주택으로 사랑채와 안채, 사당으로 구성되었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봉 행

불기 2558년 금강계단 구족계 산림 및 전종도 법계고시 준비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 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발원하여 해당부분 전 종도 아래와 같이 제방에 준비 공고 합니다. (특히 법계 품수자는 준비에 만전을 기여할 것)

원로원장 대웅
교육원장 봉덕 고시위원장 일봉 고시위원 혜명, 대일, 의광, 무여
고시부위원장 용현

※ 사미계
※ 구족계 산림
※ 법계 고시
● 장소 : 법계고시사 관음정사(부산역 앞)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관음정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부산역) 문의처 : 총무 010-4566-4504. 051)442-5658. 468-5657 팩스 051)442-5659
호국불교조계종 http://jogyeong.kr / 관음정사 www.happybuda.kr / E-mail : OK-1207@hanmail.net

(社)護國佛教 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입종업체

우리춤 체조, 한국무용, 불교무용 연구소
● 원장 : 조론심
●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30 051)512-0115. 010-3834-6677
● 우리춤, 체조 전문지도 자격증반 수시 모집중!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http://www.kukjeav.com
● 010-3832-8855 수봉 합장

탑의 진화

⑧ 미얀마의 불탑 (1) 쉐다곤 불탑

세존에 대한 그리움 탑으로 쌓다

지난 호 까지는 인도의 불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 부터는 미얀마의 불탑에 대하여 알아본다. 미얀마라고 하면 '미소의 나라!' , '황금의 나라!' 등 여러 미사어구가 붙지만 '불탑의 나라!' 라고 칭하는 것만큼 잘 어울리는 표현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불자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불탑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나라이기에 약 450만개의 불탑이 현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도 양곤 중심가에 있으며, 미얀마의 상징인 쉐다곤 불탑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쉐다곤 불탑의 건탑 사연에 대하여는 여러 경전에 설해져 있다. 그 중에 〈불본행집경〉에 설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 49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 동안 수자타 여인이 공양한 우유죽을 한번 드신 뒤에는 달리 음식을 드시지 않은 상태셨다. 그 때 천축 멀리에서 상인 두 사람이 그곳으로 왔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제리부사(帝梨富娑)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발리가(跋梨迦)라 했다.

그 두 상인은 지혜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천축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5백 대의 수레에 가득 실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 상인에게는 길이 아주 잘 든 소가 한 마리씩 있었는데 항상 앞장서서 갔으며, 앞에 두려운 곳이 있으면 그 소는 말뚝에 매인 것처럼 멈춰 서고 나아가지 않았다.

5백대의 수레를 끄는 소들의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이끄는 소 두 마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숲을 지나려고 하자 꼼작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두 상인은 채찍으로 길 들인 소 두 마리를 재촉하였으나 꿈적도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5백 대의 수레를 끌던 소들도 모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고, 가죽 고삐가 저절로 끊어지는 등 온갖 괴상하고 상서로운 변고가 일어났다. 그러자 제리부사와 발리가는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생겨 하늘과 모든 신들에게 "하늘이시여! 우리들이 지금 만난 재앙과 괴변의 두려움을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라고 빌었다.

그러자 그 숲의 신이 상인들에게 "그대들 상인은 두려워 말라. 이곳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다. 여기는 오직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시고 지금 이 숲 속에 계실 뿐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지금 49일이 지나도록 아직 음식을 들지 못하셨다. 그대들 상인이 만약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보릿가루와 우유와 꿀 경단을 공양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하면 그대들은 오랜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여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두 상인은 곧 각각 보릿가루, 우유, 꿀 경단을 가지고 모든 상인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공양을 올렸다…(중략)… 두 상인으로부터 받은 공양을 다 드신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상인은 나에게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함을 받고, 또 5계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길이 안락하고 큰 이익을 얻으리라." 하시자 그 두 상인과 모든 권속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따랐다. 이 두 상인은 인간 세상에서 최초로 3귀의와 5계를 받은 우바새가 되었다. 최초의 우바새가 된 이 두 상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모두는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어려움 없이 빨리 고향에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기념할 만한 물건 하나를 주십시오. 고향에 도착해서 세존을 뵙지 못할 때 그 물건으로 탑을 세워서 예배하여 이것으로 큰 성인이신 세존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은 공양하고 존중하여 이생이 다하도록 받들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곧 모든 상인들에게 머리털과 손톱으로 기념을 삼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상인들이여, 이 머리털과 손톱을 그대들에게 주리니 이것으로 그대들은 나를 생각하라. 뒤에 다시 돌 하나가 공중에서 내려와 그대들이 있는 곳에 이를 것이니, 그대들은 그 돌을 보거든 마땅히 탑을 세우고 존중 공양하여라." 〈대정신수대장경 3권〉 802쪽 중단

불탑신앙 세계제일, 불탑 450만 개
세존 두발, 과거불 유물 3종 봉안한
'쉐다곤 불탑' 은 미얀마의 상징
높이 100m 70톤 금판 녹여 개금
상부 다이아몬드 5,448개 등 보석장엄
초기엔 높이 22m, 1774년 현재 규모로

부처님 말씀대로 두 상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 나라의 왕인 오깔라파 왕에게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바쳤다. 왕은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과거불의 유물 3가지를 더하여 봉안하고 탑을 세우니 불탑의 이름이 '4개의 성물(聖物)' 이란 뜻의 쉐다곤(Shwedagon) 불탑**〈사진1,2〉**인 것이다.

현재 불탑은 칸도기 호수의 서쪽, 싱구타라 언덕 위에 있어 도시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둘레는 426m, 높이는 100m로, 기단부는 정사각형이고 기단 윗부분은 원뿔꼴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불탑의 겉면은 무게만 약 70톤에 달하는 금판 8,688개를 녹여 전체를 황금으로 덧씌워져 있다.

〈사진1〉



'4개의 성물(聖物)' 이라는 뜻의 쉐다곤(Shwedagon) 불탑은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과거불의 유물 3가지를 더하여 봉안한 탑으로, 칸도기 호수 서쪽이 싱구타라 언덕에 있다.

〈사진4-1〉



본인 탄생 요일에 욕불하는 모습

〈사진4-2〉



월요일을 상징하는 호랑이 상.

〈사진3〉



1779년 씽우왕이 보시한 종.

〈사진2〉



쉐다곤 불탑 전경

특히 탑의 상부에는 다이아몬드 5,448개,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등 각종 보석 수만개로 장엄하였다. 여기에 금종 1,065개, 은종 420개를 봉안하니, 미얀마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불자들의 제1성지로 꼽는데 손색이 없다. 물론 초기의 쉐다곤 불탑은 높이 약 22m로 지금 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긴 세월동안 불심이 돈독한 불자들에 의해서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중창 불사의 예를 들자면, 1453년 몬족의 신소부는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기념으로 자신의 몸무게와 같은 40kg의 황금을 보시하였고, 그녀의 사위였던 담마제디 왕은 자신과 아내의 몸무게를 합쳐 4번이나 금을 보시하였다.

쉐다곤 불탑의 기단에 모셔진 8방의 동물과 요일, 별자리 표

요 일	방 향	상징동물	상징 별
월요일	동	호랑이	달
화요일	남동	사자	화성
수요일 오전	남	상아가 있는 코끼리	수성
수요일 오후	북동	상아가 없는 코끼리	일식과 월식(rahu)
목요일	서	큰 쥐(rat)	목성
금요일	북	기니피그 [guinea pig]	금성
토요일	북서	나가(naga):반은 인간 반은 뱀	토성
일요일	남서	가루다	해

그러나 1620년 11월과 1768년 6월에 있었던 지진에 의해 탑은 크게 훼손되어 꼰바웅(konbaung) 왕조에 이르러 1774년 신뷰신 왕은 높이를 100m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을 완성한다. 또한 1779년에 씽우(singu)왕은 높이 3.3m 직경 2m 무게 25톤의 종**〈사진3〉**을 보시하였다.

그 후 미얀마는 영국과 전쟁을 치루면서 쉐다곤은 다시 한 번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영국 군인들은 승전의 전리품으로 씽우 왕이 조성한 범종을 배로 본국으로 옮기려고 할 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종은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다. 종을 건지는데 실패한 영국인들 대신에 미얀마인들의 지혜로 조류와 대나무를 이용하여 종을 건져 복원하는데 성공한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1841년에는 뜨라야와디(tharyarwady)가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52kg에 달하는 황금과 42톤의 대종을 보시하여 오늘에 전한다.

쉐다곤 불탑의 상단부 타원형 구조물은 연꽃을 상징한 것으로 맨 위의 구조물을 우산이라는 의미의 힛(hti)이라고 부른다. 인도 산치 탑에서 설명하였듯이 우산 혹은 양산은 비를 피하고 햇볕을 가리는 용도 외에도 산(傘)이라는 것은 위대한 성인을 모시는 상징물인 것이다. 이러한 불탑의 산[parasol]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의미와 형태가 변형되어 수레바퀴로 인식되어 보륜(寶輪)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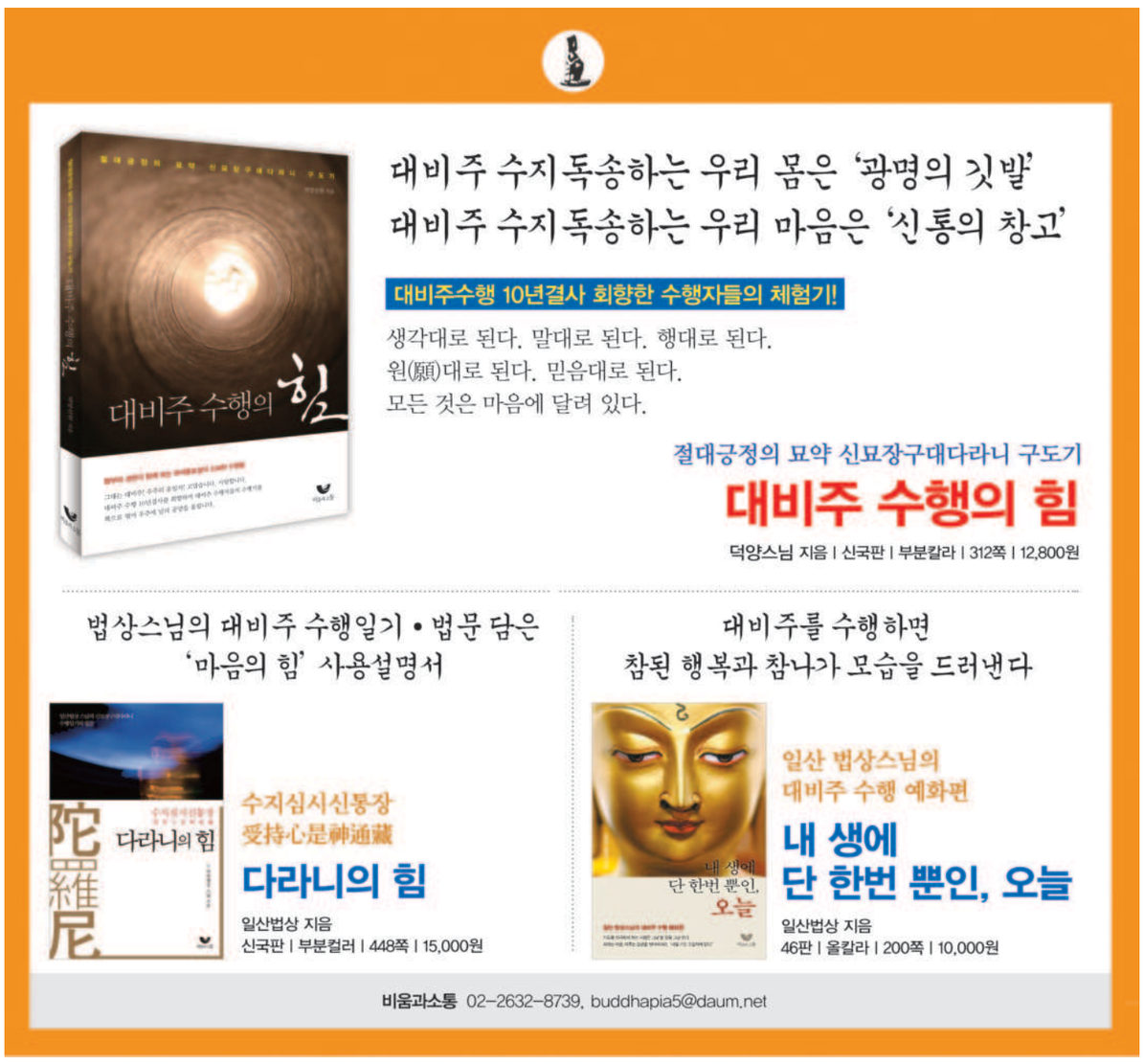
이 보륜이 탑 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상륜부' 라고 칭하고 있다. 쉐다곤의 '힛' 은 높이만 하더라도 13m로 순금 500kg으로 작은 금종이 4,016개가 달려 있고, 다양한 보석 83,850개가 장식되어있다. 특히, 최상부의 보주는 높이가 56cm인데 총 1,800캐럿의 4,35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았으며, 가장 큰 것은 7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장엄되어 있다.

현재 쉐다곤 불탑은 4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층계를 이용하여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요도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는 8방으로 불상과 요일을 상징하는 동물상이 있다. 이러한 8방에는 미얀마의 전통요일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세계 표준이 되어 있는 7요일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로 유태인의 구약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인도에는 9일제 달력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5일제를 사용하였으며, 미얀마는 8일제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5일제 달력을 역사 속에 묻어버렸지만 미얀마인들은 수요일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7요일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다. 우리의 생년 띠와 비슷한 상징적인 동물이 각 요일마다 있어 자기가 태어난 요일의 동물과 불상 앞에서 자기 나이만큼 물을 붓는 욕불의식을 하며 불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사진 4-1, 4-2〉** 쉐다곤 불탑의 기단에 모셔진 8방위에 따른 동물과 요일 그리고 별자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글 · 우인보





만해 스님, 독립·문학 열정 '유심'에 담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⑦ 종로 계동 43번지와 〈유심〉

한국의 개화기 잡지는 개화 운동의 전위로서 근대적 사상 확립과 문화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불교 역시 잡지 등 출판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고 근대적 포교의 도구로 활용했다.

하지만 일제가 한국을 침탈한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한국인의 눈과 입을 원천봉쇄하는 암흑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기간의 불교 잡지와 언론으로는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조선 불교계〉 등 몇몇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17년 오세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만해 스님은 1918년 종로 계동 43번지에 유심사(唯心社)를 세운다. 이미 〈정선강의 채근담〉, 〈불교대전〉 등을 발간하면서 출판 · 언론 사업에 눈을 뜬 만해 스님은 이제 불교 교양 잡지에 도전한다. 그리고 창간한 잡지가 〈유심(唯心)〉이다.

국판 60여 페이지의 〈유심〉은 불교 교양지를 표방했다. 〈유심〉 창간호는 1918년 9월에 발간하고, 제2호는 그해 10월, 제3호는 12월에 잇달아 발행된다. 하지만 〈유심〉은 일본 총독부의 탄압과 3.1운동 준비로 제3호로 종단된다.

그렇다면 만해 스님은 왜 잡지 〈유심〉을 발간했을까. 이는 창간사에 해당하는 '처음에 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배를 띄우는 흐름은 그 근원이 멀도다. 송이 큰 꽃나무는 그 뿌리가 깊도다. 가벼이 날리는 떨어진 잎새야 가을 바람이 굳셈이랴. 서리 아래 푸르다고 구태여 묻지 마라. 그 대(竹)의 가운데는 무슨 걸림도 없나니라.〈중략〉가자 가자 사막도 아닌 빙해도 아닌 우리의 고원(故園) 아니 가면 뉘라서 보랴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매화."

배를 띄워서 매화를 찾겠다는 창간사에서 우리는 만해 스님이 〈유심〉을 통해 대중들의 의식을 계몽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매화'는 스님이 그리는 꿈이고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심〉에 수록된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로 만해 스님이 썼지만 박한영, 백용성, 권상로, 이능화, 김남전, 최남선, 최린, 현상윤 등도 주요 필자로 참여했다.

실제 박한영은 '타고르의 시관'을 만해 스님은 타고르의 '생의 실현'을 번역하기도 했다. 3.1운동의 가장 선봉에 섰던 최린은 〈유심〉 창간호에 '시아수양관(是我修養觀)'이라는 제하의 글을 썼으며, 육당 최남선은 '동정(同情)바늘 필요(必要)잇는 자 되지 말라' 등 청년의 수양과 나아갈 지표를 제시하는 글들을 발표했다.

만해 스님 역시 △조선 청년 수양 △고통과 쾌락 △청년의 수양 문제 △가정 교육이 교육의근원이다 △과학의 연원 △자아를 해탈하라 △항공기 발달 소사 등의 글을 쓰기도 했다. 모두 시대정신이 적절히 나타난 글들이다.

또한 만해 스님은 〈유심〉을 단순히 불교 교양지 아닌 종합 잡지로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심〉에는 특이하게 '문예공모' 코너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유심〉 제3호에는 '당선 문예란'을 통해

1918년 9월 종로서 〈유심〉 창간
불교지면서 문예공모 등 특이 편집
만해문학 잉태 · 3.1운동 전위지
민족의식 고취 기고… 3호로 폐간

발간처 종로 계동 43번지 유심사
일반 가옥 거치며 폐가 위기까지
현재 게스트하우스 '만해당' 변모
길손들 만해 채취 느끼며 '감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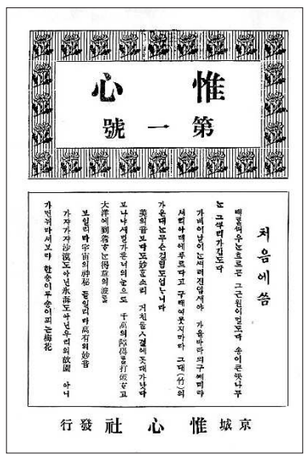
그동안 응모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유심〉은 매호에 걸쳐 보통문, 단편소설, 신체시, 한시 등 4개 분야의 문예 작품을 현상 모집해왔다.

만해 스님은 당시 학생 소설 '고학생'을 쓴 종로 견지동 118번지의 방정환, 평양 창전리의 김순석을 수상자로 선발했다. 방정환에게는 1원 50전의 상금이, 김순석에게는 50전의 상금이 돌아갔다. 선외 가작 당선자로는 김형원, 박중빈, 철아, 소파생, 이형준, 이영재, 어효선, 김창진, 이중각 등이 선정됐다.

이들 모두 훗날 한국 사회와 문단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성장한다. 이들의 성장 계기를 만해 스님이 발간한 〈유심〉이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의 종로 계동 43번지. 만해 스님이 〈유심〉을 발간했던 유심사(唯心社)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만해당'으로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면서 폐가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인근 주민 이유리 씨가 장기 임대해 게스트 하우스로 변화시켰다.


心 惟
號 一 第
처음에 씀
京城 惟心社 發行

유심 창간호 내지. 창간사인 '처음에 씀'이 수록됐다.



만해당에 걸린 표지판. 왼쪽에 있던 표지판이 지자체에서 세워준 것으로 본래는 58번지에 있었다. 이유리 대표와 언론의 비판으로 본래 자리를 찾게 됐다.

만해 스님도 〈유심〉을 자유시를 실험하는 장으로도 활용했다. 대표적인 작품이 '심(心)'이다. '심(心)은 심이다'로 시작해 '심은 절대며 자유며 만능이니라'로 끝나는 이 시는 '님의 침묵' 이전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되며 만해 스님의 작품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유심〉은 3.1 운동의 밑거름이기도 했다. 3.1 운동 핵심 인사인 최린, 권동진, 오세창, 최남선, 현상윤 등을 필자와 동지로서 인연을 맺게 한 역할을 〈유심〉이 톡톡히 했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반드시 등장하던 총독부 관리의 글을 배제해 민족 주체성을 확고히 보여준 면을 봐도 〈유심〉의 근간에는 '민족 운동'이라는 화두가 자리하고 있었다.

만해 연구가인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장(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은 자신의 논문에서 〈유심〉을 3.1운동의 전위지라고 평가했다.

전 회장은 "만해 스님이 〈유심〉을 민족사상지이자 3.1운동 전위지로 발전시키려 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유심〉의 종간 배경이 3.1운동과 직결돼 있었다는 점을 직시할 때, 민족의 정신문화를 선도한 사상지로서의 위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해 스님은 〈유심〉의 언론활동을 통해 세계 정세의 흐름과 민족의 앞날을 예견하고 3.1 독립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석 동국대 교수는 〈한국근대문학지성사〉에서 〈유심〉이 만해 스님의 문학을 잉태시킨 계기로 봤다.

고 교수는 "3.1 운동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중단되고 말았지만, 〈유심〉은 만해 스님 문학의 출발점"이라며 "1910년대를 대표하는 불교 지성들과 민족 진영의 지성들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는 이념적 좌표를 수양주의에서 찾았던 잡지"라고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했다.

통권 3호에 그친 〈유심〉이지만 문학사적, 독립운동사적 가치는 충분하다. 종로 계동 43번지 유심사도 역시 그렇다. 실제 유심사는 불교계 3.1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의 민족 대표로 불교계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2명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불교 종립학교인 중앙학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실제 2월 28일 밤 만해 스님은 거처 유심사로 학생들을 급히 불러모아 독립선언서의 작성경위와 3 · 1운동의 의미를 설명한 뒤 선언서의 배포를 부탁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신상완 · 백성욱 · 김상헌 · 정경헌 · 김대용 · 오택언 · 김봉배 · 김법린 등은 중앙학림 안에서 한용운의 지도하에 '유심회'라는 모임을 운영하는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불교와 독립운동 면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심사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제대로 된 표지판도 없었다. 실제 2012년까지 '유심사'임을 알리는 표지석은 종로 계동 43번지가 아닌 58번지 우물터에 설치돼 있었다. 이후 일간지 보도와 비판이 이어지자 표지판은 본래 자리를 찾게 됐다.

현재 종로 계동 43번지 유심사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만해 스님을 느낄 수 있게 됐다. '만해당'이라는 이름의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유심사는 한동안 일반 가옥으로 사용되다가 낡아 매물로 내놨던 것을 다른 일반인이 재테크를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 이후 방치되던 것을 인근 주민이었던 이유리 만해당 대표가 장기 임대해 게스트 하우스로 꾸민 것이다.

불자인 이 대표는 만해 스님의 거처였던 곳이 마냥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2010년 유심사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거의 폐가 상태였습니다. 제가 종로구청에서 듣기로는 유심사가 매물로 나왔을 당시 조계종에 구매 의사를 타진했지만, 여러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만해 스님이 거처였던 곳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죠.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만해 스님이 이곳에서도 무엇을 했는지 알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를 열게 됐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청년 교양 증진을 위한 잡지 〈유심〉을 발행했던 '유심사'는 이제 '만해당'으로 변해 세계 각국의 길손을 맞고 있다. 만해당 내부 기둥에는 만해 스님의 '오도송'이 편액으로 걸려있다. 각국의 길손들은 만해 스님이 눕고, 먹고, 사색했던 그 집에서 하루의 여정을 정리하며 스님의 향훈을 느낀다.

세상은 변화한다.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을 알리는 것이 아무도 찾지 않는 기념관에 '박제된 기억'일 필요는 없다. 현재의 종로 계동 43번지 '만해당'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미타부처님께서 남섬부주 대한민국 현지사 대전분원에 나투시다!!

현지사 대전분원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상주하시고 서방극락세계와 링크(연결)되어 있는 미타성전으로서 모든 염불행자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가는 정토의 관문입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4월 정기법회 : 4월 20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7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어느날 광명만덕 큰스님의 염불삼매 중 무량억종광으로 나투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여쭈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가정이 편안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다.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리니 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칭명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며,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할 수 있다네!"

현지사 '초파일 10만 봉축등' 접수합니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초파일 봉축등 접수하여 부처님 회상과 인연 맺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아미타불 재일 행사 : 매월 음력 5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음력 1일, 15일, 18일(지장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현지사 대전분원 미타성전 042)525-5325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인연관계란 엄숙한 것이다

북소리

[시] (홑첨지) 달바위 너에게 묻노라. 이제로부터 이천년 전에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북을 쳐서 호병 십만을 살수에서 무찌른 사실을 아느냐.

(달바위) 압니다.

(홑첨지) 그때 두둥 울렸던 북소리는 어디로 쫓아왔느냐.

(달바위) 북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아니다.

(달바위) 채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아니다.

(달바위) 북과 채가 마주친 데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어찌 소견머리가 그 따위냐. 아니다.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천 년 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호병 십만 명을 살수에서 몰살시켰습니다. 말 들어 보니 어디에 동상 세워진다고 합니다. 동상 세워 드릴 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걸 내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천 년 전에 니 북소리 들었느냐. 이거 내가 비유로 해 놓은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북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북에서 나왔습니다. 아니다. 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니다.

채하고 북하고 마주쳐서 인연이 돼서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앞 소식이에요. 소리는. 그 말입니다. 마주친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날카롭다면 이 자리에서 답 나옵니다. 선재 보살, 어디 갔노? 거?? 알아들었나? 그 목소리 어디서 나왔노? 채와 북이 인연은 되어 있다. 인연. 그렇지? 만약 인연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인연이게? 어디서 나왔노? 좋다.

[시] (달바위) 마음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홑첨지) 남의 말을 도적질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쫓아왔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할 테면 육조 혜능 대사가 삭발을 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중이 되려고 법성사로 가는데 문 앞에 세워 놓은 깃발이 펄럭거려. 두 중이 있다가 하는 말이 기가 펄럭거린다 아니다 바람이 펄럭거린다 기가 펄럭거린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바람이 펄럭거린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조 혜능이 하는 말이, 두 스님 그거 아닙니다. 당신네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 말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기가 펄럭거리는 거다 바람이 펄럭거린다고 하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도 돼. 마음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물론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하

> **모습은 인연관계로 굴리어져**
> **하나의 용서도 없어**
> **용서 빌 사람도 없고**
> **용서 받을 사람도 없어요.**
>
> **나사못 하나만 틀려도**
> **비행기가 떨어져**
> **그거 무섭습니다.**
>
>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 **법성계 안의 소식**

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어. 꼭 기만 움직거려야 펄럭거리는 건가요? 주장자도 펄럭거리고 있거든. 바람에 나무도 흔들흔들하고 있거든. 하루에 수십 번 여러분들이 당해. 당해도 여러분들이 모를 따름이여.

그러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금시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니 니가 남의 말 도둑질 하지 마라. 육조 대사의 기를 보고 얘기한 그걸 본 따지 마라. 니 살림살이를 내 놓아라 그 말입니다.

[시] (달바위) 모르겠습니다.

(홑첨지) 힌트를 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라.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하구나.

(달바위) 알았습니다.

이거 말해도 몰라. 그러니 천상 그 경계를 한 번 인도를 해 줘야 돼. 물길을 조금 뚫어줘야 돼. 조금만 뚫어주면 나중에 가서는 줄줄 나오다가 홍수가 되는 법이에요. 둑마저 확 날려버려. 그래서 힌트를 준 것이거든.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한다. 아니, 겨울에 개구리 있습디까? 겨울에 개구리가 없거든. 그러나 나는 있어. 나는 있기 때문에 힌트를 줬어. 눈보라 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는 이 말마디에 얼붙어서는 이 답이 안 나와. 다른 거도 다 그래요. 답은 말마디 밖에 있거든. 참 그야말로 누리의 바탕을 알아. 알아서 허공중에 이루어진 춘하추동 사시 이것까지라도 전부 명자거든.

허공중에 이루어진 모든 명자가 전부가 실답지 않은 하나의 환상계에 지나지 못하다 말이여. 다시 말하자면 법성계에 이루어진 모든 법이, 법성계 중에서 굴리어지는 일체법이 환상에 지나지 못하다. 사실로 환상이거든. 이 도리를 뼈저리게 느껴야 이 답이 나옵니다. 그만 아는 것만 가지고서 어디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다간 이거 죄 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연관계라는 것이 엄숙하거든. 모습은 인연관계로 굴리어지는 것이거든. 하나의 용서도 없어요. 용서 빌 사람도 없고 용서받을 사람도 없지만 그대로 비행기가 허공에 뜨는 거예요. 나사못 하나만 틀려도 비행기가 떨어져. 그거 무섭습니다.

그러하니 자,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해.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법성계 안의 소식이라 말이여. 법의 성품의 세계, 법성계. 법성계 내의 소식이에요. 무슨 말을 했든지 법성계 안의 소식 아니에요? 이렇다면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있어서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이 말 하고도 남아요. 물론 그만 이것만이 전부라고 해서 어쩌고 어쩐다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거부할 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시아문, 무얼 들었다는 것일까"

7-2. 참회진언

불교에서는 이 음성이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불경에는 번번히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들었다' .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직제자를 존칭하여 성문(聲聞)이라고 일컫는다. 성문이란 '소리를 들었다' 는 것인데, 들었다는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른 것이다. 이로보아 불교에서 음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문은 직접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대제자(大弟子)라는 뜻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불교를 나눈다면 부처님 말씀을 들은 불교라는 뜻으로 문불교(聞佛敎)와 부처님의 제도를 어떻게 차렸느냐 하는 제불교(制佛敎)의 두가지가 될 것이다. 제도상의 문제는 그 뒤 오늘날까지 많이 논의되는 바인데, 여기서는 계율(戒律)이 중요시되어 왔다.

부처님의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왔느냐? 이러한 문제는 전불교(全佛敎)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불멸 후 2백년이 지나 대천(大天)이라는 큰스님이 나셨는데 이 분은 도인성고기(道因聲故起)라는 말씀을 하셨다. 도는 소리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소리가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도가 펴지지를 않는다. 전도니 포교니 하는 것이 모두 다시 말하자면 음성으로써, 음성을 기록한 문자로써 얘기되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敎理)가 전도로써 알리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는 부처님 당시에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시하였던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

불멸(佛滅) 후 천년이 지나 비밀 불교(秘密佛敎)가 흥왕한다. 이 밀교(密敎)의 근원은 물론 불타(佛陀)재세시에,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에 부처님의 신변불가사의(神變不可思議)한 위덕을 칭양 찬탄 우다나(優陀那)에서 나오는 모든 신비성(神秘性)을 말한데서 찾을 수 있는 바이지만 이 요소는 후대에 이르러 밀교가 가지(加持)하는 그곳에서 한층 더 승화(昇華)하는 이상(理想)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밀교의 직접적인 근거는 불멸후 7백년대에 나신 용수보살(龍樹菩薩)에게서 얻어진다. 용수보살이 이런 대신비의 법문(法門)인 진리를 어디서 열었느냐 하는 것이 밀교에서 일컫는 용수보살의 남천축(南天竺)의 철탑개안(搭鐵開眼) 이라는 것이다. 쇠로 된 보탑(寶塔)을 열었다는 것이다. 용수보살이 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대 비밀의 법장(法藏)을 진리의 고방을 알아내어 열 사람이 없었다 한다.

밀교에서 음성을 다루는데는 성자관(聲字觀)이라는 한 테마를 제출하고 있다. 성자관에 의하면 우리들의 음성(音聲)이란 것은 한정 없이, 헤아릴 바가 없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며 이 음성의 변화로써 사물의 움직임을 잘 포

> **성문은 부처님 말씀을**
> **직접 들은 대제자**
>
> **불멸 2백년 후의 대천 스님**
> **"도는 소리로부터 일어난다**
> **소리가 없으면 전도 안돼"**
> **음성과 문자로 포교 가능**
>
> **밀교의 성자관에 의하면**
> **음성을 다양한 변화표현**
> **불멸 천년후 비밀 불교 흥왕**
> **용수보살이 비밀의 법장 연**
> **'남천축 철합개안' 밀교 근거**

착 전달토록 되어 있지만, 통털어 대별한다면, 결국 이를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음, 홀소리고 다른 하나는 자음(子音), 닿소리다. 모음은 보다 더 근원적이고 ㅏ·ㅓ·ㅗ·ㅜ·ㅡ·ㅣ 하는 등의 소리, 자음은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등이다.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28음으로 정리하셨지만 인도에서는 50 음으로 되었다. 모음과 자음을 합해서 50 음을 내고 있다. 그런데 모음은 자음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모음 가운데서도 무엇이 제일 기본음이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한글에서 세종대왕이 제정한, 점 찍은 '·'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이 된다. 범어에서는 이를 아(짧게)라고 발음한다. 아-가 아니다. 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점찍은 '·'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세종대왕은 이를 훈민정음에서 천(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하늘을 표시했다는 뜻 보다는 하늘이란 지경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위치를 가리킨 것이다. 위치에는 장단 · 고저 · 대소라는 것이 없다. 다만 위치 그것을 지정하였을 따름인 것이다. 위치를 지정하였다는 것. 그런데 이 위치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위치에는 다른 위치가 비벼들 수 없으면서 그 스스로 완성되어 있다. 극소이면서 극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써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하늘이라고 지칭하신 것 같다. 이는 나의 주장이다.

모든 음 가운데 이 '·' 자,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아래아 '·' 자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음의 중핵이 된다. 모든 법문은 자음에 모음이 붙어서 낱말이 되고, 낱말이 여러개 구성되어 구절이 되고, 구절이 합하여 한 문장을 이룬다. 한 문장은 하나의 사상을 완전히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진리란 것은 이 자음과 모음이 종횡무진으로 서로 읽히어들어 그 진리의 내용을 외면적으로 감싸서 우리에게 알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은 보재기와 같은 하나의 도구나 기관인데, 그리고 보면 음성도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게끔 하고 또 남의 의사표시를 알아 듣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일 따름이다. 그것을 분해하면 자음과 모음이고 또 자음보다는 모음이 더 근원적이고 모음 가운데는 기본음이 '·' 란 것으로 낙착된다. '·' 이것은 아도, 어도, 오도, 우도, 으도, 이도, 온통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근본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대일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인재불사 포교제일 불국정토 건설의 기치를 걸고
한마음 한 뜻으로 수행과 정진을
함께 하실 스님들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금강성련 합장

전화 : 053)313-3393, 053)425-3393

총본산 : (총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79-3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영혼의 소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금강성련스님의 철구



출가하여 승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따뜻한 옷과 잠자리 및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이익을 구함도 아니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잇기 위함이요.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 서문 중에서
(네이버,다음에서 아름다운인연 성련사)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 |
저자 금강성련스님 | 값 15,000원 | 223쪽
계좌안내 : 농협 355-00071-0624-33 (성련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

모두에게 겸손했던 한암 스님

이번 호부터 한암선사(漢岩, 1876~1951)의 편지를 연재한다. 한암선사는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종정을 네 번이나 역임했으며, 오대산 상원사 선원에서 27년 동안 거의 두문불출하고 납자지도와 좌선에 매진하셨다. 한암선사의 편지는 약 45통이 남아 있다. 스님들에게 쓴 편지는 순한문체이고, 거사들에게는 국한문체, 보살님들에게는 순 한글로 썼다. 윤창화 대표의 번역과 해설로 선사의 면면 너머 스님의 법향을 편지 속에서 만나본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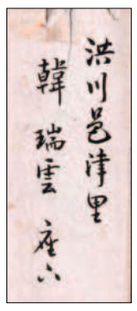
한서운(韓瑞雲) 보살님에게

다녀가신 후 지금까지 기력이 강건하시고, 염불 잘 하신다니 반가운 말씀 다 이뤼올 수 없사오며, 법문 못 들으신 것을 한하시니, 법문은 신심으로 만나보는 것도 법문이요, 선지식이라고 믿고 생각하시는 것이 모두가 법문이오며, 재수형통하기를 기도하시는 것도 법문이오며, 화두는 별도로 찾으실 것 없이 일심으로 염불하시는 것이 화두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두도 일심, 염불도 일심, 모두가 일심이라야 성취하오니, 온갖 사무 보시는 중에 일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단없이 염불하시면 일거양득으로, 세(世) 출세간이 다 구족하게 성취하십니다. 보내신 금액은 잘 찾았습니다. 이곳은 다 무사합니다. 이만 그치옵나이다.

기축(1949년) 삼월 초삼일

산승 한암 사상(답장 올림)

〈추신〉 보내신 금액은 잘 받았사오나 생일은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생일 여부가 있습니까? 너무 황공 감사합니다. 생축 망축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1949년 3월 3일에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한서운(韓瑞雲) 보살에게 보낸 편지이다. 법명은 일여행(一如行)인데, 아마도 홍천 지역에서는 가장 신심 있는 보살님이었던 것 같다.

한암(漢岩)선사는 경봉선사 등 스님들과 왕래한 편지에서는 100% 한문을 사용했으나 여성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 한글 편지이다. 아무래도 보살님들은 한문 독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글 편지가 아주 단아하고 예술적이다. 당시 한암선사는 오대산 상원사에 계실 때였고, 입적(1951년)하기 2년 전으로 74세였다.

〈편지의 법문〉 : 한서운 보살이 정월 해제 때 상원사에 왔었으나 대중공양 준비 등으로 바빠서 미쳐 한암선사의 해제 법문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한서운 보살이 그것을 한탄하자 한암선사는 법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심으로 상원사에 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법문이고, (나를) 선지식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도 법문이고, 재수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법문이고, 모두가 다 법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라하셨다.

그리고 화두는 별도로 찾을 것 없이 일심으로 염불하는 것이 화두와 다르지 않으니 화두도 일심, 염불도 일심, 모두가 일심이라야 성취된다고 일러주신다. 이 역시 한 편의 법문이다.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한자로 써야할 것도 모두 한글로 쓰셨다. 예컨대 편지 끝에 '산승 한암 사상' 에서 '사상' 은 한자 '謝上' 으로 '올림' 이다.

〈추신〉에서 '전과 여히 성심거행'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히' 는 한자 '如히' 이다. 이와 같이 한자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으셨다.

〈추신〉에서 "생일은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생일 여부가 있습니까? 너무 황공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암선사의 생신은 음력 3월 27일이고, 이 편지를 보낸 날자는 3월3일이다.

아마 한서운 보살님이 한암선사께 편지를 보내 곧 다가올 큰스님 생신을 걱정한 모양이다. 당시는 남한에도 좌우익이 대립하여 도시는 물론 산 속 오대산에도 분위기가 흉흉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였다. 한암선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생일은 무슨 생일잔치를 하느냐고 기겁하고 있다.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황공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편지 내용에서도, 그리고 추신에서도 너무 겸손한 모습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알려진 '호법신장' … '나눔' 도 눈길
설법 등 남다른 문서포교 열정 20년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 원장 ·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하면 종단 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활발한 문서포교 활동을 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스님은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이자 설법연구원 원장으로서 유익한 불교만화집 외에 〈불설법전서〉 등을 출간해 대중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다. 승가대 재학시절에는 매주 일요일 MBC전파를 탄 조용기 목사의 선교 방송을 중단시켰고, 육군 제17사단 훼불사건을 일단락 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불교계 '호법신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역임한 이후에는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를 통해 종단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사비를 들여 출판 일을 멈추지 않는 스님은 조금씩 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불교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매진해온 동출 스님은 "대외적인 활동만 있었지 수행자로서 자기 수행에는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아쉬울 뿐"이라고 회고했다.

불교 안팎으로 '활발발' 한 활동

경주 출신인 동출 스님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에 전념했다. 도반들과 함께 불교공부와 신행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출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가 후 1985년, 법주사 강원 학인시절은 〈법회와 설법〉의 전신격인 〈월간 법회〉지를 처음 접했다. 설법문안을 소개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각종 법회에서 설법을 해야 하는 스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스님들과 포교사를 위한 일종의 텍스트북으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방 스님들이 포교하는데 참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이 문서포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간 법회〉는 설법문안 외에도 진보 논객들의 시론을 자유롭게 싣고, 1987년 해인사 전국승려대회 현장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등 동출 스님이 세간과 출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도구가 됐다. 하지만 동출 스님이 강원을 졸업할 무렵 폐간되고 말았다.

스님은 이후 인연을 따라 현 정토회의 전신인 중앙불교교육원에서 〈월간 정토〉 주간을 맡아 3년간 일했다. 물심양면으로 〈월간 정토〉 발행에 신경을 썼고, 불교 행사장에 갈 때면 배낭에 200권씩 넣어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문서포교에 대한 관심은 중앙승가대에 입학해 승가대 신문사 활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인 스님(전 조계종 교육부장), 초격 스님, 한북 스님 등과 같이 승가대 신문사를 이끌며 총무원과 승가대를 비판 · 견제하는 논조를 유지했다.

스님은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에코 붓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불교사회교육원에서 한국불교사회교육원 기획 실장을 맡으면서 청년불자 의식을 전환하는 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승가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스님은 사회변혁기였던 1990년대 초, 학생회 주최로 환경, 통일, 복지,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어 학인 스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인 재발견운동 일환으로 매달 선정해온 '이달의 문화인물' 에 일연 스님이 선정되면서 불교계는 삼국유사 특별기획전과 특별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때 동출 스님은 화주를 자처해 학인 스님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기금 모연 활동을 전개했다.

그렇게 신바람 나게 학교일을 도맡아 하던 중 불교계 전체가 격분할 일이 발생했다. MBC문화방송에서 조용기 목사가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8개 지역방송을 통해 짧게는 2년 길게는 13년간 선교방송을 해온 것이다. 심지어

〈불교설법전서〉 · 불교만화 등 문서포교
조용기 목사 MBC 선교방송 중단 시키고
17사단 훼불사건 일단락…불교계 '호법신장'
불교활동가상 제정 10년간 27명 지원

MBC라디오에서는 30년간이나 선교방송을 해왔다. 지금이야 공중파 방송의 종교편향 편파방송이 제재를 받지만, 당시에는 종교편향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돼도 묵과되던 상황이었다.

동출 스님은 1992년 전국승가대학 학인연합과 공정방송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MBC 조용기목사 선교방송 중단' 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영주 관음사 故도기 스님, 故김재일 보리방송 모니터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등 사부대중과 규탄대회를 열고 이들과 함께 부산, 광주, 청주 등 18개 지역 MBC 방송사를 찾아가 방송중단 각서를 받아냄으로써 선교방송을 중단 시켰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17사단 군부대에서는 대대장이 불교 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파묻는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전국 승가대 및 사암연합회 등을 비롯한 불교단체는 교권수호협의회를 구성하고 1993년 4월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결의 법회' 를 열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여기서 동출 스님은 규탄연설을 맡았다. 그 결과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이후 1994년 동출 스님은 영담 스님과 교권수호협의회를 '정법구현 불교도협의회' 로 개칭하고 '상무대 비리관련 80억 불사대금 진상조사위' 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다 같은 해 종단개혁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개혁회의 홍보차장, 2005년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역임하고, 이후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를 통해 종단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동출 스님은 기금을 마련해 10년간 불교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월간 〈설법〉 등 문서포교에 전념

동출 스님이 문서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승가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설법연구원을 운영하던 오현 스님이 입적하면서 설법연구원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고, 이어서 운영을 맡은 제주 법화사 시몽 스님과의 인연으로 소임을 맡게 된 것이다. 현재 스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솔바람은 1989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출판 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 무렵 1996년 부터였다.

설법연구원은 설법문안 연구와 함께 다양한 문서포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운영자 부재로 〈불교설법전서〉는 3권까지만 발행되고 완간이 미뤄지던 상황이었다.

강원 학인 시절 많은 스님들에게 포교자료로서 도움이 됐던 〈월간 법회〉가 폐간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동출 스님은 〈불교설법전서〉 10권을 완간했다.

매월 〈설법〉을 펴내는 스님은 "설법문안을 만들어 전국 1000여개 사찰에 배포하고 나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줘 정말 고맙다' 는 연락을 받을 때면 피로가 잊혀지는 느낌" 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기존에 시리즈로 출간되다 중단된 〈전통사찰총서〉 완간을 목표로 삼았다. 19, 20, 21권과 증보판 1, 2권 등 모두 5권을 출간하면서 직접 마무리했다.

그러나 불교서적을 발행하다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판매량이 100여권을 넘기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면서도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출 스님은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첫째로 불교와 종단의 발전에 기여할 내용이라면 반드시 출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불교지도자론〉처럼 꼭 필요하지만 출판사에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열린 '승단의 범계원인과 근절방안' 공청회에서 동출 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동출 스님은 … 1982년 삼각사 삼천사 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와 인천 용화사, 봉암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했다. 1988년 법주사 강원에서 수학 후 1994년에 중앙승가대를 졸업, 2002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월간 정토〉 주간을 거쳐 중앙승가대 신문기자와 학생회장, 한국불교사회교육원 기획실장,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이사, 불교교권수호협의회 집행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 불교 TV 자문위원,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실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설법연구원 원장으로 월간 〈설법〉 출간과 더불어 솔바람 출판사를 운영하며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 만들기는 꺼리는 책을 내야할 사명이 불교출판사에 있다고 생각해 저자들에게 6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발행을 강행했다.

두 번째는 대중포교를 위해 불교만화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스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불교만화 제작을 위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작가들에게 천만원에 달하는 선인세를 지급하며 제작에 뛰어들었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안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 비주얼이 있는 만화를 통해 불교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부터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갈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매진했다. 그 결과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를 비롯해 〈마음 밭을 일구는 사람들〉 〈백유경〉 〈야단법석〉 〈자타카〉 등 10년 동안 17권을 펴냈다. 두 권으로 펴낸 〈생각나무〉는 2012년 '올해의 불서 10' 에 선정되기도 했다.



동출 스님은 20년간 어린이 ·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유익한 불교만화 17권과 70여 권의 불서를 펴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점을 통해 구매하는 독자들은 극소수였고, 사찰에서 포교용으로 대량 구매한 덕분에 겨우 제작비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스님은 2009년 대불련 총동문회와 협력해 군법당 50여 곳에 1000여권의 불서를 보급한 것을 시점으로 2010년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 청소년 법회, 군법당, 교도소, 병원법당에 3000여권의 불교 만화책을 보급했다.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2009년 스님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지금은 신장을 이식해 건강을 되찾았지만 당시에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투병 하면서 출가한 지 30년이 다 되도록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나더러 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수행도 전혀 안 돼 있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안 됐었거든요. 몸이 법당인데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투병 중에도 문서포교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단(丹)〉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작가 김정빈씨와 〈만화로 보는 인류이야기〉 〈만화로 보는 서양미술사〉 등 명쾌한 만화로 유명한 만화가 최병용씨의 합작으로 〈만화불교이야기〉 전5권을 완간해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쉽고 재미있는 만화지만 어른이 봐도 손색없는 '만화 교리 입문서' 다.

책을 통해서 올바른 불교를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매진한 결과, 설법연구원과 솔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법화경〉 등 만화책을 펴냈으며,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나 절판됐던 틱낫한 스님의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를 발간했다. 20년 동안 70여 권의 책이 동출 스님의 손을 거쳐 발간됐다.

청정승가 위한 불서 계획 중

스님은 선방 해제비, 보시금, 장학금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2001년부터 불교활동가상을 제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온 불교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해 왔다. 딱 10회만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총 27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한 뒤 지난 해 말 회향했다.

"항상 불교가 재가불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 복지, 국제구호 이주민 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너무 고마워 상을 제정하게 됐어요. 더 챙기고 싶은 활동가들이 많았지만 모두 챙겨주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출 스님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불교만화서적을 10여 권을 더 발간해 30권을 채울 계획이다. 또한 틱낫한 스님의 책 가운데 불교사상을 알릴 수 있는 책을 번역해 발간하는 꿈도 갖고 있다.

"제가 본 승가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남녀와 승속 모두가 평등하면서도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생기면 공동자산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님들이 사심(私心)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한국 불교계는 어떤가요. 스님들이 진정으로 불교와 종단을 생각하기 보다는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승가는 재가자와 사회로부터 불신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틱낫한 스님의 저서 중에는 대중성은 없지만 이러한 청정승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발간해 멀리서나마 흠모하면서 그 가르침과 사상을 한국사회에 전파하겠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법일기

문자 인연으로 맺어진 불연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법회를 하면서 많은 훈련병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 나이도 20대 후반이라 때로는 형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훈련병들의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여자친구는 잘 지내는지, 또 자신은 잘 지내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의 소식을 잘 지내고 있다고 개별적으로 문자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가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배석호 훈련병 여자 친구인데요, 석호 잘 있나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훈련병의 안부를 묻는 전화라니, 무척 난감했습니다. 여러 명의 안부를 전해주었기에 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가씨의 남자친구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교대 법회 때 그 훈련병을 찾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입대 전에도 배 훈련병에 대해 주변의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배 훈련병은 입대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며 바로 입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여자 친구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거의 매일 이 아가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 훈련병의 소식을 그 아가씨에게 전해주고, 그 아가씨의 소식과 가족들의 소식을 배 훈련병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 훈련병은 법회에서 더욱 열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전방에서 복무하던, 이제는 상병이 된 배석호 훈련병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불자가 됐으며 전방의 법당에 매주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자 그는 다소 화가 난 듯 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법사님, 법사님 덕분에 제가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는 부처님 법을 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배 상병은 전방에 법당을 만들어 놨으면 간식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법회도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저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안 사실이지만 그 전방 법당을 담당하던 민간인 성직자께서 바쁜 일이 있어 3주 연속 법회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전방 법당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배 상병은 자신에게 법회를 진행 할 수 있게 해주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법회를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하더군요. 참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만큼은 꼭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렵던 시절이라 음료수는 엄두를 못 내고 초코파이를 보냈습니다.

배 상병이 법회를 관리한 이후로 저에게는 매주 법회인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취사반 인원과 초소 근무자, 휴가자 등을 제외하면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법회에 매주 15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일반 장병이 주관하는 법회로는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초코파이(당시에는 한 달에 200박스 정도를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왔지



그림 · 박구원

만, 군종장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장병이 알아서 잘하니 기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부대 대대장이 전화를 해서 배 상병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회를 잘 진행할뿐더러 병사들 상담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병 때 그 절실했던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장병들의 마음을 다독여 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배 상병은 부대에서 마음이 맞는 불자 장병들을 모아 모금을 해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돕기도 진행했습니다.

힘들었던 훈련병 시절,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들을 불자로 만들고, 또 그들이 다른 불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니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배 상병은 이후 제가 그 부대를 떠나고 두 달쯤 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연락이 뜸하지만 어디에선가 불자로서 활동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美 앨라배마 주 버밍엄, 달라이 라마 열기



14대 달라이 라마. 그는 오는 9월 24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Alabama) 주의 대도시 버밍엄(Birmingham)를 처음 방문한다.

14대 달라이 라마 버밍엄 9월 24일 첫 방문

윤리·인권계, "인종 간 소통의 길 넓히는 계기 될 것"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달라이 라마가 오는 9월 24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Alabama) 주의 대도시 버밍엄(Birmingham)를 처음 방문한다"고 전제한 〈AL〉 지는 "달라이 라마의 첫 방문 7개월을 앞둔 버밍엄 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의 첫 방문의 의미를 조명하는 논의가 불교계는 물론, 특히 윤리,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월 4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는 버밍엄 불교계의 지도자인 텐진 프리야달쉬(Ven, Tenzin Priyadarshi) 스님이 '시민의 권리'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시민운동의 흐름을 소개'한 텐진 프리야달쉬 스님은 "모든 인간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며, 앨라배마 주의 인종 간 소통을 호소하는 한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자치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알리는 데 노력했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 내에서 '윤리와 가치를 위한 달라이 라마 센터(Dalai Lama Center for Ethics and Values)'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텐진 프리야달쉬 스님은 2002년부터 메사추세츠공과대학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버밍엄 시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버밍엄 시는 미국의 첫 번째 가치인 '시민의 권리'라는 무형의 유산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이어온 유서 깊은 도시"라고 강조한 윌리엄 벨(William Bell) 버밍엄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또 소외 계층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 등이 버밍엄 시정의 주요 과제"라며 "이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과의 문제에서 티베트인들의 나침반으로서 살아온 달라이 라마의 첫 방문을 기대하는 이유이자, 그의 가르침 속에서 '버밍엄 시정의 방향을 생각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목화의 주(州)'로 잘 알려진 앨라배마는 전체 인구에서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이상"이라고 전제한 〈AL〉 지는 "매년 일종차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앨라배마 주에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은 작게는 버밍엄 시, 크게는 앨라배마 주에서 '인종 간 소통의 길을 열자'는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고 설명했다.

"어린 시절 인종적 편견 속에서 자란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자기 회의'가 불교를 통해 치유될 수 있었다"는 버밍엄 샴발라 명상 그룹(Birmingham Shambhala Meditation Group)의 조셉 라무르(Joseph Lamour · 58) 씨의 말을 인용한 〈AL〉 지는 "인종 차별로 두려움과 절망에 직면하는 시기에 불교는 라무르 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종교"였다며 "달라이 라마의 방문은 앨라배마 주의 대도시 버밍엄(Birmingham)에서 '인간은 모두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이 고통을 면하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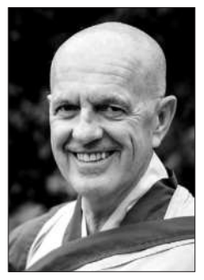
이밖에도 〈AL〉 지에 따르면 버밍엄 예술박물관(Birmingham Museum of Art) 4월 27일부터 '티베트 불교유산'을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석 큐레이터 도날드 우드(Donald A. Wood) 박사는 "티베트 불교유산 전에서는 탕카, 만다라 등 티베트 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 유물을 비롯해 14대 달라이 라마의 소장품 등 2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라며 "버밍엄 시민들이 티베트와 그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죽음에서 마음의 평화 찾다

美 켈상 티로파 스님, 샬롯 시민 신심 다잡아



'죽음'이란 주제는 사람들이 대화 주제로 삼기에는 다소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샬롯(Charlotte)에서 "죽음이야 말로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는 한 스님이 있다.

〈City News〉 지가 4월 3일 "샬롯의 바즈라드하라(Vajradhara) 불교센터의 원장 켈상 티로파(Kelsang Tilopa) 스님〈사진〉이 '죽음과 그 한계를 넘어(Death and Beyond)'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으로 눈에 띄는 포교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ity News〉 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 나머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켈상 티로파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스님은 이번 특강을 통해 샬롯 시민들이 죽음을 넘어 내면의 연민과 자비를 끄집어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벽안의 청중 역시 이에 반응하고 있다"며 특강 분위기를 전했다.

"샬롯 시민들에게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선보이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는 켈상 티로파 스님은 "죽음을 생각할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이지만, 그 과정을 밟고 나면 죽음에 긍정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현재의 생활에 더욱 노력하는 지신 역시 찾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며, 명상을 통해 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켈상 티로파 스님은 "우리의 몸은 유한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명상은 그 마음을 편온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L.A. '히말라야 불교미술' 展 성황

1300여 년 전 불교미술 40여 점 등 총 150여 점 전시



탕카. 티베트 탕카(thangka). 이번 전시회에는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던 탕카는 6.1미터에 달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히말라야 불교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가 성황이다.

〈Liberity Voice〉지는 "파사데나의 노턴 사이먼 박물관(Norton Simon Museum in Pasadena)이 오는 8월 25일까지 개최하는 '히말라야의 불교미술전(Buddhist Art of the Himalayas)'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보도했다.

3월 28일부터 인도, 티베트, 네팔 등지의 1300여 년 전의 불교 조각과 회화 작품 40여 점을 비롯해 150점을 선보이며 진행되고 있는 '히말라야 불교미술' 전은 태평양 아시아 박물관(Pacific Asia Museum)과 아시아 미술 박물관(Asian Art Museum) 등에 소장된 히말라야 불교미술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회에서 6.1미터에 달하는 대형 탕카가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는 노턴 사이먼 박물관의 레슬리 덴크(Leslie Denk) 대변인은 "기대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전시회가 끝나는 8월 25일까지 히말라야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패션쇼, 무대공연, 연주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사데나 올드 타원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노턴 사이먼 박물관'은 1975년 노턴 사이먼 경의 소장품을 근간으로 설립된 박물관으로 인도 네팔 등 아시아 남부 지역의 고대 불상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관련 학계와 관람객의 각광을 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국' 미얀마 인구조사서 무슬림 제외 논란

로힝야족 불법 이민자로 간주…"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아"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는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불교국가 미얀마 정부가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이 제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인구조사를 지원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은 4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구조사는 국제적 기준과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논란이 된 것은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처리 문제다. 미얀마 정부는 인근국가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이주민의 후손인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1983년 이후 30여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인구조사에서도 로힝야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현재 경찰, 군인을 대동한 채 각 가구를 방문 중인 미얀마의 인구조사팀은 인종을 묻는 질문에 '로힝야'라는 답이 나올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뒤, 다른 가구를 방문한다는게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로힝야족이 자신들을 방글라데시 출신자를 뜻하는 '벵골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통계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미얀마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국민의 절대다수인 불교도들의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불교도들은 이번 조사에 로힝야족에 대한 통계가 포함될 경우 공식적으로 미얀마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최근 일부 불교도들은 라카인주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이 로힝야족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과 주거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불교도와 로힝야족 사이의 종교 분쟁으로 200여명이 숨지고 14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한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UNFPA는 "인구조사에서 로힝야족을 제외하면 라카인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인구조사 자체의 신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3월 31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일반 시민과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을 당부한 뒤 "인구조사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깨달은 템플스테이 하루

- 깨달은 108배 수행 (20분)
  표정+자세+호흡법+알아차림+깨달은절
- 염불+독경 (자세+호흡법+운율법 완벽 : 30분)
- 놓아버림 참회명상 (10분) : 텅텅비움, 우주와 하나되기
- 고마움의 감사명상 (10분)
  우주법계 모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기
- 참마음 참나명상 (10분) : 즉석에서 누구나 불성체험
- 미소명상 (10분)
  삼매체험 제일 쉬운길! 행복호르몬 쏟아짐
- 태양오로라 명상 (10분) : 자신의 찬란한 오로라 즉석체험
- 절교육, 절수행점검 (1시간)
- 행선,와선,도인체조 명상 (1시간)
- 수행법문 (30분)
  마음의 구조와 작동원리, 수행비전, 심신건강원리

※ 수행중 숨을 어깨, 가슴으로 역호흡하면 머리와 몸에 병이 온다

▶ 청견스님 직접 수행 지도
▶ 시간 : 매주 화 ~ 일 오전10시 ~ 오후 4시(월요일 휴무)
▶ 비용 : 무보시 원칙, 자율보시 가능
▶ 주소 :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4-23 다비치 5층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 전화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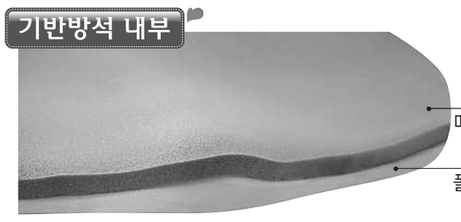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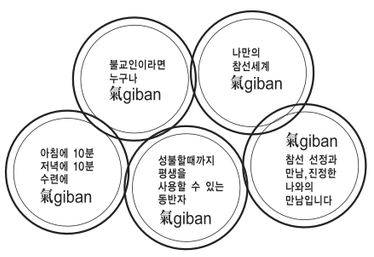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www.shcandle.com

2014년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원기둥연꽃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29cm)



밀납원기둥 연꽃나비

원 기 둥 108나비



3×6 꽃과나비



원기둥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7.4∮×29cm)



우리향,미연향,무향



쑥향,백목향,목향



설죽매,인삼향,대발향

신제품



원기둥금나비



밀대나비



육각초나비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라일락향



향수림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 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 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문화 단신

‘내 마음의 고향’ 기술 시사회

국제영화제 출품 시도… 가을 개봉 예정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상으로 옮긴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이 4월 1일 충무로영상센터오재미동 소극장에서 기술 시사회를 가졌다.

그동안 제작비 부족으로 촬영에 난항을 겪어 오던 박 감독은 촬영을 마치고 시사회를 가졌다. 박 감독은 “개봉은 가을 즈음 할 예정이지만 불교계 언론에 미리 보여주고자 시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칸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상하이 국제영화제 등 국제 영화제에 출품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영화는 1949년 개봉된 최초의 한국 불교영화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했으며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했다. 어려서 절에 버려진 동자승 도성의 이야기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도성의 갈등과 번뇌를 다루는 휴먼감성 드라마다. 정혜숙 기자

‘서도’는 마음을 찾아가는 수행의 길

원법 스님 팔순 기념전… 4월 11일까지 대전갤러리서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법 스님의 팔순 기념전이 대전갤러리에서 4월11일까지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1.5평의 방에서 30여년 간 작업해온 서예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서도(書道)는 마음을 찾아가는 수도의 길이라고 스님은 전한다. “수행의 한 방편으로 먹을 갈고 붓을 잡아 온 시간이 30여년인데 이 시간 또한 참으로 은혜로운 삶이었으며, 이 길에 동참해온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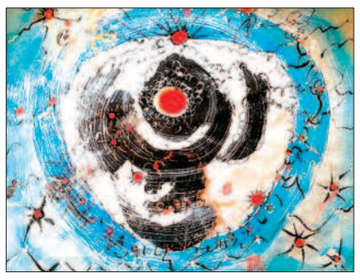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서(書)와 다(茶)를 화두로 삼아 현대인들이 생활속에서 마음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042)220-0514 정혜숙 기자



원법 스님의 팔순 기념전이 대전갤러리에서 열린다.

해피 만다라 동휘 스님 ‘빛을 쏘다’ 展

4월 16일~22일 아라아트센터서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해피 만다라 동휘 스님이 ‘빛을 쏘다’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4월 16일~22일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옴’의 빛을 그린 작품을 기본으로 ‘해피불’ 등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동휘 스님은 “해피불은 빛나는 생각, 빛나는 말, 빛나는 행으로 스스로를 빛나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주변도 빛나고 행복하게 하는 수행자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스님은 “또한 작품에서 내가 말하는 ‘옴’은 ‘빛의 씨앗’을 의미하며, 깨달음의 빛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4월 16일 개막 행사 때는 인사동 문화거리 중심에서 총 길이 108미터의 긴 천에 작품을 직접 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010-8560-7731 정혜숙 기자

뭇 중생 소리 佛音에 담아

박범훈 교수 봉축 기념 ‘뭇소리 찬불가 공연’



“뭇소리는 중생들의 소리입니다. 억겁의 인연을 맺어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뭇소리죠. 그래서 찬불가는 법당 혹은 법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는 생활 속의 음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노래방 등에서 부르면 더 큰 뜻이 있겠죠. 뭇소리 찬불가 음반제작과 악보집 발간을 기념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찬불가가 일상생활속에서 널리 불리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음악가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4월 16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뭇소리 찬불가 연주회를 개최한다. 불교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연주회는 찬불가 악보집 출판과 음반 출반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건립 기금으로 기부돼 그 의미를 더한다.

뭇소리 찬불가란 뭇사람들이 모여 불보살을 찬탄 · 공양하는 소리를 뜻한다. 이는 곧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부르는 생활 찬불가를 의미한다. ‘박범훈 뭇소리 찬불가’ 음반과 악보집을 동시에 내놓은 박 교수는 이번 작업을 통해 생활 속 찬불가가 널리 불리어지기를 발원한다.

“34곡의 찬불가를 음반으로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국악반주로 제작된 찬불가와는 전주, 간주, 합창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상용보다는 찬불가를 배우고 시김새 등을 참고 하는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뭇소리찬불가 악보집은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피아노 반주를 붙여 34곡의 찬불가 악보집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음악과 국악을 전공한 박 교수는 찬불가는 국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서양음악의 모태를 기독교로 본다면 동양음악 특히, 우리의 국악은 불교음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현재, 국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는 영산회상, 회심곡, 염불 등의 불교음악이 대표적으로 연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창작되는 찬불음악은 새로운 국악곡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불가의 보급은 새로운 창작국악의 보급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찬불가 운동을 통해 우리 국악을 널리 알리고자하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계의 대가인 안숙선, 김성녀, 김영임, 최수정, 최진숙, 민은경, 박애리 명창 등과 도신 스님이 출연 ‘산사의 봄’ ‘놓아라 삼세인연’ ‘무상계’ ‘연꽃향기 누리가득히’ ‘원왕생가’ ‘날마다 좋은날’ 등을 공연한다.

음반제작 · 악보집 발간 기념
“노래방에서 찬불가 불렀으면”
수익금 전액은 탄자니아
학교건립 기금으로 기부
4월 16일 국립극장서





불교음악가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4월 16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뭇소리 찬불가 연주회를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박범훈 교수 공연 장면, 오른쪽은 악보집.

지휘에는 김희경(조계사 혼성 합창단 지휘자), 조원행(불광사 마하보디), 한정일(관문사 합창단 지휘자), 유훈석(중앙대 음악대 합창단 지휘자) 등이 참여한다. 특별출연으로는 사회에 덕신 스님, 승무에 김묘선,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한다.

한편, 박범훈 교수는 중앙대 음대를 졸업하고 일본 무사시노 음대 작곡가와 동대학원에서 음악연구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에서 불교음악의 역사적 고찰과 실체를 연구 박사학위를 받았고 30년 동안 불교음악 연구와 작곡에 전념해왔다. 저서 〈한국불교음악역사〉를 통해 불교음악의 역사적 학문적 기틀을 세웠고 국악 교성곡 ‘붓다’, ‘보현행원성’ 등 한 시간이 넘는 대작품 5편과 이번 출반한 찬불가 34곡을 작곡했다. 중앙대 총장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대 명예교수와 문화재단 뭇소리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02)2011-1920 정혜숙 기자

불화(佛畵), 전통으로 피어나다

탑골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전…5월 21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종로구 경운동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4월 8일~ 5월 21일(수)까지 기획전 ‘불화(佛畵), 전통으로 피어나다’를 연다.

이번 불화전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임석환 작가와 그의 제자 7명이 작가로 참여한다.

임석환 작가는 故혜각 스님으로부터 단청을, 故혜암 스님으로부터는 불화를 배운 장인이다. 2005년 무형문화재 단청장으로 지정받았으나, 그 내용과 기법이 단청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2006년에 분리되어 불화장으로 지정되었다.

임석환 작가는 “불화는 붓 손질 한번, 선 하나에도 정신과 혼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자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불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이를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수행의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시대의 문화재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열정과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불화의 의미를 전한다.

무형문화재 118호 임석환 불화장
영산화상도 · 신중탱화 등 전시
부채그리기 등 체험코너도

전시에서는 작가의 보신석가모니불, 신중탱화, 영산회상도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임석환 선생의 스승인 故혜암 스님이 1920년대 처음 기초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렸던 습화(習畵)와 그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초(草)가 함께 전시된다. 이 ‘습화’와 ‘초’는 최초로 전시되는 것으로 전통미술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참여 관람객들이 다양하고 화려한 전통문양을 부채에 직접 그려보고 자신의 띠에 맞는 십이지신을 액자에 그려볼 수 있는 체험도 진행된다. (02)6911-96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임석환의 ‘영산회상도’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접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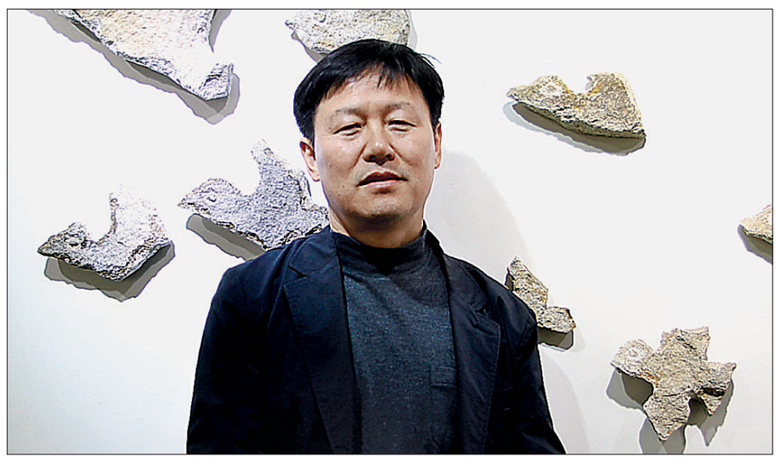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문화人

“돌은 생명체… 온기 느껴요” 망치질은 비우고 또 비우는 구도

‘함박웃음’ 전 여는 오채현 작가


‘함박웃음’ 전을 여는 오채현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석의 美 그대로 살린
불상은 작가 내면의 거울
4월 25일까지 금산갤러리서

“예술가의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 구도의 과정이죠. 어떤 세계를 구축해야 작가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자신이 도달한 세계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평생 작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비우고 또 비우는 구도의 과정과 같죠.”

오채현 작가의 개인전 ‘함박웃음’ 전이 서울 중구 소공로 금산갤러리에서 4월 25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새, 佛, 성모, 호랑이, K氏, Happy tiger Ⅱ 등 화강암으로 조각한 작품들을 통해 너털웃음과 같은 따뜻하고도 푸근한 삶의 온기를 전해준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날아가는 구도의 과정을 담은 ‘새’다. 화강석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벽면에 배치한 이 작품은 지난 5년간 미국 뉴욕갤러리에서 3번의 전시를 열며 현지인들에게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서양 작가들은 돌을 단순히 소재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돌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죠. 돌을 보고 만지면 온기가 느껴지고 피가 흐르는 것만 같아요. 그만큼 애정이 가요. 그래서 돌의 느낌을 온전히 살리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을 해요.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 벽면에 배치한 작품에 뉴욕 관람객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돌로 미술작업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노동과 같다고 말하는 오 작가. 그래서 톱으로 돌을 자르고 깨고 하는 작업은 일종의 수행과도 같다. “돌을 조각하는데에는 왕도가 없어요. 정말 단순한 작업이고 정성을 기울인 만큼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게 끊임없이 망치질을 반복하며 작업하다보면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어느새 하나의 작품이 완성돼요. 결국 단순하고 성실하게 작업해나가야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가 작업한 얼굴은 둥근 달덩이와 같고 표정은 저마다 미소를 머금고 있다. 특히 불보살의 얼굴은 그 평온함과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온다. 또 그 표정들은 작가의 얼굴과도 닮아 있는듯하다. “얼굴은 현재의 삶이 반영되는 거울과도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내면 혹은 삶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작품이기도 하죠. 작가의 생각과 내면이 그대로 발가벗겨져 나오는 것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조금도 삶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늘 자신을 경계하며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작품에 임하는 오채현 작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상 작업에 임한다고. 이런 마음이 담겨 있기에 작가의 작품들은 많은 스님들에게 사랑받는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유명 사찰에 그의 작품 하나는 있을 정도라고 하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번쯤은 이 미소 머금은 작품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평창 월정사, 청도 운문사, 서울의 조계사 봉은사 상도선원, 안양 한마음선원 등 전국 유명 사찰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00년도에 조계사에서 33석불 조각전을 열었어요. 한창 불교계가 시끄러울 때였는데 우리 불교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 전시였죠.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때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스님들이 이제 불교계의 중진이 되시면서 사찰에 불상을 점안할 때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하나 둘 작업을 하다보니 제 작품을 전국 사찰에서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그렇게 꾸준히 작업을 거듭해 나간다는 오채현 작가. 평생 버리고 또 만들기를 반복하며 하나의 큰 나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아득한 길 위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02)3789-631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앞을 향해 끊임없이 날아가는 ‘새’는 구도의 과정을 말한다.


온화한 미소로 중생을 위로하는 ‘佛’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법이니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⑮ 금산사 (上)




신라때 진표율사가 중창한 금산사. 미륵전과 방등계단이 도량의 중심이다.

개산 1300년 넘은 법상도량

전북 김제 금산사는 모악산(母岳山 794m)을 병풍처럼 배경삼아 자리한 고찰이다. 1635년에 지어진 〈금산사사적〉에는 이 절이 서기 600년(백제 법왕2)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1492년에 씌어진 〈금산사5층석탑중창기〉에는 과거불인 가섭불 때의 절터를 중흥시켰다고 하여 이 절이 불연(佛緣) 깊은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산사는 진표율사(眞表律師 ?~?)에 의해 신라 경덕왕 때인 762년에서 766년 사이에 중창되며 법상종의 근본도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많은 보수와 중건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지금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다. 미륵전(국보 제26호)을 비롯한 많은 국보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근래 개산 13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불사와 학술행사 등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량을 단장했다.

금산사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량의 배경이 되는 모악산은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신흥종교의 발상지로도 이름났다.

문설서방성(聞說西方聖)
금광장륙신(金光丈六身)
삼한류묘상(三韓留妙相)
일거화병진(一炬化兵塵)
보개운공영(寶蓋雲空影)
천화냉자춘(天花冷自春)
대천첨앙지(大千瞻仰地)
단시정하인(檀施定何人)

이야기 들어 보면 서방의 성인께선
황금색에 신장이 일 장 육 척이시라고.
백제(百濟) 때부터 전해 온 오묘한 불상
병란(兵亂)으로 불길에 휩싸였다네.
보개엔 구름만 그림자 드리우고
떨어지는 하늘 꽃 냉기 속에 봄빛이라.
삼천대천(三千大千) 중생들이 우러르는
이 불상에
시주(施主)할 이 정녕코 그 누구일까?

이 시는 조선 중기의 문신 장유(張維 1587~1638)가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 〈계곡선생집〉 27권에 실려 있다. 장유는 정묘호란(1627) 때 왕을 강화로 모시고 갔으며 이조참판, 부제학, 대사헌 등의 벼슬을 지냈다. 병자호란(1636) 때는 공조판서였는데 최명길과 함께 강화론을 주장했다. 학문적으로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했다.

위의 오언율시는 제목이 ‘금산사의 일장 육척짜리 황금색 불상이 왜란(倭亂) 때에 소실(燒失)되었는데 이 절의 승려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기에 시 한 편을 짓는다[金山寺丈六金像㘝於倭 ㄹ寺僧將復經始爲成一詩]’이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불상을 다시 조성하려는 금산사 스님들의 원력에 붙인 시인 셈이다.

일 장은 3m가량이고 육 척은 180Cm 정도이니 일 장 육척은 480Cm 가량 된다. 높이가 5미터 가까이 되는 불상이라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기가 웅장한 불상을 장륙상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 말하는 장륙상이 오늘의 미륵전 안에 모셔진 미륵존상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무튼 장유에게는 임진왜란에 의해 불탄 거대한 불상을 다시 조성하려는 금산사 스님들의 원력이 감동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휩쓸고 간 뒤의 척박한 조선 땅에서 그 불사에 과연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 은근히 걱정하는 마음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천리 길을 달려 온 스님을 위해

장유는 유학을 본분으로 삼는 선비지만, 스님들과의 교유 또한 도타웠던 모양이다. 그의 문집 〈계곡선생집〉 28권에 이런 시가 있다.

호산해후지(湖山邂逅地)
일숙증시정(一宿贈詩情)
부도황진리(不道黃塵裡)
환번백족항(還煩白足行)
유마잉장실(維摩仍丈室)
사위즉왕성(舍衛卽王城)
취산수연재(聚散隨緣在)
녕논천구맹(寧論踐舊盟)

호남의 산야에서 그대를 만나
하룻밤 자면서 시로 정을 표현했지.
누런 먼지 자욱한 속세 속으로
백족의 걸음 옮길 줄은 전혀 뜻밖이오.
유마는 그대로 방장실(方丈室)에 앉아 있고
이 곳 도성이 바로 사위성(舍衛城).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법이어니
옛날 약속 구태여 지킬 필요 뭐 있겠소.

이 시의 제목 자리에서는 시를 지은 배경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즉 ‘계해년에 내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호남에 내려갔다가 전주(全州) 들판의 사찰에서 시승 회옥을 만나 하룻밤을 묵고 이별 선물로 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 뒤로도 가끔씩 소식을 전하며 서로 안부를 묻곤 하였다. 그런데 올해도 다 저물어 가는 매우 추운 날에 내가 병가원(病暇願)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홀연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옥 상인이었다. 내 얼굴을 보려고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서 달려오다니, 아, 속세에 정을 두지 않는 산승(山僧)의 처지에서 어떻게 이토록 곡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에 가슴이 뭉클하게 감동된 나머지 마침내 옛날의 운을 써서 시를 지어 주었다.[癸亥歲 余奉使湖南 完山野寺 邂逅詩僧懷玉 留一宿 贈詩而別 厥後時時寄聲相問 今年臘盡寒甚 余方移疾家居 忽有敲門者 問之乃玉上人也 爲訪余不遠千里而至噫 山人非有世情 一何懃懃至此哉 感 叱餘 遂用舊韻以贈]’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또 시의 말미에는 ‘옛날 건네 준 시에 “연사의 맹약 저버리지 말지어다”라는 표현이 있었다[原韻有蓮社莫寒盟之語]’는 설명을 달고 있다. 마지막 ‘옛 맹세[舊盟]’에 대한 설명이다. 한 편의 시를 짓기까지 그 과정을 자상하게 붙이는 예는 선비들의 문집에 자주 보이는 일이다.



천 비 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 비 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 비 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d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절찬리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6 ~ 4/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5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아	불광출판사
6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목경찬	불광출판사
7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8	일체경계 본래일심	정목	비움과소통
9	내게 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라(기억에 남는 명법문)	편집부	불광출판사
10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깨달음의 순간들이 빚어낸 언어, 선시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3천원



구름과 산을 바라보다가 나를 잊어버리는 경계를 만난다면 그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자는 '선(禪)' 일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다. 그 쉽지 않은 순간에 떠오른 문자와 그 순간을 문자로 옮긴 문장들이 있으니 '선시(禪詩)' 이다. 책은 현재 조계종 종회 의장 소임을 맡고 있는 향적 스님〈사진〉이 가야산 해인사 지족암 법회에서 신도들과 함께 읽던 선시와 해설을 붙여 엮은 것이다.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를 짤막한 율문으로 나타낸 선시는 선사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역대 선사들의 126편의 선시를 싣고 있다. 불교의 한 유파인 선은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유를 포용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철학에서 논리적 사고를 제거하고, 예술이 형식과 기교를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선시는 '선' 과 '시' 가 만난 것으로, '선과 시', '선적인 시', '선의 시적 표현' 등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겠다.

"예술의 본질은 시 짓기다. 그러나 시 짓기의 본질은 진리의 정립이다." 저자는 선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이데거를 인용했다.

곧 선시는 진리,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다. 선사들은 오도송이나 열반송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남겼다. '불립문자교외별전' 의 가풍을 이어온 선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시는 '소리 앞의 한 구절' 이자 '소리 뒤의 한 구절' 이고 나아가서는 '소리 밖의 한 구절' 인 것이다.

"몰록 하룻밤을 잊고 지냈으니 / 시간과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 광명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구나!" (동곡 일타 스님의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저자의 은사인 일타 스님의 시로 시작되는 책을 열면 일반적인 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한 번 확장된 언어의 세계(시)를 만나게 된다. 의문을 품게 하는 독백, 답이 있을 수 없는 의문, 평범한 단어 뒤에 숨은 진리, 답이면서 물음인 깨달음. 끝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선시는 바라보는 만큼 다가온다.

태고, 나옹, 성철, 일타 등 저자가 법회 때 소개했던 선시 126편과 해설 묶어

깨달음의 순간들이 빚어낸 한 편의 선시를 읽고 나면 향적 스님의 키질 같은 해설이 이어진다.

날아가야 할 것들은 바람결에 날려 보내고 정성스레 골라낸 알맹이를 읽는 이의 손바닥에 담아준다. 책은 원문(한시)을 우리글로 옮기고 원문을 함께 실었다. 그리고 저자의 느낌과 해설을 잇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선시' 라고 하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저자는 "젊은 세대일수록 선시 읽기를 기피하는 것 또한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은 한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자만의 맛이 있다." 고 말한다.

책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에는 선시를 어려워하는 젊은이들도 큰 어려움 없이 흥미를 가지고 선시를 접했으면 하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선시는 선사(禪師)의 정신적 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향적 스님은 선사들의 깨달음의 경계가 담긴 선시들을 암송하면서 잠시나마 풍진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유사 이래로 많은 선사들은 깨달음을 읊은 오도송,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열반송, 법을 전하는 전법게 등의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남겼다. '선시' 의 특징은 모든 형식과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다.

때문에 조화와 논리, 목적 등의 조작과 자유분별이 허락되지 않는다. 선사들은 선시를 통해서 정신적인 자유를 지향했던 것이다.

저자는 이 선시해설집에서 독자들과 선시를 통한 정신적 교감을 지향하고 있으며, 선시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선시를 통해 현실 생활의 무료함이나 삭막함을 잠시나마 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가을 깊어 지팡이 짚고 산에 오르니 / 바윗가에 단풍은 불타는 것 같네 / 조사서래의 분명한 뜻은 / 일마다 물건마다 앞다투어 두루 밝히고 있네" (나옹 혜근 스님의 '붉은 단풍잎마다 조사의 뜻은 드러나고')

책에는 진각, 원감, 태고, 함허, 성철 등 이름만으로도 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선지식들의 보석 같은 선시가 실려 있다. 문장 끝에 바로 뜻을 밝히지 않는 선시는 그 나타나지 않는 '의미' 들을 찾아 나서게 해주는 데 맛이 있는 듯하다.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일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게 하는 책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벗어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명정 스님 '내생까지 이어갈 공부'

2014 극락호국선원 시리즈-전 5권

극락호국선원 발행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삼소굴일지(명정 역주) 2만4천원 | 경봉스님말씀(명정 역주) 2만원 | 차이야기 선이야기(명정 저) 1만8천원 | 신심명(명정 역주) 1만8천원 | 경허집(명정 역주) 2만원





스승 경봉 스님(사진 오른쪽)을 모시던 시절의 명정 스님(사진 왼쪽).

스승 경봉 스님의 〈삼소굴일지〉 〈경봉 스님 말씀〉 외 3권

한국 근대 선지식인 경봉 스님(1892~1982)을 시봉했던 명정 스님(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선원장)은 틈틈이 스승 경봉 스님의 수묵집과 일지, 편지글 등을 엮어왔고, 〈경허집〉, 〈한암집〉, 〈신심명〉 등의 번역서를 냈으며, 선가의 이야기를 풀어 낸 〈차이야기 선이야기〉, 〈법해〉 등을 통해 선방이야기를 다양하고 밀도 있게 그려낸 바 있다. 또한 2012년 경봉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전 수행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집〈향성〉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5권의 책은 당시 함께 엮고자 했던 것을 전집으로 묶은 것이다.

"오전 2시 30분 조사선의를 깨닫다. /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 허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 우담발화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누나"

경봉 스님의 〈삼소굴 일지〉는 1927년 12월 7일부터 시작하여 1976년 4월 2일까지, 경봉 스님의 50년 동안의 기록이다. 선사 나이 36세에서 85세 때까지의 흔적으로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가장 원숙한 시기의 기록들이다. 머리말에서 법정 스님은 "출세간에 몸을 담은 수도인이 자기 내면의 세계와 밖으로 관계된 일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 낱낱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지를 써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여간 부지런하지 않고는 꾸준히 지속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반세기에 걸쳐 일지를 기록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선사의 근실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고 스님을 회상했다. 또한 이 일지는 세상에서 흔히 쓰는 일기와는 그 바탕이 다른 것으로 사건의 기록도 없지 않지만 주고받은 법담과 감회들이 격외의 시로써 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192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시절의 눈푸른 납자와 선지식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일지를 통해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료이다.

"비가 와도 물은 고여 있지 않고 구름이 일어도 자취를 찾을 수가 없고 바람이 불고 새가 노래하더라도 그 자취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상이 모두 이러한데 무엇을 두려고 할 것이 있겠는가. 두려고 하여도 둘 것이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곳이 없다. 만물이 다 이러하니 두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요 영원히 전하려 하는 것도 망상이다. 산은 높고 물은 흘러가고 새는 지저귀고… 이러한 속에서 다만 가가소(呵呵笑) 가가소(呵呵笑)로다."

〈경봉 스님 말씀〉은 경봉 스님의 설법을 수록한 〈법해〉에 이은 두 번째 법문집이다.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 보거라." 하시며 가신 다정다감하셨던 선사의 공부를 볼 수 있다. 1975년부터 선사의 어록이 법보시판으로 간행되었는데 유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선사의 선지를 널리 펴기 위해 다시 간행한 것이다.

〈경허집〉은 경허 스님의 저술로 선문 법어의 깊은 뜻과 묘한 구절들을 볼 수 있다. 만해 스님은 머리말에서 "술집과 시정에서 읊조렸으되 저속하지 않으며 비바람 눈보라 치는 텅 빈 산에서 붓을 잡아도 세간을 벗어난 것만도 아니어서, 종횡으로 힘차고 생소하거나 숙달되었거나 걸림 없이 문장마다 선이요, 구절마다 법이어서 그 법칙이 어떠한 것을 논할 것도 없이 실로 일대의 기이한 글이요 시구다." 고 했다.

"우리는 곧잘 '차와 선은 한 가지 맛' 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 명정 스님의 글 속에는 고요한 밤, 홀로 앉아 마시는 차인의 차 맛이 있고, 구름 따라 물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납자의 외로움과 걸림이 없는 선의 경지가 있다."

명정 스님이 쓴 〈차이야기 선이야기〉는 진정한 차 맛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의 깊은 맛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글이다. 명정 스님의 차와 선이야기는 글쟁이들의 글과는 다르다. 얄팍한 수필류와도 전혀 다르다. 스님의 글 속에는 서툴지만 인생을 갈구하는 진지한 눈이 있고, 외길 가는 구도자의 아픔이 있고, 홀로 차를 마시는 차인의 텅 빈 마음이 있다. 그리고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한 번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선승의 예지가 있다.

〈신심명〉은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스님의 글로, 선과 중도 사상의 요체를 사언절구의 게송으로 간명하게 밝힌 선종의 보전이라 할 수 있다. 명정 스님이 읽어주는 〈신심명〉이다.

명정 스님은 "이번 책 5권은 스스로 부족한 수행의 내면이기도 하며 내생에까지 이어갈 '공부' 이기도 하다." 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웃으면 화 풀리고 더 웃으면 인생도 풀려”



인생아, 웃어라

원영 지음
갤리온 펴냄
1만4천원

신도= “스님, 너무 화가 나요. 제 잘못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고요.”
스님= “에이,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그 놈 전화번호 대.”
신도= “네? 왜요?”
스님= “왜긴 왜야. 야~ 이 나쁜 놈아 너나 잘해. 자기도 못하면서 누굴 괴롭혀. 이렇게 대신 욕해 주려고.”
신도= “하하하, 내가 못 살아. 그래도 속은 후련하네요. 고맙습니다, 스님.”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풍경’을 진행하며 수많은 청취자의 사연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해 정성스레 답해 주는 원형 스님. 스님은 청년출가학교 지도 법사로 활동하며 마음이 아픈 청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사람들의 답답한 고민을 늘 곁에서 함께한다. 이 책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꾸만 화가 난다는 이들에게 전하는 속 원형 스님의 시원한 인생 상담 33가지를 묶은 책이다.

‘죽음을 앞둔 암 환자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그래도 화가 난다면 마지막 한 마디를 꿀꺽 삼켜라’ ‘용서,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인생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 등 삶과 사랑,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오늘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담겨 있다.

원영 스님은 아무리 사소한 고민이라도 잘 들어주며 맞장구쳐 주고,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라 해도 억울하다면 “제가 대신 욕 좀 해 드릴까요?”라며 무작정 그 사람 편이 되어 주는 ‘편파적인’ 스님이다. 그가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번이라도 더 웃길 바라서다.

스님은 말한다. “열심히 살아도 꼬여만 가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다면 저를 믿고 한 번 웃어 보세요. 웃으면 깨닫게 됩니다. 웃을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을 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웃을수록 똑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 지루하고 짜증 났던 일도 재미있어진다는 것을요. 웃으면 화가 풀리고, 한 번 더 웃으면 인생이 풀립니다.”라고.

원영 스님의 인생 상담을 얼핏 들어보면 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속상해 하는 사람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그가 억울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대신 욕해 줄까?” 하고 나서는 것이다. 시원하게 욕도 해 주고 사건을 직접 해결해 주겠다며 설쳐 대면, 사람들은 한술 더 뜨는 스님이 우스워서라도 한바탕 웃고는 마음을 풀어 버린다.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속의 답을 찾아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때론 유쾌한 스님의 독특한 상담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스님은 웃으면서 말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는 정말 대신 나서서 욕해 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고, 다들 ‘쿡’ 하고 웃으며 마음이 풀린다고 했으니 꽤 효과적인 상담법이 아니냐고.

하지만 원영 스님이 처음부터 남들을 웃게 만드는 밝은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잘 웃지 않고 말수도 적은 데다가 남들이 보기에 어두운 여자아이였다.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이 너무 싫었고, 유쾌하지만 경제적으론 너무나 무력한 아버지, 고생만 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꾸만 분노가 치밀었지만, 먹고사는 일에 힘겨워 지친 어른들에게 투정까지 부릴 수는 없었기에 화를 꾹 눌러 버린 까닭이다. 그렇게 분출되지 못한 화는 조금씩 삶을 갉아먹었고, 결국 말없이 땅만 보며 걷는 아이가 된 것이다.

무조건 내 편 돼주는 인생 상담 33건
“삶서 즐거움 발견하면 인생 재밌어”
불교방송서 ‘아침풍경’ 진행도 맡아

어두운 성격은 열여덟 살에 은사 스님을 만나면서 바뀌었다. 집을 떠나 절에서 살게 된 그 해, 원영 스님은 절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안 그래도 없던 말수가 더 줄어들고 점점 우울해져만 가던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말씀하셨다.

“원영아, 사람 인(人)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 작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듯이 사람도 서로에게 기대어 살라는 뜻이란다. 이 세상을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닌데, 왜 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처럼 살려고 하느냐. 우리 서로 기대어 살자. 기쁜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면서…….”

그날 이후 조금씩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찮은 말이나 불평에도 사람들은 “맞아 맞아”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원영이를 괴롭혀?” 하면서 맞장구를 쳐 주었다. 그러자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웃음이 났다. 말하는 게 신이 났다. 덩달아 웃음도 늘었다. 그렇게 지난 세월 꾹꾹 눌러 온 화가 풀리면서 깨달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즐거움이 있고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웃다 보면 신기하게도 삶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진다는 것을, 무엇보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까짓것 해 보지 뭐” 하는 용기도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다짐했다. 사람들의 대책 없는 맞장구가 자신을 웃게 만들었듯, 앞으로 자꾸 화가 난다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살겠다고.

원영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힘들고 지친 가슴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저로 인해 웃을 수 있다면 욕도 서슴지 않을 작정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한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조금이나마 화를 풀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요.” 바로 원영 스님이 ‘편파적인’ 인생 상담을 하는 이유다.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곳곳에 숨어 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아는 이들이라는게 스님의 지론인 만큼 이 책을 통해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워보자. 김주일 기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준 수행체험 가득한 ‘마음 노트’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6천원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래서 천륜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 관계 중에서도, 전통적인 한국정서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이 더욱 특별하다. 이들의 관계는 논리적인 이해나 설명을 뛰어넘는다.

이 책은 그 특별한 관계 사이의,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것도 마치 유언처럼…….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유언은 얼마나 절실하고 비장하며 특별한 것일까.

게다가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청상이 되어 홀로 외아들을 키웠다. 더구나 30대 후반부터는 이름모를 불치병에 걸려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기는 글을 썼다. 일명 ‘엄마의 노트’다. 그 시작은 아들의 부탁 때문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신적 자산을 기록해서 남겨주길 원했다. 반면, 어머니는 아들이 이 기록을 보고 마음공부에, 불교공부에 들어서기를 원했다. 두 모자의 신앙은 기독교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동안 이 두 모자의 모진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아직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반면 어머니는 30여 년 전 불교를 처음 접하고 시간이 흐르고 마음 공부가 쌓이면서 불교를 삶의 지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책에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다.

저자는 붓다에게서 삶의 희망을, 현실에 대한 대긍정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철저한 자기 주체성을,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집착과 분노를 떨쳐버린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이렇듯 그녀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이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이론적으로 서술돼 있다. 때문에 이 책에 주요하게 실린 붓다의 가르침, 즉 불교의 기초 교리와 마음(유식), 수행(실천), 믿음에 대한 설명들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서술에 머물지 않는다. 철저히 자신이 공부하고 몸으로 체득하여 진리라고 받아들인 내용들을 써나간다.

어머니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쓰면 10권은 족히 될 것’이라고. 이땅 어머니들의 고난의 세월, 인내의 세월, 희생의 세월은 필설로 다 형용하기 힘들 것이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의 삶을 한 권의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책 속에서 농축된 세월과 경험,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의 부탁을 받은 후 10년, 저자가 이 책에 공들인 시간이다. 자식에게 전하는 것을 어찌 허투루 할 수 있겠으며, 한 치 거짓이 끼어들 수 있겠는가.

자신이 공부하고, 새기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경험한 것들을 한 자 한 자 써내려갔다.

김주일 기자

잠시 멈춰서 마음 바라보면 인생의 길 쉽게 발견

당신의 길, 길위의 당신

성담 스님 지음, 오승용 엮음
셀프컬쳐리서치 펴냄 | 1만8천원



“당신의 길, 길위의 당신, 많은 말과 글이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의 길은 마음에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마음에 길이 있으면 무엇하랴. 마음의 어디에 길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신, 혹시 길 위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무슨 진리겠느냐? 그저 기역하고 니은 밖에 모르는 농사꾼이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책에 있는 글들은 머리맡에 두고 짬짬히 읽을 수 있는 짧은 글들이지만 마음의 작용과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당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쉽고 정확하며 분명하게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따로 길이 있으며, 그것을 굳이 찾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아니 저자는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마음 자체가 그대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바뀌는 길일뿐이다.

이 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출가전부터 성담 스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원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이 되었고, 또 길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원을 세우고 고심하던 어느날, 골짜기의 절에 앉아 마음 속의 무엇이 불러주는대로 글을 적어내려 갔다. 어떤 생각도, 계산도 하지 않았다. 몇시간을 그냥 그렇게 무언가로부터 나오는 대로 적었다. 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단지 손만 빌려주었다.

이 책의 원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물론 후일 몇몇의 내용이 더해지고 수정되긴 하였다. 정식으로 발행되는 시점에서 편집자의 손을 거치면서 순서를 다듬고 구어체로 적힌 문장을 문어체로 바꾸긴 했다. 이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손만 빌려주었다.’는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본래 인연은 당신의 원에 따라 그렇게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원을 세운 것은 바로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우리들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미워할 인연만 다가오고 불평할 세상만 경험할 것이라는게 저자의 가르침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조언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헤매며 답을 구하다보니 수많은 선지자가 ‘나의 마음’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나의 마음’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길을 찾을 수 없음은 무슨 연고일까요? 마음 속에서 길을 찾음은 마치 산 속에서 산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그 자체가 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스님의 법문은 또다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가장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며 ‘나의 마음’은 또 무엇인지 아는 일입니다. 또 이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할 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첫번째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부의 과정에서 발견한 ‘나의 마음’은 ‘당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내고 ‘당신’이 마음 먹은대로 나의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당장 해결해주는 신통자재한 님’입니다. 그래서 길입니다. 단 한번만 멈춰서서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인다. 김주일 기자

영문잡지 〈Buddhism and Culture〉 19호 발간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 국제포교사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영문잡지 〈Buddhism and Culture〉 2014년 제 1호(통권 19호)〈사진〉가 나왔다.



이 책은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한국 불교사상 및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심리 치유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Experiencing Korean Buddhism and Culture(찾아가는 한국불교, 문화), Encountering Buddhist Ecology and Practice(만나보는 불교생태 & 수행), Empathetic Buddhism and Beyond(공감하는 불교, 그 너머) 등 3개 섹션으로 구분해 국내외 저명 학자 및 전문가의 글과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소개했다.

‘행복한 삶으로 다가가는 성찰의 목소리를 찾아’에서는 최근 방한한 ‘허핑턴포스트’의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 회장이 제시하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네 가지 새로운 잣대인 웰빙, 지혜, 경이로움, 베풂의 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또한 ‘세계의 수행자와 밥’ 코너를 통해 다람살라의 수행 풍경과 불교 및 신경과학의 만남을 소개했다.

한국적인 생태사찰인 강진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찾아 사찰에 얽힌 역사와 환경, 시대적 가치도 살펴봤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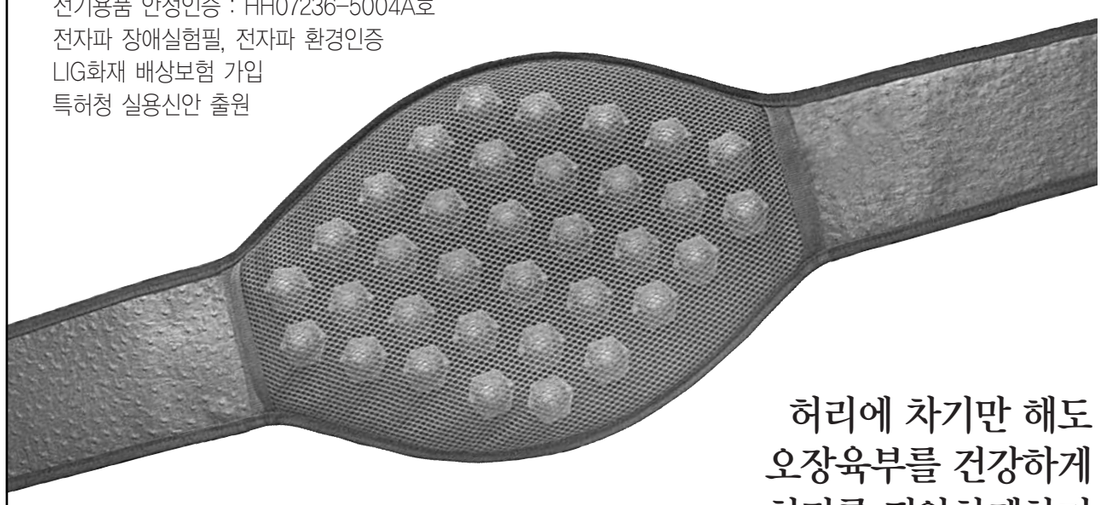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붓다의 물리학

4. 감각대상물질

"몸은 내 것·내 자아·내가 아니니라"

우리는 감각의 문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에 반해 버린다. 하지만 이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물성(루빠)들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다. 때로는 우리는 유쾌한 대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한 대상을 만나기도 한다. 유쾌한 대상을 만나는 것은 선업(꾸살라 깜마)의 결과이고 불쾌한 대상을 만나는 것은 불선업(아꾸살라 깜마)의 결과다.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색상이나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대상

2장에서 보았듯이 사대 중 세 가지인 땅 성품(단단함과 부드러움으로 나타남), 열 성품(뜨거움과 차가움으로 나타남), 바람 성품(움직임 또는 진동이나 압력으로 나타남)은 감촉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물 성품은 몸의 감촉대상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된다.

감각 대상인 형상, 냄새, 그리고 맛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에 속한다. 비록 이들은 함께 일어나지만 한순간에 오직 하나의 물성(루빠)만이 지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맛이 나타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미각에 부딪치는 맛이 설식에 의해 지각된다. 맛은 다른 일곱 가지 나눌 수 없는 물질들과 함께 생기지만 그 순간에는 맛만 지각되지 이것들은 지각되지 않는다.

소리는 듣는 마음의 대상이다. 소리는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 이 여덟 가지 물성도 동반되어 각각 제 기능을 수행한다. 소리가 생길 때마다 항상 땅 성품, 물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과 그 이외에 나누어 얻을 수 없는 네 가지 물성도 있어야 한다. 소리가 들리는 순간, 동반하는 다른 물성들은 지각되지 않는다.

〈담마상가니〉(621)에 다양한 종류들의 소리, 예를 들면 악기소리, 노랫소리,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물체가 부딪는 소리, 바람과 물소리, 이야기 등의 인간 목소리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 〈앗타살리니〉(2, 2권, 1부, 3장, 319)에 이런 종류들의 소리들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모든 소리들은 귀를 때리는 특징이 있고, 그 기능과 특성은 청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각의 지각대상이 되어 듣는 감각기관에 드러남으로 표출된다…"

다른 감각대상들과 같이 소리의 가까운 원인은 사대다. 들리는 어떤 소리라도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어 '귀를 때린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지각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우리가 새소리를 들을 때 한 번에 우리는 소리의 근거를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소리를 안다는 것은 들음[耳識]이 아니고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함도 들음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피아노로 화음을 연주할 때 한 순간에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화음의 다양한 음계들을 인식할 때 그것은 들음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한순간에 하나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소리는 마음이나 온도에 의해 생긴다. 바람과 물의 소리는 온도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말소리는 마음에 의해 생긴다.

우리는 큰 소음이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아는데, 실은 그런 순간에는 실재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테라가타〉(장로게, 7부, 62편, 와지푸타)에 웨살리 숲에 사는 바찌앤 문중의 승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의 주석서(빠라맛타 디파니)에 설명돼 있기를

"…지금 웨살리에서 축제가 벌어져 춤과 노래와 시낭송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 소리가 그 비구의 마음을 산란하기에, 그는 은둔을 끝내고 수행을 그만두면서 다음과 같이 혐오의 시구를 뱉었다.

우리는 각자 숲에 홀로 산다네,
나무꾼이 거들떠보지 않는 통나무처럼.
하루 또 하루가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니
우리보다 더 불행한 자가 있을까?

숲의 천신이 이를 듣고 측연히 여겨 이 같이 나무랐다. '비구여, 네가 비록 숲의 삶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만 은둔을 바라는 현자는 그것을 더 거룩하게 생각 하지,' 하면서 이렇게 숲의 좋은 점을 시로 읊었다.

우리는 각자 숲에 홀로 산다네,
나무꾼이 거들떠보지 않는 통나무처럼.
많은 이가 나의 행운을 부러워한다네,
심지어 지옥에 매여 있는 자도 천국행 차를 탄 그를 부러워한다네.

그때 그 비구는 순혈종의 말이 박차(拍車)에 움직이듯 통찰의 대도로 내려가서 노력을 다해 곧 아라한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천신의 시는 나를 자극하는 채찍이었네' 하면서 게송을 다시 낭송했다."

이 경은 소음을 싫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상기시킨다. 알아차림은 어떤 실재가 나타나더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리가 일어날 때 이 실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계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물질의 하나로써 알아야 하며 무슨 종류의 소리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즐거운 감각대상에 반해 버리고 불쾌한 대상에 불안해한다. 좋고 싫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실재이며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순간에 나타나는 실재를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즐거운 것들만 들으려고 한다. 누가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하면 실재를 알아차림 하는 대신에 오랫동안 이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순간의 들음이 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마음(위빠까찟따)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도 결과(위빠까)를 바꿀 수 없다. 들음은 즉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들은 말의 의미를 혐오하며 생각할 때 불선업이 축적된다.



붓다 "행동하는 동안 알아차림 계발하라"
사대에 자아 없음 알면 괴로움 종식 돼
소음 싫어하지 말고 수행거리 삼아야
어떤 실재 나타나더라도 알아차림해야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맛지마니까야 1, 28)에 사리뿟타가 비구들에게 물성들이 조건 지워져 있고, 무상하며 자아가 없다는 것을 설법한 것이 있습니다. 불쾌한 말을 들음에 관해서 그 또한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만약 다른 이들이 어떤 비구를 학대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화내게 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알아야 한다. '나에게 생긴 이 고통은 귀에서 감각접촉에 의해서 생겼으며, 그것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감각접촉이 그 원인이다.' 그러면서 감각접촉은 무상하다라고 알게 된다. 느낌[受]… 인식[想]… 조건 지어진 형성(상카라칸다行)들 또한, 무상함을 알고, 의식[識]도 무상하다고 본다. 대상을 향한 그의 마음은 깊게 고정되며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도반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 비구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한 행동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거나 흙덩이, 막대기, 무기로 때리더라도 그는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 몸이란 것은 주먹질에 영향을 받고 흙덩이나 막대기나 무기로 가격당하는 그런 것이다.'

톱의 비유경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비구들이여, 무자비한 도둑들이 탕개톱으로 사지를 발기발기 조각낸다하더라도 마음에서 증오를 일으키는 자는 그 이유로 인해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가 아니다. 이제 불굴의 정진이 생길 것이고, 알아차림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을 것이고, 몸이 경안하여 교란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기꺼이 이 몸이 주먹질 당하게, 흙덩이나 막대기나 무기로 가격 당하게 그냥 그대로 두자. 이것이 지혜로운 비구가 따라야 할 가르침이다."

불쾌한 말을 들을 때 즉시 다음과 같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물성들로서 보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이 괴로운 느낌은 귀에 감각적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마음과 물질에 대한 지혜를 개발시켜야 한다.

물질을 분류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사대(마하부따루빠)와 파생된 물질(우빠다루빠), 그리고 28가지 물질 중 나머지 24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거친 물질(오라리까루빠)과 미세한 물질(수쿠마루빠)로 분류하는 것이다. 12가지 물질들은 거친다. 감각기관의 문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감각대상들, 형상, 소리, 냄새, 맛과 세 가지 감촉대상인 땅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사대 중 세 가지)과 이런 대상들이 나타나는 문이 되는 다섯 감각기관(빠사다루빠)이다. 28가지 중 나머지 16가지는 미세한 물질이다.

〈청정도론〉(14, 73)에 기술하기를, 12가지 물질은 '충돌함으로써 인식되어 거친 것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충돌하지 않으므로 미세하다.' 감각대상물질 일곱 가지는 시시때때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물질에 충돌을 계속한다. 미세한 물질들은 감각기관에 부딪히지 않는다. 청정도론에 '미세한 물질들은 뚫고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멀리 있고 거친 물질들은 뚫고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대상들은 감각기관에 수시로 부딪치지만 우리는 보통 실재를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사대와 다른 물질들을 배웠으므로 이제 그들이 나타나면 실재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차려야 한다. 가령, 우리가 걸을 때 단단함, 열이나 압력 같은 것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우리는 실재가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나는 순간과 발이나 땅과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순간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땅은 우리 몸 감각기관에 충돌 없이 바로 지각될 수 없다. 붓다는 모든 행동을 하는 동안 바른 알아차림을 계발하라고 비구들에게 촉구했다.

〈대념처경(사띠빳타나숫타)〉의 주석서에 의하면, 네 가지 분명한 앎 절에서 가사를 입는 분명한 앎에 이르기를

"…가사 자체에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다. 의도의 마음으로 인해 발생한 움직임(바람 성품)과정의 확산에 의해서 오로지 가사를 입는 행위가 일어난다. 가사는 생각할 능력이 없고 몸 또한 그런 능력이 없다. 가사는 몸을 덮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몸 또한 역시 스스로 '가사가 나에게 입히고 있다' 라고 알지 못한다. 단지 사람모형에 옷 조각을 입히듯이 부분적 과정들이 모여서 전체 옷 입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좋은 가사를 입었다고 우쭐대거나 나쁜 가사를 입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가르침은 재가자에게 실재를 상기하게 하는 좋은 가르침이다. 우리는 몸에 미치는 옷의 영향에 익숙해져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간동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또는 부드러운 재질의 몸에 대한 촉감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옷의 색상에 빠져버린다. 우리는 부드러움이나 색상을 단지 대상이 되는 물성들로 알아차림 해야한다. 실재에 있어서는 물성들이 물성에 부딪힐 뿐이다.

〈앙굿따라니까야〉 (2, 넷의 모임, 제18장 의도 품, 7절 라훌라)에 붓다가 라훌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라훌라여, 몸 안의 땅 성품과 몸 밖의 땅 성품은 단지 땅 성품이다. 완전한 지혜로 있는 그대로 이같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통찰지혜로서 봄으로써 땅 성품을 혐오하게 되고, 통찰지혜로서 마음의 탐욕을 청정하게 한다."

물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에 관해서도 붓다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 라훌라여, 비구가 이런 사대에 자아라든지 자아와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바르게 관찰하면, 그는 갈애를 잘라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바르게 자만을 통찰해 버렸고, 마침내 괴로움을 종식시켜 버린 자로 불린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제11기
(사)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학인모집

안정사 소리 – 신라 최초 영남범패단 구성,
범음범패 홋소리, 짇소리, 사성소리
(사성에 의한 범패)

(1) 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의식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대령관욕,천도재(49재), 각종의식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 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4년 3월 21일
■ 교육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단과 승, 속 관계없는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매년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법회 동참,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범패강원 강주
영남범음범패 영산회 교육원장 |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이사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전화 055)649-6711
팩스 055)649-6712
H·P 011-874-677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4. 4. 12(토) 오후 1시부터 ~ 4. 13(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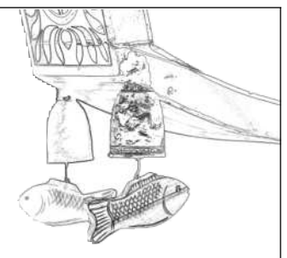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행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가는 자유를 만나리라.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마음 챙기며 청정한 행위를 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
절제하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명성은 더욱 커지리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정확한 방편술 (비법)을 출판하였습니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시골 자그마한 암자에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나다

관세음보살 화신이
실제 현실에 나투시다
관세음보살 화신
전시관 창건불사
인연 접수합니다
금재선원 010-2255-7389

범음범패학인모집(무료)

불교전통의식을 꼭 배우고 싶은분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고자 하오니 종단 승속에 관계없이 참여바람
• 수행기간: 1년(매주1회 3시간)
• 수행과목: 천도재,49재 의식
무등범음범패보존회
연락처 : 061)371-3135
010-5919-31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02)917-3363

대구 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에서 공양주를 구합니다
45~60세, 오래 같이 계실 (1년이상) 신심있는 불자분과 가족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대구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로 주로 직장인, 청소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명상수행을 합니다. 또한 기도, 명상프로그램, 해외 성지순례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급여 및 기타문의는 010-8221-4900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1종 면허 소지한 처사님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051)334-30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010-8576-4450

같은 도반스님으로 함께 하실 비구니 인연 기다립니다

(포항 동호사)
010-3376-6601

행 자 모 집

(50세 미만)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010-2550-631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대주스님의 신비한 기도

• 한달에 3번, 30분의 기도로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힌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상 ·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모속인)
•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①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참관가능)
* 일시 : 매달 2일간, 토, 일 진행 합니다.
* 부모,자녀,부부관계와 조상, 무의식 치유
② 원네스 깨어남 힐링명상(무료체험하기)
* 세계적인 치유명상, 강력한 삶의 변화
*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명상과 힐링상담자 모집

명상, 불교심리치료, 서양심리치료, 명상치료법을
무료로 지도하오니 많은 동참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259-20 고산골 해룡사 지도법사 회성 스님
☎ 053)471-7769. 010-2866-4860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영남 범음.범패 학인모집

영남 범음. 범패 염불원에서
2014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 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 작법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속 관계 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4년 4월 17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224-2 해원사
◆ 문 의 처 : 010-5065-5690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문체부허가 제2012-43호)
영남 범음범패 염불원장 재봉

동국스님의 풍수, 빙의, 천도, 사업운

법력,도력을 겸비하신
행운(幸運)과 복(福)을 선사하고
풍수를 꿰뚫는 신묘한 혜안,
정확한 미래 예지력
과거 국운을 예언하고 풍수 관장한
신승(神僧)들의 맥을 이어받아 영안으로
풍수를 들여다보는 동국 스님의 영험함!
해외사업가들에게 정평이 나있습니다.
▷ 사업운 상담 ◁
강한 기공법력과 영험한 예지력으로
운을 가로막는 원인 진단 및 제거로
건강과 사업운을 열어드립니다.
만블라선원 010-3676-5555
www.manbula.com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북동 1871-9
(안산역 길 건너 123번 버스 구봉도입구 하차, 전화주세요)

태극혈맥풍수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맨 마지막 남은 한 덩이 밥이라도 자기가 먹지 않고
남에게 베풀되, 털끝만큼도 미워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 증일아함경 -

사찰(급)안내

아름다운 명상의 집(토굴)
- 위치 : 경남
- 총부지 : 970평
- 건물 : 4동
- 양도금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구로사찰 양도
- 3층 법당 90㎡, 요사채 90㎡
- 공양간 90㎡, 토지950㎡
- 뒷편은 산,아파트.주택밀집지역
- 40년운영하였으며 텃밭있음
- 양도금액 : 9억원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300만원(조절불가)

010-7733-01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부지 : 1500평
- 법당 : 20평, 인법당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매가 : 2억3천,위치최적
- 위치 : 수도권
- 대지 : 1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4억8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대지 : 163평, 법당 10평, 방4개
- 수세식, 현대식주방, 세간일체 양도함
- 법당앞 정원에 5층석탑, 2M석불봉안
- 스님 건강상 싼값에 양도하오니 몸만오셔요
- 가액 : 5천 3백만원

010-8902-7618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남쪽 산자락
- 1층 본요사채 45평, 황토벽돌로 조성 2층 법당 25평
- 주차장 완비 총 171평 외 토지 80평과 별요사채1,2층 30평, 저온창고 2.5평
- 가액 : 4억 5천 직접거래

010-3743-994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9천5백

011-645-1361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충남 논산
- 천안, 논산고속도로(세종)
- 서논산 IC 10여분
- 대지 약 130평
- 텃밭, 용왕당
- 건물4동(법당,산신각,후원,요사)
- 가액: 1억 2천만원

010-5338-4467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6898-911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최고의 명당터
- 사찰, 포교원, 갤러리 요양시설 최적임 (불사 크게 일어날 "터"입니다)
- 부지 3750㎡(구 1,134평)
- 가액: 65억
- 연락후 방문해 주세요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문경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154-4
- 문경 IC에서 10분, 문경온천에서 5분거리
- 면적 225평
- 소나무숲 전원주택 부지로 현재 10여동이 입주한 상태
- 가액 : 4천5백만원(평당 20만원)

010-8555-4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부산진역 버스정류장 옆
- 5층, 법당, 방 3개, 주방 1,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413-04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아름다운 회향

- 선 답사 후 결정하세요
- 자비의 소임 한아름 안고 중생의 선상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만족의 덕목 행복했습니다 비움과 채움의 예쁜가람입니다
- 위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소재
- 평수 1,800여평(실버타운 허가보류)
- 가액 : 5억9천만원(마음)

010-6449-9585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 인제대 인근
- 대웅전, 산신각, 종각, 석탑
- 요사채, 방 4
- 대지 500㎡ • 건평 215㎡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3억(융자무)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종로구 5가역앞 종로6가 버스정류소앞
- 4층건물중 3층 약14평
- 기도실 상담실(실내화장실)
- 용도 : 지방사찰에서 포교당 적합
- 가액 : 보증금 일천만원 월77만원(부가세포함) 시설비 6백만원(절충가능)

02)7620-108번
031)5410-106번

암 자 안 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바위 입구, 주택독채
- 법당, 산신각외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23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7-206-6727

사 찰 안 내

- 울산시 울주군 (신복로타리15분거리)
- 건평180평, 대웅전(삼존불) 25평, 지장전, 삼성각, 공양간 외 방 8개, 이쁜 용왕당 연못있음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인테리어되어있음)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4855-7205

포교원안내

- 위치 : 1층 경남 김해시
- 법당 : 오존불, 48평
- 시설 : 쑥뜸찜질방 1개
- 주차 :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376-7242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 석탑, 요사채3동, 방10개,(고찰) 토지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평수 163평, 법당10평, 방4개, 현대식주방, 살림집기 일체양도함, 냉장고2, 세탁기1
- 법당 앞 정원에 5층 석탑과 2미터석불봉안
- 스님 건강상 싼값에 양도하오니 빨리 인연되어 봉축행사 보십시오
- 가액 : 5,300만원(절충가능)

010-8902-7618 (선방문 후상담)

사 찰 전 세

- 위치 : 경북 점촌시 동로면 생달리
- 목조법당 25평 요사 콘크리트 50평
- 심야보일러, 산세수려함 텃밭 다소
- 가액 : 6천만원

011-9731-1415

사찰같은 시골집

- 위치 : 충남 아산 유구 중간있음
- 평수 약 대지200평 정도, 신축건물 30평, 심야전기
- 자연석, 조경, 약사불, 석탑
- 기타조건 대웅전 회관유
- 요양하실분, 승속무관함
- 가액 : 전세금 5천, 7천만원 선택

011-423-32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광명사거리역 4번출구 10분거리
- 주변 아파트 단지 및 새마을 시장
- 평수 : 4층 건물에 3층 50평 방2, 주방, 샤워실
- 시설: 후불탱화, 불상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영가단, 집기류
- (1) 전세 6천 5백 (2) 보증금 2천만원에 월60만원

010-3221-047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63평, 공양실따로, 법당 33평, 방6 대지 720평
- 가액 : (1) 전세 : 3,000만원 (2) 양도 : 평당20만원

010-3827-686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 IC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사찰
- 평수 종교용지 600평, 법당20평과 영험스런 약사굴법당 있음
- 요사채 및 건물 5동, 70년된 사찰
- 가액 : 4억 8천만원

010-4021-8588

서울 최고의 명당수행터

- 삼각산보현봉 전체산야가 펼쳐보이고 기를 받는 서울중심의 명상치유터
-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자락 큰스님 수행터(조계사 20분거리)
- 천혜의 힐링산책로 품고있는 위치
- 실건물은 약30평, 한옥식 단독주택임 이용하는 토지는 약 300평 이상임
- 가액 : 3억2천 직접 방문요

010-8800-32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010-8505-0101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시장건물 4층
- 평수 : 약50평 및 계단 옥상사용
- 삼존불, 소불 600외 탱화일체
- 보증금 1,000만원 월77만원 불사금 2,700만원
- 경남 산사 불사 완료 관계로 이전

010-9296-60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 3층건물 1층 점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형성
- 평수 15평
- 시설 : 지장보살 석불봉안
- 법회가능 (시설비 별도 상담요망)

010-2895-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대지 324평, 요사+인법당 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일억원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 ~ 3분거리
- 보증금 : 2천만원, 월 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경남에서 포교하기 좋은 오래된 사찰

- 위치: 마산에서 10분거리
- 목조 토기와 25평
- 요사채 35평, 대지 200평, 산신각
- 전망 최적
- 가액 : 3억

010-5494-64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743번지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대지175평,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아늑하고 편안한 도량
- 가액 : 2억

054)776-5482
010-5439-123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3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아양로 15길 15 대구 파티마 병원 옆
- 1층 약 25평
- 관음보살님2자1위, 소불 10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8786-614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산 와촌
- 대지 : 약 500평
- 2층 벽돌집 정남향
- 가액 : 2억8천만원

010-9778-77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남도 최고 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전남 목포시 유달산 공원내 1등 바위 밑
- 법당(대웅전), 요사채, 창고,
- 문화재-조선중기 석불 1점, 집샘 1점, 주차장에서 5분거리(바로 법회 가능)
- 점유부지 400평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644-04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 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7139-55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 남주동 가구거리
- 3층 건물중 3층 80평, 시장이동 인구 10만
- 최신시설, 심야전기, 60평, 요사채20평
- 요사채 거실, 욕실 3개, 방5개 큰방주지실 집기시설 모두포함 1,500만
- 시설집기 1억 들어갔음. 꼭하실분만 연락
- 스님 운반제작
- 가액 : 전세 5,000만원이나 보증금 3,000만원 월50

010-5236-7310
010-2702-2792

사 찰 안 내

- 경기 이천 장호원 5분, 15년절터
- 평수 : 약 300평
- 뒤 언덕은 공짜땅, 해화나무 소나무 약 20주
- 현재- 세1,000만에 월35만 5월에 나감
- 불곳 3곳 더 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10만원 전세 3천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토굴농막(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 지목 : 전(관리지역) 1,000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처 완비
- 가액:2억원(절충가능) 융자: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허 가능

010-2002-10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도심사찰
- 3층건물(약120평)전체 단청필 1층 대중공양실, 2층 스님거처 3층 전체법당
- 칠보청동삼존불 봉안
- 비구니스님 불사하기좋은 도심사찰
- 현시세가 6억5천만원 정도함
- 가액 : 5억
- 사찰운영하실비구니스님이나 화주보살님인연을찾습니다

010-4640-474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화해(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틱낫한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설립자)

〈1〉 들어가기

"정말 미안해, 이제 피하지 않고 너를 안아줄게"

가까운 사람의 사소한 한 마디에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러지?' 싶은데, 가슴으로는 멈출 수가 없다. 결국은 폭발! 곧이어 뒤따라오는 후회로 마음의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화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틱낫한 스님은 그 화가 우리 내면에 있는 아이의 상처에서 왔다고 말한다.

이 책의 저자 틱낫한 스님은 내 안에 있는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하여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8가지 지혜와 7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정하게 일러준다. 모두 금방 이해되며 일상에서 당장 해볼 수 있을 만큼 쉽지만 그 효과는 깊다. 스펙 쌓기에 바쁘고, 생활에 치여 살다가 문득 만난 마음속 응어리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화해〉는 달빛 같은 은은한 미소를 비춰 줄 것이다. 본지는 〈화해〉의 내용을 5회 발췌 · 요약해 싣는다. 정리=이나은 기자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 승려이자 평화운동가로 전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이다.

불교는 하나지만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틱낫한 스님은 어려운 불교용어를 일상 언어로 전달하고자 늘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달려가서 최선을 다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죽어 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평화운동을 이끌었다. 이 공로로 1967년 마틴 루터 킹 목사로부터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받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의 박해를 피해 1980년대 초 프랑스로 망명한 스님은, 보르도 지방에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자두나무 마을)를 세우고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시작했다. 이후 플럼빌리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치유의 공간이 됐다.

내안의 아이

사람들은 저마다 내면에 고통받는 어린아이를 품고 있다. 상처다. 꼭꼭 싸맨 상처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거슬러 올라가면 유년의 어느 날에 그 끈이 닿아 있다. 우린 누구나 어린 시절 한때를 아프게 보냈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타나 괴롭히기도 한다. 쓰라린 감정과 기억, 불현듯 이 고통이 고개를 들면 우린 무시하거나 꾹꾹 눌러 내 안의 깊은 무의식 속으로 처박아 버린다. 왜냐하면 앞으로 겪을 고통이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잊고 싶으니까. 우린 몇 십년 동안 그 어린아이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니 두려워서 들여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내 안의 그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과 관심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

"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러니 나를 피하지 말아줘. 도망치지마."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그 아이를 더 멀리 밀쳐 버리고 싶어진다. 마음 더 깊은 구석으로 보내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고통이 삭아 없어지거나 소멸되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가? 단지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란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봐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보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에게서 달아나 버린다. 고통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내 안에 자리한 고통과 슬픔의 덩어리는 자꾸만 살집을 키워 간다. 너무나 커져서 이젠 단단한 병 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더 도피하고 싶다. 샛길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은 하루 중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가? 혹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관람하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술이나 약물에 기대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게 잊으려고 밀쳐 두려는 몸부림임을 자신도 안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일종의 무지(ignorance)다. 그 아이는 심한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야만 한다.

그런 무지는 우리의 온 존재에 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무지가 없는 곳은 없다. 마치 유리잔 속에 든 맑은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트린 격이랄까. 그 무지로 인해 우리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 더욱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고통이 더 커진다. 그렇잖아도 상처받은 내 안의 아이가 더욱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내 몸을 구성하는 무수한 세포들 중 그 어떤 세포에도 상처받은 아이가 없는 곳은 없다. 그러니 그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그 아이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모든 세포 안에 고통이 똬리를 틀고 있듯이 이해와 행복의 씨앗 역시 거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해와 행복의 축복은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등불이 하나씩 있다. 그 깨어 있음의 등불을 우리는 언제라도 켤 수 있다.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다름 아닌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다. 우리는 그 깨어 있음의 등불을 밝혀야만 한다. 그래야 환한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이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큰 자비심이 우러난다. 그때 우리는 깨어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깨어 있기 때문에 걷고, 앉고, 호흡하는 수행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호흡과 걸음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해 내고,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 있는 깨어 있는 지혜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 안고,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 줄 것이다.

내 안의 아이가 하는 말을 자비심으로 듣자

"자비심으로 듣기"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고요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는 타인의 말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어야만 하는 가장 절박한 영혼의 호소인데도 말이다.

무의식 속에 처박아둔 쓰라린 감정은
내면 속 고통받는 어린아이
내면아이 호소에 귀울이며
하루에도 여러번 토닥여 주어라

때로 그 상처받은 아이는 자기에게만 신경을 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당신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당신의 모든 주의력을 자기에게 집중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때 만약 당신이 깨어 있다면, 도와 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순간 당신 앞에 놓인 다른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상처받은 아이를 포근히 안아 줄 수 있다. 당신은 사랑이 담긴 말로 그 아이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다. "과거에는 어린 너만 남겨 두고 나 혼자 도망갔었어. 정말 미안해. 이젠 도망가지 않고 너를 안아 줄게." 이렇게 말을 걸어도 좋다. "아가야! 너를 위해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잘 보살펴 줄 거야. 네가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난 알아. 그동안은 내가 너무 바빴어. 그래서 너에게 소홀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단다." 필요하다면 그 아이와 함께 울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이가 보챌 때마다 곁에 앉아서 함께 숨을 쉬어야 한다. 명상이 필요하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상처받은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네. 숨을 내쉬며 나는 상처받은 그 아이를 잘 보살피네.'

당신 안의 아이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말을 걸어라.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난다. 아이를 안아 주며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홀로 남겨 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라. 토닥여 주라. 그 작은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었다. 당신은 이 수행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나중'은 늘 뜬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꿈일 뿐이다.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주의 깊게 듣는 법을 알았다면 매일 5~10분 정도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라.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아름다운 산을 오르고 있다면, 내 안의 아이에게 함께 산을 오르자고 초대해 보라. 멋진 석양을 감상하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함께 노을을 보자고 불러내 보라.

이렇게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내고 나면 당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된다. 당신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수행을 계속할 때 당신은 또 다른 아이를 만나게 된다. 아이의 내면에는 '우리'만 들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안에 몇 세대가 들어 있다. 우리 어머니도 일생 동안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를 포근히 안아 줄 때 실은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를 비롯한 과거 세대의 모든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 안아 주는 것이다. 다라서 이 수행은 우리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리 조상과 후손을 위한 수행이다.

우리 조상들은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물려줬다. 수행을 시작할 때 비로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그날, 우리는 자유를 되찾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 가해자들 역시 학대 행위의 피해자였을 것이다. 내면의 아이와 함께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들 중 다수가 고통이 줄고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따뜻한 배려나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맑고 환한 깨어 있음을 보듬어 그 에너지로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를 향해 등불을 켜고 자비심을 키워갈 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든다. 깨어 있음이 일어날 때 자비와 이해가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살아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자비심이 우러나면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소통이 가능해진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내면에도 심하게 상처받은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면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대인관계가 훨씬 수월해진다. 내면의 평화와 사랑이 더욱 커지고 온화함이 가득 들어차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보살피기 바란다. 당신의 몸에겐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이 바라봐 주고 인정으로 어루만져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빈 거리에서 헤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거기 머물기 바란다. 깨어 있는 걷기와 깨어 있는 숨쉬기를 수행하고, 모든 것을 구석구석 깨어있게 하라. 당신이 거기 진정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이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글은 틱낫한 스님이 쓴 〈화해〉(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 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4천만원(가격조절가능)

010-7466-770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
- 독채 : 방1,거실1,주방1 - 월세15만원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10-8872-13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300평, 전450평
- 대웅전법당 25평
- 요사채 40평
- 급한사정상알림
- 가액 : 3억 7천만원

010-4747-3164

토 굴 안 내
- 중부 곤지암 IC 에서 10km
- 대지 : 150평
  (건물 2층 60평 - 조립식)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양도가 : 1억 9천

010-9305-671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수산
- 약 90년된 고찰, 도사바위, 약물 폭포수 있음
- 대웅전, 미타전, 칠성각, 산신각, 요사채
- 뒷산 시부지 10만평 사용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6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33)762-634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010-4001-8476
055)232-7151

별장같은 사찰 안내
- 위치: 충남도청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총평수1,020평(대지 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 50평(법당 및 요사체1. 2층)
- 마당에는 400년된 느티나무
  오래된 돌담, 연못 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 최고
- 가격 : 융자 2억 5천, 나머지 6억 3천

주인직접 010-9805-5528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21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80평
- 도시가스 취사난방 설치
- 가액 : 6억 9억(은행융자 3억원)
- 절충가능

010-6237-5964

사 찰 안 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계곡물 사철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융자3천안고, 2억2500만원

010-8517-8526

암 자 터 안 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있음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농사꾼 직접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전세 : 5천만원
- 집기일체 드림,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130-0606

토굴(급)안내
- 주소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 대지326평 법당.요사채.삼존불.지장.신중
- 칠성탱화, 방5개
- 정부지원금 5천만원가능
- 가액:7천500만원

010-4296-8200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7대 주차가능
- 가액 : 전세 1천만원
- 월세 120만원, 시설비 6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93-3689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 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6천만원(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이쁜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무지개 폭포 입구
- 평수: 대지 104평
- 법당, 스님 친견실, 공양간, 요사채
- 법회 즉시 가능, 몸만 오시면 됨,
  주차시설 완벽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2565-7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 법당.산신각.방2개.욕실.주방
- 월세 1년에2백만원 또는
  전세가능(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사찰,템플스테이 사용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 사찰도 사용할 수 있고,
  발효식품 장소나, 템플스테이
  연수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옥 3채 황토방 있음
- 연락주세요

010-3521-6920

갤러리 색즉시공



나비처럼

나비의 날갯짓 하나에 온 우주가 관여했듯이
마음 하나, 생각 하나가 나만의 것일 수 없는 일
빗나간 마음 하나, 뒤 늦은 생각 하나가
언젠가 너와 나를 아프게 하리라.

한나절 적시는 햇살에 억겁의 시간이 관여했듯이
지금 옮기는 발걸음 하나도 그냥 걸을 수 없는 일
아득한 시절에 시작된 걸음 끝에 서 있는 것이니
법을 향해 걷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언젠가 아프리라

어느 날, 선사가 찾아낸 '각(覺)' 자가 문자가 아니듯이
오늘 본 것, 들은 것만으로 내일을 살 수 없는 일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왔음이니
법당 앞을 나는 나비처럼 우연이라도 법에 다가갈 일이다.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맑은 내 생각 하나가 불국토 만든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첫 공부는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알아야 '말씀' 절실히 들려

신심을 고취시킨 경전읽기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좋은 구절들을 노트에 정리해 두는 것을 즐겨했는데, 불교의 여러 경전들을 대하고 나니, 불경처럼 주옥같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았다. 불경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불교를 만난 보람과 의미는 충분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올바로 사는 방법을 경전들마다 고구정녕 밝혀주고 있었다. 경전을 읽고 있으면 영롱한 보석들이 무수히 날마다 내 삶으로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여는 가정법회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공부한 것이 부처님의 일대기였다. 2천6백 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한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에서 부처님 일대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불교에 입문한 분들에게 경전을 읽기 전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야 경전 속의 부처님 말씀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한 부처님은 인간과 격이 다른 신이나 성인이 아닌, 오직 '깨어 있는 분' 이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나는 2600년 전에 일어났던 불교가 자각의 종교임에 마음이 끌렸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 깨어 있을 때 고통이 소멸된다는 진리를 표명하고 있는 종교였다. 이러한 진리에 눈 뜨면 좋고 싫음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여의고 자비와 지혜가 솟아남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였다.

부처님일대기를 공부한 다음 법사스님을 모시고 30여 명의 회원들이〈법화경〉,〈승만경〉 등을 공부했는데, 경전 공부를 통해서 올곧은 신심을 키우게 되었고 신심을 바탕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내 생각 하나가 맑고 깨끗하면 세상은 그만큼 정화되고 불국토가 되리라고 본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성불한다. 단지 이르고 늦음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선언한〈법화경〉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끝내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하겠다는 서원도 세우게 되었다.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는〈금강경〉을 통해서는 무아를 배웠으며,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설한〈원각경〉을 통해선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 을 배웠다.

관자재보살이 물질과 마음이 비어 있음을 깨달아 모든 고통과 아픔, 의심과 분노에서 해방되었다는〈반야심경〉의 핵심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기쁨이 여여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이해하는 기쁨이 그 어떠한 기쁨과도 견줄 수 없는, 진리를 경험하는 환희로움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을 사경할 때는 염불을 지속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곧 기적이요, 감사함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율, 즉 도덕적인 생활이 청정 도량을 이루고, 자비로움으로 청량함을 얻으며, 염불로 정토를 이루고, 지혜로 영원한 안락을 얻는다는〈천수경〉의 구절이 가슴 깊이 다가온 날도 있었다. 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으니 삼보님과 천룡들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구절을 읽으면서는 마음은 물론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하늘도 도와준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집안을 청결히 하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전을 읽으면서 신심을 다지던 가운데〈42장경〉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는 하기 어려운 일 20가지' 를 보고는 이 스무 가지만 잘 실행한다 하여도 큰 공부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메모해 두었다.〈42장경〉은 근본불교의 사상을 대변하는〈유교경〉,〈위산경책〉과 더불어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불교의 핵심교리를 잘 담고 있어서 입문서로 널리 애독되고 있는 경전이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하기 어려운 일 20가지' 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가난하면서 보시하기 어렵고 / 부귀하면서 도를 배우기 어렵고 / 목숨을 버려 도를 구하기 어렵고 / 부처님 세간에 나심을 만나기 어렵고 / 애욕을 참고 욕심을 떠나기 어렵고 / 유쾌한 것을 보고 구하지 않기 어렵고 / 권세를 가지고 세력으로 군림하지 않기 어렵고 / 수모를 당하고서 성내지 않기 어렵고 / 일을 당하여 무심하기 어렵고 / 널리 배워 깊이 공부하기 어렵고 / 처음 배우는 사람을 가벼이 하지 않기 어렵고 / 아만심을 버리기 어렵고 착한 벗을 얻기 어렵고 / 도를 배워 깨달음에 들기 어렵고 / 바깥 경계를 당하여 동하지 않기 어렵고 / 사람의 근기를 알아 가르침을 말하기 어렵고 / 마음을 항상 평탄하게 지니기 어렵고 / 시비에 빠져들지 않기 어렵고 / 좋은 방편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읽고 노트에 내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나 개인은 물론 공부방 도반들과 함께 실천하고자 했던 것들이기에 사경을 하는 심정으로 써 놓았고, 자주 읽으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봐도 많은 부분을 실천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내일 먹을 게 당장 없더라도 도와줄 사람을 보면 즉시 보시할 것 / 제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습다 하더라도, 나아가 더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 것 / 도를 구하는 일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박한 일로 여길 것 / 오탁악세에 살며 진리를 만나기 어려우니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 /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가족이나 이웃에 집착하지 말며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구하지 말고 도울 것 / 재미있는 것을 보아도 중심을 잃지 말고 그것 또한 무상함을 알고 취하려고 하지 말 것 / 남보다 혹시라도 좀 더 많은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군림하려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나에게 온 것이니 나누어 쓰려 할 것 / 어느 누구에게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 일이 나로 인해 온 것임을 알고 인욕할 것(인욕이 만 가지 덕이 됨을 잊지 말 것) / 나를 내세워 시비를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기나니 어떤 일 앞에서도 무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다문(多聞)이면 지혜가 증가하여 성불하리라는 서원을 잃지 않는다 하였으니 널리 배우고 깊이 공부하는 일에 힘쓸 것 / 배움이 없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이끌어 그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울 것. 나이, 성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성장을 돕는 선지식임을 잊지 말 것 / 내가 무엇을 잘 안다거나 잘 낫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 것. 아만심이 좋은 인간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잊지 말 것 / 착한 벗을 가까이 해서 배우고 또 배울 것. 청량한 도량, 훌륭한 스승, 좋은 벗이 나의 공부를 이루는 데 절대적 존재임을 잊지 말 것.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도를 배워 "일체는 내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유심조' 를 깨닫는 것이며, 만물이 한 뿌리 한 생명임을 깨우치는 깨달음을 얻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 것 / 어떠한 기쁨,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도록 수행할 것 / 천차만별인 사람들의 환경과 성품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진리를 말 하고 전할 것 / 어떠한 경계에서도 마음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 수행임을 잊지 말 것 /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도임을 잊지 말 것 / 일을 하는 데 좋은 방편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울 것.

여여회는〈42장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둔 이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장이었다.

〈여여원 원장〉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699,000부터
(양곤 바간 헤호) 5일 1,290,000부터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1,0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290,000부터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899,000부터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대행 스님

살아나가는 습관에 묶여있지 말고 마음을 탁 틔워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는 데

문)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요.

답) 여러분이 말하고 움죽거리죠? 만약에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또 육신이 없어도 무효고, 생각 내는 게 없어도 목석이에요. 이 몸뚱이, 육근, 육진, 육식이 움죽거리는 게 다 우주의 혹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는데, 그것이 종합된 근본이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리 오너라, 가르쳐 줄게." 이러고는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선 주먹으로 한방 지르니까 "아이고!" 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죠. "요놈! 지금 '아이고!' 하는 놈이 누구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는 것이 즉, 법이지요. 여러분이 이 정신세계의 50%를 모르고 그냥 물질세계로만 간다면 그것이 망상이지마는, 이 도리를 한데 합쳐서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들이고 낸다는 것을 실감한다면 바로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 돼서 나를 끌고 다니는, 과거에도 끌고 다녔고 지금도 끌고 다니고 미래에도 끌고 다닐 거다. 그런데 과거는 아까 한 시간 전만 하더라도 과거예요. 조금 아까도 과거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미래는 없을 것이고, 현실은 공해서 돌아가니깐 또 없어요. 그런데 그 없다는 이유가 어데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그저 자나 깨나 맥박이 그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했다 한 거고 '무(無)'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무' 자가 아니라 '있을 무' 지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모든 거를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하나가 없어도 병신이고 귀가 하나 없어도 병신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병신이죠. 그러니만큼 모든 것이 종합된 자체에서 그냥 일체 생활하고 들이고 내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 자체가 돌아가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성이, "내 마음이 그렇게 일체를 들이고 내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이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생활 그대로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그도릴 모르거든요.

그러니깐 유마힐 거사가 병을 앓았을 때 병문안을 문수가 갔을 때 얘기죠. "나는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병이 낫는다."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지금 작용을 안 해 주면 이 몸뚱이가 쓰러지죠? 이 속의 중생들이 다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야 내가 병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한 것도 그 뜻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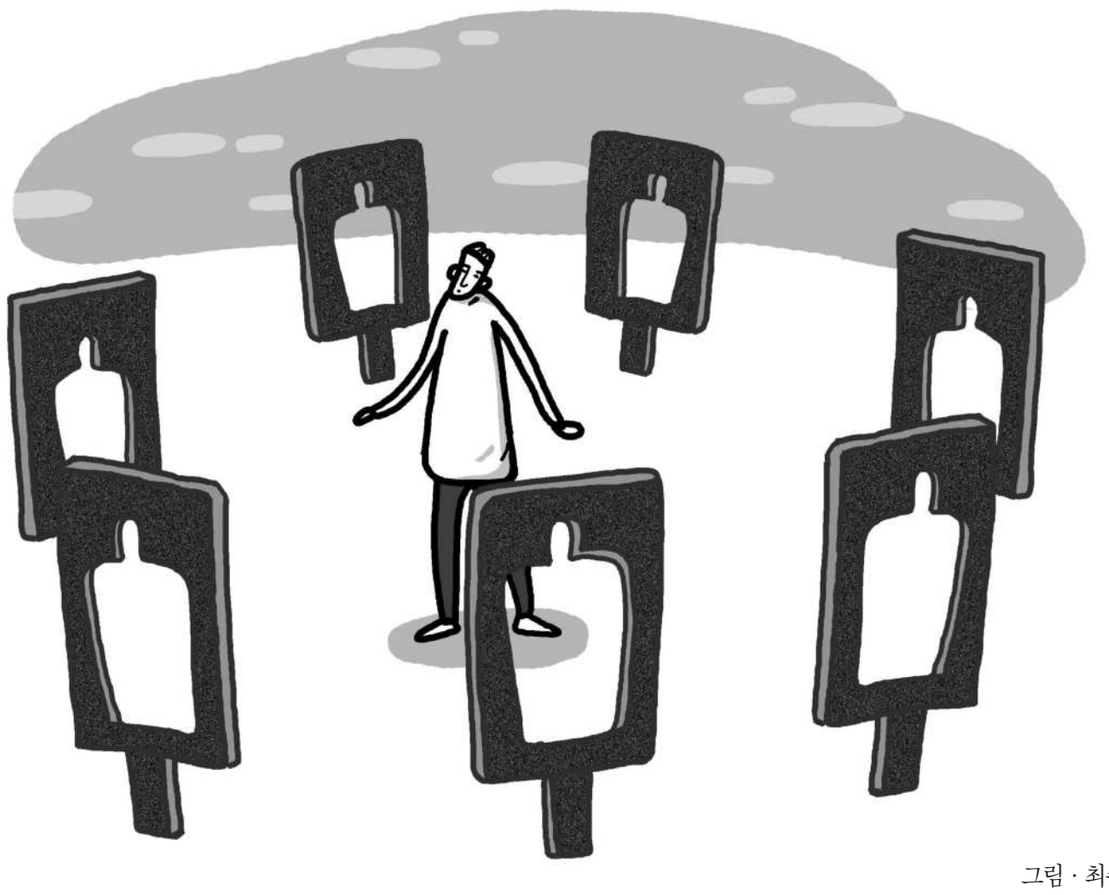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너부터 알아라 한 것도 그 뜻이에요. 사대 성인들도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했듯이. 너한테서 물러서지 말라. 모든 거를 다 놓고 갔을 때에, 어차피 죽을 때는 몸뚱이까지 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다 놔야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됩니다. 나 아님이 하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란…. 왜 이런 게 있죠? 차가 갈 때에 딱 고정되게 있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구르지를 않아요. 바퀴만 구르지. 그와 같은 겁니다. 심봉이란, 인간의 뿌리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허공은 허공대로 있듯이 마음도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길을 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속에서 나온 거, 그래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병이 났으면 '야,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라.' 그러고 맡겼을 때, 그게 진짜로 믿어야 맡기지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 진짜 그렇게 맡겼을 때 약사 의사가 됩니다, 그냥 그 자체 내에서. 가난해서 애달플 때 거기다 맡기면 관세음이 되고 명이 짧아서 아주 애원을 했을 때, 식구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 거기다가 '너밖에 해결할 놈이 없다. 너밖에 이끌어 줄 놈이 없다.' 고 맡길 때 그때는 칠성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데로 못 간다고 애원하지 말라 이겁니다. 좋은 데로 못 갈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마음의 용광로에다 다 넣고 그렇게 '좋은 데로 가는 것도, 가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한다면 그냥 지장이 돼 버립니다. 한 순간에, 한 순간에 바뀌지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화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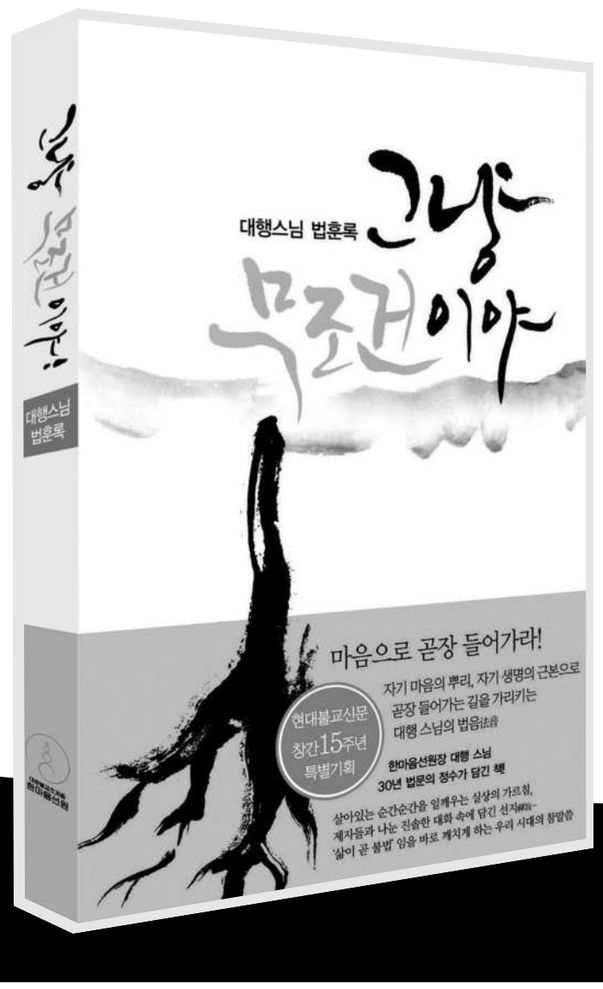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생활하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 하면은 그냥 형님으로, 자동적으로 형님 노릇을 하죠? 말도 행도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 아무개야!" 불렀을 때 자동적으로 또 자식의 노릇을 합니다. 또는 장가 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위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화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 물질적인 체는 어저께 게 있고 오늘 게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삼천 년 전에 있던 마음이나 지금 현재 있는 마음이나, 많이 모여도 한마음밖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도 없어요. 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마음과 마음이 수없이 한데 합쳐도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없다고 한 뜻이 바로 공해서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빗방울이 수없이 쏟아졌어도 그 한 바다에 들어갔다면 한 바다지 빗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자꾸 이렇게, 즉 말하자면 살아나가는 습관으로 인해서 모두 꼼짝하지 못하고 묶여 있지 말고 마음을 탁 틔워라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집에 갔다 오려도 갔다 올 수 있죠? 또 지구 바깥을 벗어나려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모두가, 마음이라는 게 광대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 있다 하지도 말고,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이라고 부처님께서 한 거는, 농사꾼은 농사꾼들 틈에는 농사꾼이 제일 으뜸이죠? 개개인이 다 높아요.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 아님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 29면에서 계속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발 아님이 없어서 '평발' 이랬고, '평손' 이랬습니다. 이 도량도 내 도량 아님이 없다. 내 몸 아님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게 높은 것도 없고 얕은 것도 없고, 모두가 독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에 모두가 독존이다. 모두가 중요하단 얘깁니다, 모두가. 그래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이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해서 없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로 자고 깨고, 먹고 눕고 일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불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움죽거리겠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문)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참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고통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 우리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 친밀한 사람들이나 친밀해도 도와줄 수가 없죠. 본래 도와줄 수가 없는 원인이 있죠, 모두가. 먹고 싸고 잠자고 하는 것이 전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프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고통이 많다 그런 거를 어떻게 쉽게 풀고 살 수 있을까. 쉽게 푸는 거는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놈한테 다시 거기에다 놓아야 됩니다. 놓지 않으면 안 풀어져요, 그게.

무슨 10대 20대 조상들로 인해서 유전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아서 고생들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생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다. 좋게 딴 데 재생이 되고 다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다고 하더라도 웃고 거기다가 탁 놓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생각도 없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펴지죠. 왜 이렇게 물건이 우그러졌던 것이 이렇게 변해서 펴지죠? 그거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쉽게 살지 못하고 이 고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아니 모습을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길을 가다 집이 없어도 아, 좀 쉬고 가야겠다 하면 그대로 생각에서 만들어서 집을 짓고 가고, 좀 놀고 가야겠다 하면 정원을 만들어서 놀고 가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깐 무슨 먹고 산다 이런 것이 하나도 걱정되는 게 없죠.

그리고 사람 사는 데 그 모두 사람 차원에 따라서 모두 사니까, 물이 나빠서 뭐 병이 들린다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생기지도 않고, 모든 게 그냥 깨끗하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가 그대로 채워지고. 허공에 그냥 에너지니까. 바람으로도 쓸 수 있고 모두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산다는 거는 없어요. 내가 거짓 하는 걸로 알지 말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그거 열심히 하나마나 자기 뿌리가 자기한테 있다는 건 사실이니깐, 자기 불성은 자기한테 있다는 건 사실이니깐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해보고 해라 이겁니다. 편리하게 살아라. 겁내지 말아라. 어떤 집에 들어가면 잘살게 된다, 못살게 된다 이런 것도 있죠, 왜?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모두 관습을 갖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니까 영계가 있어서 그냥 못살게 되고 쫓겨 나간다. 사람이 살아 가지고 왜 죽은 사람한테 쫓겨 나갑니까. 그걸 둘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공부 하는 사람은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외려 도와주지. 그래서 흉가집이라도 어떤 사람은 망해서 죽어서 되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아주 잘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항상 내가 가는 족족 생각하는 대로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항상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이 아니면 보살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보살행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차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 즉 부처의 도량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처의 도량이라니까 또 어디 막힌 부처의 도량인 줄 알지 마시고요.

결혼과 입산 출가의 공부는 다르겠지요

문) 한 때는 출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공부하는 거와 입산 출가 해서 공부하는 것은 많이 다르겠지요?

답)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계실 당시에 유마힐 거사가 있었죠.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유발 거사로서, 또 한 사람은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 주셨죠. 그랬는데 유마힐 거사도 스님네들을 가르쳤고 또 부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승려가 되고 안되고 그걸 떠나서 마음공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승려가 돼야만 되느냐. 이런 게 한 가지 꼭 있죠. 사람들은 탑을 쌓아 놓을 때에 탑을 쌓고, 보이는 탑을 쌓고 그 탑 봉이 올라가야 탑인 줄 알죠? 그렇듯이 스님네들이 돼서 입산을 해서 공부할 때에 스님네들이 더 지혜를 넓혀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복잡한 그 모든 사단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네 모습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같이 성불을 했다 하더라도 스님네 모습을 보고 와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유발이나 삭발이나 똑같아요. 모든 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모든 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분의 영원한 자기 뿌리가 제가끔들 있어요. 이 일체 만물만생에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는 동등하듯이, 나무가 이름이 다를지언정 뿌리는 다 평등하고 똑같듯이, 우리 개개인이 다 모습은 다르고 여자 남자 다르고, 또 어른 애가 다르고 그렇지만 그 뿌리는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뿌리가 자기 싹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잎새나 가지나 모두 헤아릴 수 없이 있듯이, 여러분의 몸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생명의 모습들, 그 의식들이 천차만별로 있어요. 우리가 저 나무 이파리, 저 향나무를 내려다볼 때 이파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네 몸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모습과 의식과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모습, 의식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심, 중심 주에다가 한데 합쳐서 우리가 놓을 수 있다면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죠. 거기서 신호가 가서 통신이 간다면 모두가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것이, 두뇌로부터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거죠. 모든 생명체들이 의식과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이 도리를 알려면 이론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물론 누구나가 다 몸속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나무들 이파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건 알지만 그것과 그것과 동등해요, 방편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깐 뿌리가 없으면 나무도 죽고 우리도 영원한 자기 뿌리가 없으면은 이 싹은 무효로 돌아가요.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과거 자기가 현재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 형성을 시켜서 말입니다. 수없는 억겁을 거치면서 형성을 시켜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이끌어서 이 사람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

그러니깐 과거로부터 출생을 시키고 진화해서 이끌어 온 장본인이 참자기의 보배이기도 하고, 참부처기도 하고, 참자기기도 해요. 어머니한테서 아버지한테서 육을 낳는 것은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출생을 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나오는 동시에 어떤 게 나오느냐. 인과, 유전,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서 그 영혼과 더불어 부착이 돼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과거 거를 다 짊어지고 나오기 때문이죠. 미래는 가지 않았으니깐 아직 없고요. 그러고도 현실 자체는 공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생활해 보시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만나는 거 하여간에 고정된 게 없죠. 찰나에 보면 찰나에 또 가고 찰나에 보면 또 가고, 찰나에 들으면 딴 거 듣게 되고 이러죠. 그러니까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하고 똑바로 자기를 찾아야 해요.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가 있는데 발견하는 거죠.

기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이유

문) 우리가 불자라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선원에서 기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답) '기도' 하면 벌써 상대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부처님!' 하면 벌써 상대를 두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님을 안 믿어서, 아주 나만 생각하고 부처님은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자서부터 그게 누적이 돼 내려 왔고, 습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벌써 불렀다. '지장보살!' 그러면 벌써 이렇게 올려놓곤 부르고, '관세음보살!' 하면 이렇게 벌써 둘로 놓고 보고 아, 이러니 왜 그 노릇을 합니까? 얼른 그저 길을 같이 가고 싶어서 '아이고, 부처님!' 하면은 그냥 둘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을 믿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내 주인공 속에는 역대 다 일체의 부처님이 들어 계시고 중생들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고걸 생각하시고 진짜 믿고 놓으십시오. 그냥 놓고 가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고는 척 내려가시더니 하는 소리가 멱살을 탁 잡고 "요놈아!" 그러면서 주장자로 어떻게나 몹시 갈겨 댔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요놈, 아이고 아이고 하는 놈은 누구냐, 요놈!" 아, 이러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지극하게 믿는 거. 첫째 놓고, 둘째 아주 믿는 거. 그 믿기 때문에 놓는 거거든요. 첫째 믿지 못하면 놓질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믿지 못합니까, 글쎄? 아니, 남의 이름은 믿으라면 잘 믿는데 왜 자기는 못 믿어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더 있나요? 누가 대신 죽어 주나, 대신 누가 아파 주나, 대신 자 주나, 먹어 주나, 똥 싸 주나? 아, 이거 큰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믿으세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 믿고 그저 놔요. 거기서밖엔 끌고 다닐 수 없다는 거.

생활 속에서 어떠한 괴로운 게 닥치겠죠. '아이, 이것도 거기서밖엔 해결 못하겠지.' 하고 탁 놔 버리세요. 그저 놓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일을 지켜봐라 이겁니다. 돌아오는 일을 지켜보면 거기서 체험도 얻을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에다가 탁 놓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생각도 없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우그러졌던 물건이 이렇게 변해서 확 펴듯이
그냥 펴지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아보세요.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바림등·공단등 : 6cm / 8cm / 10.5cm / 13cm / 20cm / 30cm

비닐만월등 / 비닐팔각만월등 / 영가만월등 / 장만월등
청사초롱등 / 오색청사초롱 / 비단접등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대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 방수전선-22cm, 23cm, 25cm, 30cm
  65,000원 (5줄이상) / 80,000원
- 방수전선-50cm
  75,000원 (5줄이상) / 90,000원
- 방수전선-1m, 2m
  90,000원 (5줄이상) / 100,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불자 세상보기

공정 사회를 위한 '두 수레바퀴'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황제 노역이 도대체 뭐야? 세상 잡사에 약간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동안 활자중독증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기분도 있고 해서 신문의 사건기사는 큰 제목만 보고 대충 넘어가는데 '황제 노역' 이란 단어는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았다. 황제가 하는 노역이라면 백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동인가? 웬걸 기사를 촘촘히 읽어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였다.

허주호 前 대주그룹회장이 하루 벌금 감액이 5억 원에 달하는 노역장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이래저래 부은 돈, 거금 2억 원 가까이 받아 나오면서 퇴직의 섭섭함을 어느 정도 위로받았는데, 그 누구는 하루에 5억이라니, 그야말로 억 하는 심정이다.

그 후 황제노역과 관련된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한국사회의 병폐와 도덕성의 위기가 총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첫 번째가 '연고 정실주의' 이다. '향판' 이라는 제도(처음 들어봤다)의 틀 속에서 20여년 고향에서 판사생활을 한 분이 일당 5억 노역판결을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고향에서 벼슬을 할 수 없게 하여서 '낙향' 이란 단어는 벼슬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향판제도가 고향을 사랑하듯 고향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로 만들었을 것일진대, 이것이 못된 연고정실주의의 마당을 제공한 꼴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권력 있고 돈 많은 지역 유지들이 똘똘 뭉친 연고정실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지도층이 얼마나 사회적 공덕심이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허주호 씨의 뉴질랜드에 있는 17개 회사는 모두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며, 많은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를 협박해 5억 원을 갈취한 시행업자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여론이 들끓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골프장을 담보해 벌금을 대신 갚겠다고 하니 가히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게다가 허 씨의 재산은닉을 도와주기 위해 변호사, 전직 언론인 등이 차명계좌를 제공하였다니 끼리끼리의 비도덕적 담합 행위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아마도 일당 5억 노역을 판결한 재판관은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범위는 이 보다 적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법조문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의 유지들이 허 씨의 선처를 위한 탄원을 하였다고 하니 향판으로써의 고뇌도 있었을 것이다. 황제 노역 사건은 한 재판관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구조적, 제도적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 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 가야 한다. 한 바퀴는 개인의 도덕성과 그 실천에 바탕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이다. 또 다른 바퀴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둔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사회구조나 제도가 비윤리적이라면 개인은 그 함정에 함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사회정의의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서 발생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가는 사회 균열과 파괴이다. 황제 노역 사건은 결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와 파열을 예고하는 불행한 징후이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이제는 제대로 화를 내고 싶다.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맑고 향기롭게' 20주년에 부쳐

1994년 법정 스님이 종교계의 사회개혁과 종교간 화합을 위해 출범시킨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가 3월 30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작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고 다짐했다. 20년을 한결같았던 회원들의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스스로 하는 것"



윤청광
방송작가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해 결성됐다.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자연을 보존 ·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며 많은 활동을 해왔다. 순수 시민 모임이 20년을 지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20주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스님께서는 시주의 은혜로 살아온 출가사문으로 "생전 밥값은 하고 가야겠기에 이 일 한가지만은 꼭 하고 싶다"며 모임을 발족하셨다. 모임은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홉 가지 실천덕목을 바탕으로 1994년 3월 26일 구룡사에서 첫 출발모임을 가졌다. 번거로운 것, 형식적인 것을 너무나 꺼려하셨던 스님께서 크게 발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오신 것이다.

이후 강화, 원주, 춘천, 전주, 광주, 마산, 대구, 부산 등 스님과 함께 전국을 돌며 대중들을 만나왔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스님의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함께했다. 맑고향기롭게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책 읽는 국민을 만들자' 는 모토를 가지고 다달이 한 권씩 책을 선정한 것이다.

이 운동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스님께서 법회 때마다 매달 책을 선정 그 중에서도 좋은 대목을 적어와 읽어주셨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스님께서는 책 읽는 백성이라야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항상 강조하셨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세상에 메아리를 울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또 이를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스님께서는 비록 가셨지만 이 운동은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는다.

스님의 뜻만 잘 이어간다면 100년 200년 후에도 맑고향기롭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 남을 것이다.

'하지 말라' 는 스님을 회상하며

고현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본부장)



고현 본부장이 디자인한 단체 로고

20년 전 법정 스님과 함께 '맑고 향기롭게' 를 시작할 때의 일이다. 당시 20여 개쯤 되는 중앙사단법인 이사들과 7~8개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스님과 저희들은 매년 한차례씩 모였다. 각 지부를 돌며 법회를 열기도 하고 서울 길상사에서 법회를 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생생하다.

스님은 항상 "정관계 힘을 빌리지 말라. 홍보 및 광고를 하지 말라. 부자동네에 손을 벌리지 말라" 고 하셨다.

우리는 스님께 질문했다. "찾아와서 우리 활동을 알려준다는데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참으로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처음 시작부터 남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그 도움에 젖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고 하셨다. 스님께서는 또 "우리의 능력껏 할 뿐이지, 질을 생각하고 양을 생각하지 말라" 고 하셨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처럼 자립을 원칙으로 출발했다.

스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또 있다. 바로 상을 갖는 것이었다. 스님께서는 문서포교를 오랫동안 하셔서 우리들이 쓰는 언어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 한 예로 맑고향기롭게에서 '자연보호' 를 표어로 걸자, 스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보호가 아닌 보존이 맞다" 고 하시며 바로잡기를 원하셨다.

스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지 말라며 가르침을 주셨다. 스님 스스로 "관도 짜지 말고, 수의도 입히지 말라. 탑도 부도도 세우지 말라" 고 하셨다. 오랫동안 모신 제자들은 항상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게 되는 계기로 남아있다.

맑고 향기롭게는 20년 동안 이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단체와 같이 활발한 홍보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이 항상 강조하신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 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社說

불교, 에너지 절약과 '착한 연등회'

조계종은 3월 30일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소속 사찰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10% 절약을 목표로 실천하고 절전 전구(LED) 사용, 에너지 효율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계종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계종에서 시작되는 불교계의 '녹색 열풍' 은 매우 유익하고 반가운 바람이다. 이러한 의식 개혁은 실천이 동반될 때 의미가 있다. 대웅전의 인등을 고효율 에너지 전구로 교체하고 부처님오신날 전국 거리에 걸리는 가로 연등을 LED전구로 바꾸는 작업은 이제 미룰 일은 아니다.

실제 백열전구 인등 7,400개를 사용하는 한 사찰의 대웅전을 LED전구로 교체했을 때 연간 절감비용은 390여만 원에 이르며 5,500개의 백열 인등을 LED전구로 바꿨을 경우에도 290여 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연등축제 시 가로변 연등을 밝히는 전구를 10W짜리 백열전구에서 LED전구로 교체하면 시간당 8W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울시도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조명을 LED전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조명보다 최고 8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LED전구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물론 숙제도 존재한다. LED전구가 초기 비용이 적지 않아 일선 사찰에 부담이 많이 되며, 가로 연등의 경우 시중 제품으로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마나 불교계가 나서 연등축제 행렬등 중 소형등을 LED전구로 바꾸고, 매연과 소음이 심한 대형 장엄등의 발전기를 배터리로 교체해 LED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같은 불교계의 노력과 일선 업체들의 기술 개발이 '녹색 사회' 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 고삐 당기자

조계종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740여 일을 넘었다. 오는 12월 22일이면 회향을 한다. 하지만 정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 다.

4월 2일 오후 3시 본지가 찾은 조계사 일주문 앞 정진단은 봉축 주간 선포식이 한창인 경내와 달리 적막했다. 조계종 자성과쇄 신결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시간대에는 정진이 잡혀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문제는 정진 동참자가 매우 한정적이고 재가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쇄신 주체이자 당사자인 스님들의 동참은 3월 동안 6명뿐이었다. 이들 스님은 총 10시간을 1000일 정진단에서 정진했고, 이 중 5명은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스님이었다. 종단 수뇌부와 부실장 스님들의 동참은 전무했다.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매일 12시간을 1000일간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 라는 홈페이지 설명이 무색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나서서 '전시행정의 전형' , '종단 수뇌부는 얼마나 정진에 동참했가' 등을 지적하는 비판 성명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비판을 결사추진본부가 입장문을 통해 수용한 것은 유익한 일이나 정작 정진 동참률 확대에 대해서는 "회향일까지 홍보와 조직 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

1000일 정진의 시작은 현 종정 진제 스님의 취임법회가 봉행된 2012년 3월 28일이었다. 이날 진제 스님은 직접 정진의 시작을 증명했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 이웃종교인들이 참여해 정진해 동참했다.

700여 일이 지난 지금, 1000일 정진은 '용두사미' 의 기로에 섰다. 다시 한번 정진의 고삐를 어떻게 당길지 결사추진본부는 고민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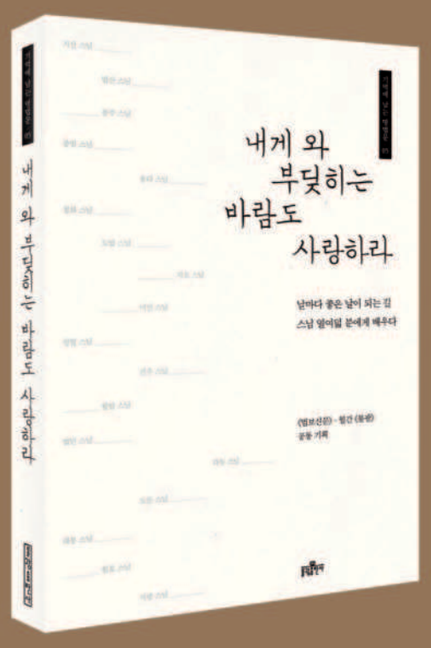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지선 스님
법산 스님
동주 스님
종범 스님
용타 스님
청화 스님
도업 스님
지오 스님
미산 스님
성열 스님
진우 스님
월암 스님
법인 스님
각묵 스님
도문 스님
대봉 스님
월호 스님
서광 스님

"허공이 화내고 찡그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허공처럼 걸림 없이 바다처럼 분별없이 무심으로 살아갑시다."



내게 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리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길
스님 열여덟 분에게 배우다

《법보신문》 월간 《불광》 공동 기획
지선 스님 외 17명 | 192쪽 | 11,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緣起法,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가?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미혹과 업으로 인해,
서로 관계하여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을 끊으라!

목경찬 지음
216쪽, 13,000원

정확한 번역, 간결한 문장, 작은 판형으로 만나는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법구경)



빠알리어 직역
담마빠다
DHAMMAPADA(법구경)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일아 스님이 수년에 걸쳐 공들여 작업한
담마빠다 번역의 정본!

일아 스님 옮김
224쪽, 12,000원



월호스님 법문 및 사인회
"삶은 환타지다"

4월 20일(일) 오후 3시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마가스님 힐링법회 및 사인회
"알고 보면 괜찮은"

4월 21일(월) 오전 11시

사찰도서관 지원을 위한 제7회 불교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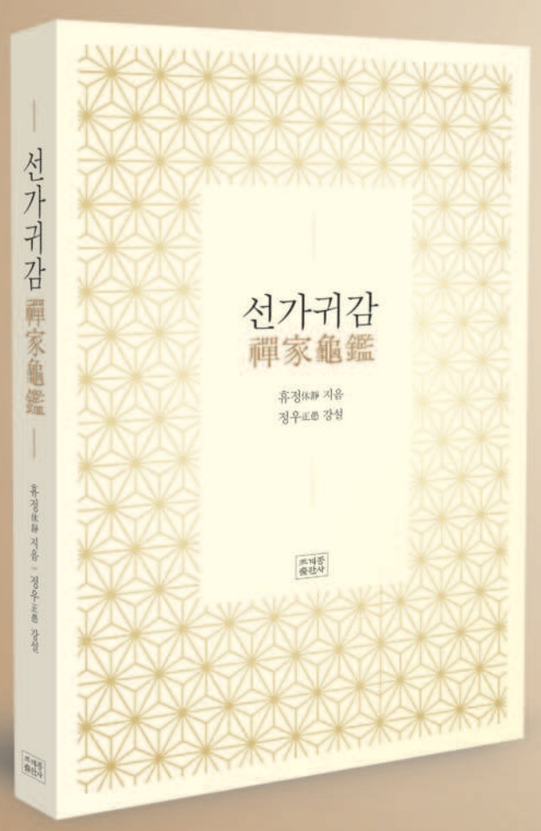
2014년 4월 19일(토) ~ 4월 25일(금)
조계사 대웅전 옆(7일간)

◉ 불교도서 신간 및 베스트 500여종 전시 및 판매 전 도서 20% 할인판매
◉ 행사 수익금 전액은 사찰도서관에 지원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관 | 불교출판문화협회
후원 | 월간 불광,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행사 기간 중 구입 및 문의
전화 | 010-2781-6727 팩스 | 02-420-3400
입금 | 농협 179300-56-119747 김시열





불교수행의 입문서, 깨달음을 향한 필독서!

선가귀감 禪家龜鑑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東巖 正愚 스님의 언어로 다시 듣는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 선사가 1564년 금강산 백화암에서 찬술한 책이다.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당시 시대상황에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것인지 안내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정우 스님은 은사이신 철우 태주 선사가 평생 지니고 공부하던 1,600년경 목판본 《선가귀감》을 저본으로 오래전의 가르침을 지금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 강설했다.

휴정 지음 | 정우 강설 | 284쪽 | 2014년 1월 25일 출간 | 값 18,000원



동암東巖 정우正愚 스님은 평생 참선 수행에 전념하며 법향法香을 전한 철우 태주(鐵牛 太柱, 1895~1979) 선사를 은사로 1960년에 출가하여 법을 이었다.
당대 대강백이신 강고봉, 호경, 혼해 강백으로부터 사집과四集科,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대교과大教科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국장,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거쳐 조계종 중앙종회 11대, 12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범어사, 불국사,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오대산 상원사, 지리산 칠불, 청암사 수도암, 덕숭총림 정혜사, 도봉산 망월사, 영축총림 통도사, 곡성 태안사, 백양사 등지에서 참선수행했다. 지금은 구미 금강사金剛寺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안거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출판사 인연 아름다운

(주) 조계종출판사 문의 _ 02)720-6107~9 www.jogyebook.com 구입문의 _ 불교전문서점 02)2031-2070~3 www.jbbook.co.kr 도서보급 _ 조계종출판사 서적총판사업부 02)998-5847